



9

1982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2. 9호

(루게 419)



◆◆◆◆◆◆◆◆◆◆

차 례

◆◆◆◆◆◆◆◆◆◆

빛나라 주체사상탑이여!.....	4
먼 십리	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6
장군님 우러러 녀전사는 싸웠네	6
축복받는 날에	7
80 년대의 숨결.....	8
청춘과 바다	9
혁명적문학예술발전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준 강령적지침.....	10
해방된 평양에서(3).....	17
어머님 그리시던 조국입니다	20
첫 기쁨	21
세상에 부럼없어라.....	30
더 많은 검은금 어서 캐세	34

그가 바란것	35
강철을 보내며	44
따뜻한 계절	45
조국의 명산-금강산	56
묘향산 기행시초	61
수령님 계시여 조국은 빛나라.....	63
꽃필 무렵	64
별아 우리함께 지켜주자	72
세부묘사와 참신하고 독특한 인간형상	73
진실한 묘사, 생동한 언어형상.....	77
림진강의 밤여울물소리	80

빛나라 주체사상탑이여!

류희갑

만리창공을 머리위에 이고
지구의 중심에 높이 솟아 빛나도다
광막한 우주를 한몸에 거느리고
누리에 붉은 노을 펼쳐가도다

승엄하도다 그 위용
찬란하도다 광휘로운 그 빛발
위대하도다 그 위업
영생불멸의 주체사상탑이여!

너 만년초석으로 뿌리내린곳은
주체의 첫싹이 움터자란 조선의 대지
너 불멸의 기상으로 높이 솟아 빛나는곳은
주체의 해돋이가 밝아온 조선의 하늘

자주시대의 격류인양
너의 기슭엔 용용한 대하가 흐르고
인간의 슬기 인간의 무한대한 힘의 상징인양
해빛찬란한 풍요한 대지우엔
자립의 강철기둥 숲으로 솟아나라
해불이 타는 너의 머리우엔 위성인양
금빛 별무리 별무리 내리도다!

우주가 열리어 수억만년
인류가 태어나 수수천만년
인간의 존엄은 압제의 철폐에 묶이우고
인간의 슬기는 예측의 짙은 그늘밑에 시들어가고
인간의 무한대한 힘
고달픈 운명의 노예로 혹사당하던
지나간 력사의 기나긴 세기들에
인류가 피타게 갈망한것 무엇이었던가

기나긴 력사의 마지막장을 번지시듯
굴종과 예측으로 숨막히던
어둠의 장막을 서서히 밀어내시며
위대한 **김일성**동지
그이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의 진리 주체의
선언으로
《ㄷ. ㄷ》의 대강을 높이 펼쳐드실 때
오, 그날에 인류가 받아안은것은
위대한 태양의 빛발이었다

오, 그날
주체의 태양계가 열리는 조선의 하늘을 우러르며
세계의 주인으로

자기 운명의 영원한 주인으로
우주를 안고 인류가 다시 태어날 때
오, 탑이여
그날에 벌써 너의 기초는 내리고있었다

포악한 식민주의아성에 파렬구를 내시며
압제의 암반을 밀뿌리채 들부시던
항일대전의 준엄한 총포성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장엄한
선전포고였구나
항일의 령장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의 새봄을 안아오신 그날에
탑이여!
그날에 이미 너의 탑신은 솟아오르고있었다

불길처럼 나뭇기던 《ㄷ. ㄷ》의 붉은 기발
그 불멸의 혁명기치 누리에 붙는 불이 되어
너의 머리우에 해불로 타오르는것 아니더냐
백두밀영에 타오르던 우등불이
보천보의 밤하늘에 충천하던 그 화광이
세기의 어둠을 불사르는 봉화되어
너의 이마우에 진리의 불빛으로 옮겨진것
아니던가!

백두의 산발에 남기신 거룩한 자욱
여기에 새겨지도다
미제를 때려눕힌 자위의 성새
강대한 조선의 힘 여기에 새겨지도다
천리마의 날음 속도전의 열풍을 부르며
대담한 구상, 통이 큰 작전, 위대한 령도로
공업화의 14년에 한세기를 날아넘으며
자립의 경제강국을 일떠세운
조선의 기상
조선의 기질 그대로 탑신이 되어 여기
솟아오르도다

우리러 마주서면
위대한 정신, 위대한 방법이 태어난
청산리의 들길, 대안의 구내길이 안겨온다
강선의 노을빛
창광거리의 불빛이 안겨온다
향도성 찬란한 조선의 미래가 보이도다
세계의 미래가 여기에 비껴오도다

주체사상탑!

지구의 공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

김일성 동지의 그 위업

인류사상의 절정

인간중심의 주체철학을 창시하신

김일성 동지의 그 위대한 공헌

문자로도 다 새길수 없고

노래로도 다 읊길수 없는 인류의 마음

그 열망, 그 의지, 그 념원 모이고 합쳐

초석이 되고 탑신을 이루어

해불을 받들어올렸나니

너는 인류사상사가 우주공간에 적어놓은

가장 빛나는 사적비문이구나!

해불이 타오른다

위대한 진리의 불빛이 비쳐가도다

너의 광휘로운 빛발 비쳐가는곳

풍랑사나운 태양의 배길우에도

암초는 녹아내리고 자주의 항로는 열리도다

너의 불빛 비쳐가는곳

지구의 한끝

신생의 대륙 싸우는 친구들에서도

주체의 진리로 무장한 인민

인간의 존엄과 자주의 권리를 수호하며

압제의 죄사슬을 끊어버리도다

식민주의 지배주의 아성을 들부시도다

오, 주체사상탑!

너는 자주의 궤도우에 주축으로 높이 솟아

력사의 진로를 밝히는 자주시대의 등대

예속과 압제의 숨막히는 어둠을 불사르는

새세기의 위대한 봉화

너는 인류사상의 절정에 휘날리는

불멸의 혁명기치

주체의 태양,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주체시대의 사령탑이여라!

빛나라 탑이여!

불멸의 주체위업 천만대에 길이 전하며

빛나라

그 이름 광휘로운

주체사상탑이여!

먼 십리

리재남

살구재언덕을 넘어

둥근달 머리에 이고

소조원처녀는 돌아오네

따라서는 달과 별과 속삭이며

낮빠스 기다릴새 없이

가끔 걸어서 오가는 십리길

이 밤도 처녀는 서둘러 오네

군에서 농장까지 다그쳐오네

이래전 농장에 파견되어오던 날도

얼마전 당원증 받아안고 오던 날도

지체할길 없어 기다릴새 없어

훨훨 걸어서 넘던 살구재 십리

이마우에 송골

이슬맺힌 땀방울도 씻을념 없이

어이하여 처녀는 바빠 걷나

그 무슨 사연 안고 이 밤길 가나

살구재 강냉이밭머리를 지날 땐

정들여 키웠온 그 포기포기를

한아름에 안아주며 속삭이는 마음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락밭의 강냉이도 잘자라는가 물으셨단다

어버이수령님 부르심 받고 달려가

그리운 품에 안겼던 소조원

귀중한 가르치심 안고오는 소조원

그대의 기쁨, 그대의 행복

어머니대지도 다 알고있는듯

감격의 눈물처럼 밤이슬 내리는데

오, 처녀의 그 마음 알아선가

목메이게 풍기는 오곡의 훈향

걸음걸음 마중오는 정든 포전들

알찬 열매를 꽃다발처럼 추켜들고

소조원처녀를 축복하는듯...

그리운 사람들에게 앞서가는 그 마음

오늘따라 이 길이 왜 이리도 멀가

그전엔 트랙처럼 가깝던 이 길

어이하여 오늘은 아득히 멀어만 뵈가

아, 달려가도 달려가도 먼먼 십리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루이스 마누엘 데 아라우조

아, 영광, 영광, 최대의 영광을
친애하는 지도자
존경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드립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귀여운 새들의 지저귂소리
우리는 듣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드리는 영광의
목소리로

우리는 조선의 광활한 농장벌을 바라봅니다
규모있게 가꾸어진 황금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뚝우뚝 기증기 높이 솟은
장엄한 건설장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바라봅니다
흰 연기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저 현대적인 공장들을
인민의 예술, 인민의 문화가 꽃피는
화려한 극장들과 영화관들을

우리는 소리높이 부릅니다
백두산의 높은 령봉을 바라보며
우리는 부릅니다

가사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영광의 노래를
우리의 우렁찬 목소리 울려퍼집니다
온 세상 방방곡곡에 울려퍼집니다
김정일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는 노래소리
우리는 병원과 학교를 바라보며
우리는 조선의 위대한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백두산천지를 바라보며
소리높이 웨칩니다
김정일 동지께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드린다고

울려옵니다 천지를 진감하는
혁명대오의 힘찬 발걸음소리
울려옵니다 **김정일** 동지께 영광을 드리는
웨침소리
우리는 **김정일** 동지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김일성 주의자들의 흥분된 웨침소리를
듣습니다

영광, 영광, 영광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영명한 지도자
존경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필자는 **김일성** 주의연구보르투갈위원회
위원장)

장군님 우러러 녀전사는 싸웠네

장윤길

사령부를 떠나서 그 얼마였던가
가시덤불 헤치며 그 얼마였던가
장군님을 우러러 충성의 해발로
압록강을 넘나들며 녀전사는 싸웠네

신갈과의 나루터 물결을 넘으며
꿈결에도 달려가던 녀전사의 그 마음

걸음마다 장군님의 높은 뜻 받들어
마을에 거리에 봄빛을 뿌리네
아침해가 비쳐도 장군님 그리고
등근달이 떠올라도 장군님 생각했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녀전사 가는 길에
조국광복 새날이 밝아왔다네

축복받는 날에

리종덕

설레는 가슴을 달래며
딸애의 출생증을 펼쳐드니
금시 해발이 빛발치는듯

빛나는 글발
나는 딸애의 출생지를 읽는다
아, 김정숙군 김정숙읍

말못할 그리움에 젖어
머리 들어 바라보니
이깎술 푸른 남산언덕에
해빛같이 웃고계시는
우리의 김정숙어머님

방금 압록강을 건너오시여
군모를 벗어드신 채
조국산천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그날의 그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숭엄한 영상

따사로운 그 해빛이
이 땅에 또 하나
복받은 미래를 만들어올렸는가
신파나루가의 강물소리도
환희의 노래를 불러주어라

축복하노라
네가 첫걸음을 땔 그 길도
장군님 받들어 어머님 걸으신 길
네가 부를 노래도
이 마을사람들에게

투쟁의 불씨를 심어주시며
어머님 부르시던 노래

해 뜨는 아침이면
사령부를 찾아 떠나신 길가에
어머님을 반겨웃던 꽃이
너를 축복해주고
이제 네가 들어서게 될
김정숙녀자고등중학교는
큰문을 활짝 열어놓고
너를 맞아주리라

아, 어머님의 뜻 만대에 빛내고
어머님의 그 업적 천만년 받들어갈
인민의 소망을 안고
어머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의 그 땅에 태어난
너는 복받은 첫세대

그 해발 너의 몸을 감싸고
그 해발 너의 눈에 빛나거니
천리를 가고 만리를 간들
수령님 따르는 그 걸음
한자욱 헛디딤이 있으랴

해빛은 눈부시여라
축복받는 딸애야
아, 삶의 시작도 끝도
충성의 그 품에 두고
어머님의 딸로 너는 태어났구나

80 년대의 숨결

차영도

조국이여
너는
얼마나 장엄한 진군길에 올랐느냐
영광의 이 80년대에

둘러보면
숨은 영웅들의 숨결로 뜨거운
이 땅
이 하늘

누리를 뒤덮은
3대혁명의 불길속에
오, 이 땅의 80년대가
숨결높이 흐른다!

김철의 용광로는
펼쳐 끓는 쇠물을 내뿜으며
온 나라를 다시 한번 대고조어로
힘차게 부르고

검덕의 광차는
시대의 숨결을 안고
천길 지하막장으로
질풍같이 육박한다

보라, 뜨겁게 달아오른
강선의 압연기는
나라가 만톤의 강재만 애타게 찾던
력사의 그날을 잊지 말라 소리치고

통성의 타닝반은
자력갱생의 그 간고했던 나날을
천만심장에 다시금 새겨주며
집채같은 강철기둥을 욱물고 돈다

오, 80년대!
당중앙의 예지로 빛나는 나의 조국이
다시 한번 천리마의 네굽을 견어안고
새날의 창공우에
비약의 나래펼친 년대여

얼마나 장엄한 진군이
이 땅에 시작된것이나

얼마나 광휘롭고 성스러운 행군이
우리를 부르는것이나

혁명은
이 영광의 80년대우에
화려한 행복의 화환을 엮으며
우리의 앞길에, 우리의 미래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안아오리니

- 《80년대속도》를 창조하자!
이 혁명의 목소리에
얼마나 엄숙한
시대의 자각이 불타고있느냐

이 말속에는
기어이 점령해야 할
10대전망목표를 두고
혁명에 맹세다진
우리의 담대한 결심이 있고

이 말속에는
이 땅의 모든것을
당중앙의 뜻으로 새로 창조하고야말
우리의 비상한 각오가 숨쉬고있나니

《80년대속도》
이는
우리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

오, 삶이면
이 년대기우에 꽃피라
위훈이면
이 년대기우에 빛나라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에
혁명전사의 참된 의리로
일만산악이 일어서고
천만걸음이 나아가는
80년대!

이 년대에 우리 끓인 쇠물은
조국의 기억속에 영원히 식지 않으리

이 년대에 우리 캐넌 쇠들은
세기와 세기를 넘어 빛을 뿌리리

이 년대에 우리 부른
삶의 노래, 투쟁의 노래는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후대들의 가슴속에
변치 않는 충성의 뉘트로 굵이치리

오, 당중앙의 결심으로
큰결을 내디딘 80년대
당중앙의 의지로
불같이 숨쉬는 80년대

영광이 있으라
3대혁명의 찬란한 노을속에
별처럼 솟아오르는
숨은 영웅들의 수없는 발자욱이여
이 땅에 도도히 흐르는
위대한 혁명의 대진군이여

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끓고, 우리의 피가 뛰는
80년대의 숨결이다!
80년대의 숨결이다!

청춘과 바다

윤기찬

밀물소리 자장가로 들으며
셀물따라 내 조개 줏던곳
바다여
오늘은 너의 기슭을 내 안았구나
물날은 군복을 입고...

개발자의 첫자욱을 찍으며
백리 제방을 쌓아올려
백리 두 제방이 잇닿는곳
여기 마감막이전투장에
오늘은 바다가의 이 아들이 서있구나

하늘에 물산악 말아올리며
어리광치는 파도여
너의 사나운 그 물결우에
섬같은 돌집배를 가라앉히며
내 웃음으로 너를 놀리버린다

휘뿌리며 휘말며
제방을 삼키려는 너 물갈기
갈매기의 나래는 접을수 있어도
산과 들을 날아넘던 병사
청춘의 내 나래는 못접으리

마감막이 전구를 들부시며
그리도 울부짖는 바다여
네 성난 사자마냥 덤벼든다면

나는 너를 길들이는 교예사란다
네 아무리 들보쳐어도
나는 너를 아기인양 한품에 안고
어머니처럼 잠재우련다

종구나
밀려드는 너의 파도갈기는
땀물에 절은 이 단가슴을 식혀주는 샤와
종구나
내 딛고 올라선 너의 품은
열정에 끓는 청춘의 활무대

내 구슬땀 흘러내리여
그리도 찼찼해진 바다물인가
그 파도에
내 병사의 군복은 색깔아도
이 기슭은 푸르려지리라
바다를 기울이여 쟁취한 기술
간석지 천리벌은 푸르려지리라

바다여 먼먼 후날에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라
감때사나운 성미로
한세월 틀고있던 이 기슭을
대고조의 불길을 다시한번 심장에 안은
80년대 청춘들에게 머리 숙였노라고.

혁명적문학예술발전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준 강령적지침

강능수

1

오늘 우리 작가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혁명적문학작품창작에서 또 다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려는 뜨거운 결의를 안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의 계기를 열어준 강령적방침 발표 1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10년, 그것은 한 나라 한 민족의 유구한 민족 문학예술력사에서 볼 때 극히 짧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10년동안에 우리 문학예술은 얼마나 큰 전변과 발전의 로정을 걸어왔던 것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창조적로동과 생활 창조에 힘있게 고무하는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습니다. 참으로 지난 1970년대는 우리의 문학예술이 당의 주체적인 문예로선에 따라 찬란히 개화 발전한 주체예술의 대전성기였습니다.》

주체예술의 대전성기, 그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서 나서고있던 시기의 현실적요구와 우리 문학예술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명철하게 통찰한 당중앙이 력사상 처음으로 문학예술혁명을 제기하고 탁월한 주체적문학예술건설방침을 밝혀 주었으며 위대한 령도로써 그를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주었기때문에 이룩된 것이다.

이에 있어서 당중앙이 밝혀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밝혀준 강령적방침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서 나서고있는 새로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 담당자인 작가의 정치사상적준비와 예술적자질을 갖추는 문제를 비롯하여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제반미학적문제들 그리고 교양단체로서의 문예총 및 작가동맹의 사명과 임무에 이르기까지 문학예술작품창작과 그 지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완벽한 해명을 주었다.

따라서 당중앙이 밝혀준 탁월한 문예방침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혁명과 건설이 심화된 시기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제반원칙적인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백과전서이며 공산주의문학예술건설의 강령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서 나서고있는 새로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는것은 그 어떤 예술상의 문제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혁명과 문학예술, 시대와 작가, 예술인들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는가 하는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로 제기되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대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만들어야 할 시대적과업과 관련되어있었다.

공산주의사회가 인류의 가장 높은 사회적리상이라고 하면 주체형의 인간은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리상을 체현하고있는 인간의 본보기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우리 시대의 유일하게 정당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세계관으로 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현시대뿐만아니라 공산주의미래사회를 대표하는 참다운 전형이다.

현실발전의 이러한 특징은 문학예술작품에서의 미적규준을 새롭게 갱신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그것이 문학예술건설에서 근본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또한 당시의 우리 문학예술의 실태와 관련되어있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문제가 사상사업분야에서 가장 선차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문제로 제기되었으나 적지 않은 작가, 예술인들은 아직 그것을 어떻게 창작실천에 구현하여야 하는지 잘 모르고있었으며 따라서 문학예술작품창작사업에서는 우리 시대의 구감으로 될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일련의 부족점들을 발로시키고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혁명과 문학예술, 시대와 작가, 예술인들의 관계와 같은 문학예술창작사업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혁명적으로 해결함이 없이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바로 작가, 예술인들 자신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튼튼히 준비하며 창작예술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서 나서고있는 새로운 현실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따라세우는 기본해결

방도로 된다는것을 밝혀주었다.

당중앙은 무엇보다먼저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었다.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운다는것은 전당과 전체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여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도록 하는것이다.

당중앙은 이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깊이있게 학습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이는 당중앙이 위대한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문학작품창작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밝혀준 탁월한 사상이다.

문학작품창작의 담당자는 작가이며 여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그의 사상의식, 즉 세계관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세계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립장을 주는 주체의 세계관을 확고히 세울수 있다.

이와 함께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방침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연구체득하여야 하며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방침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체득하여야 자연과 사회, 인간생활에서 나서는 복잡한 문제들을 올바른 혁명적립장과 관점에서 정확하게 분석평가할수 있으며 그것을 문학작품창작에 훌륭히 구현할수 있다.

따라서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적준비는 우리 시대 주인공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를 파악하고 그들의 지향과 념원을 정확하게 반영할수 있게 하는 선결조건이다.

뿐만아니라 당의 유일사상체제가 확고히 선 작가, 예술인들만이 창작사업에서 언제나 빛나는 성과를 달성할수 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문예방침을 창작의 지침으로 삼는 작가, 예술인들만이 언제나 로쇠를 모르고 항상 창작적열정에 불탈수 있으며 당중앙이 새롭게 밝혀준 주체적인 창작원칙인 창작에서의 속도전을 전개하여 빠른 시일내에 커다란 사상예술적성과를 거둘수 있기때문이다.

속도전은 창작의 주인인 작가, 예술인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창작적열의에 의거해서 문학예술작품창작을 최단기간내에 가장 높은 질적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하는 우리 시대 혁명적인 작가, 예술인들의 일본새이며 기본전투형식이다.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시대의 혁명적창작원칙인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문예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의 방침을 작품창작에 철

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문학예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당중앙이 바라는 질실한 문제들을 제때에 반영하고 그에 대하여 정확한 해답을 줌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당중앙은 이처럼 혁명과 문학예술, 시대와 작가, 예술인들과의 관계에서 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사상적준비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함으로써 현실속에서 새롭게 산생하는 아름다운것을 성과적으로 반영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혁명적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새롭게 체득할수 있게 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새로운 현실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정치사상적준비를 갖추는것과 함께 예술적자질을 높여야 한다.

예술적자질문제는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서 언제나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이다. 작가, 예술인들이 아무리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어있고 각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창작예술적기량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수 없는것이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서 언제나 중요하게 제기되는 예술적자질문제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돌려주시는 정치적인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으로써 보답하기 위한 충성심의 발현분야로 규정함으로써 예술적자질을 급속히 제고할수 있는 령활한 길을 밝혀주는것과 함께 높은 예술적자질은 혁명적 작가, 예술인들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사상을 밝혀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돌려주시는 높은 정치적인임과 배려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예술적기량을 높여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충성을 다하는데 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이와 같이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근본문제로 제시되는 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사상적준비와 창작예술적기량문제를 독창적으로 밝혀주었을뿐만아니라 또한 그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도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었다.

이것은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나서는 근본문제가 해결되었다는것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당중앙은 강령적방침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완벽한 해명을 주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해야 하였다.

이에 있어서 관건적인 문제로 제기된것은 주체

사상으로 일관된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옳게 보장하는 문제였다.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시키는 문제는 우리 문학예술의 실태와 임무로부터 중요하게 제기 되었을뿐만 아니라 당시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에 나타나고있었던 좌우경적편향과 관련하여 절실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였다.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에 나타나고있었던 우경적편향은 공산주의적사상성을 거부하고 예술성 일면만을 내세움으로써 사상성과 함께 예술성자체도 부인하는 길로 나간 데 있었으며 좌경적편향은 정치적 일면만을 강조 하던 나머지 예술성과 문학예술의 특성자체를 부인하는 길로 나간 데 있었다. 이와 같은 편향들은 모두가 다 정치와 문학예술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분리시켜본것으로서 사회적의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문학예술의 발전과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에서 유해로운것이였다.

당중앙은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종자를 바로줘야 한다고 가르치였다.

우리 당은 이와 함께 작품의 핵으로서의 종자의 본질과 의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통일시키고 결합시킴에 있어서 그가 노는 역할 등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명을 주었다.

문학예술에서 종자란 하나의 생명유기체와 같은 작품의 핵이며 작가가 생활을 탐구하는 과정에 찾아낸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종자를 바로잡아야 작가가 말하려는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수 있고 아름다운 형상의 꽃을 피울수 있다.

따라서 종자는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된다.

뿐만아니라 종자는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바탕으로, 그 가치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한것은 종자란 바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종자를 바로잡아야 사회적으로 의의 있는 문제를 제기할수 있으며 그것을 생활발전의 논리에 맞게 깊이있게 그려냄으로써 작품의 높은 사상성을 획득할수 있다.

또한 종자를 바로잡아야 그것이 사상성과 예술성을 통일시키고 결합시키는 바탕으로서의 기능을 옳게 수행할수 있다.

사상성과 예술성을 어떻게 통일시키고 결합하는가 하는것은 미학상문제이면서 동시에 작가, 예술인들의 자세와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 당은 사상성과 예술성 사이의 균형을 옳게 보장하고 이 두 측면의 결합을 철저히 실현하는 문제는 창작가들의 준비정도에도 달려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창작가들이 어떤 자세로 작품을 창작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가르치였다.

이에 있어서 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사상적 및 창작예술적기량의 준비정도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정치사상적으로나 창작예술적기량에서 준비가 높지 못한 조건에서는 아무리 창작가가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려고 하여도 실현할수 없기때문이다. 한것은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은 그 어떤 산술적인 계산에 의한 결합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생활의 논리에 맞게 예술적으로 형상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결합이며 통일이기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창작가의 부단한 노력과 탐구에 의하여 불원간 해결할수 있는 문제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것은 창작가들이 문학예술창작에서 관건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사상성과 예술성에 대하여 옳바른 자세를 가지는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것은 바로 인민대중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교양하겠는가 하는 창작가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과 관련된 문제이며 그 직접적인 표현으로 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당의 문예방침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참답게 이바지하려는 혁명적인 자세와 립장을 가진 작가, 예술인만이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이 결합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수 있는것이다.

문학이 사람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문학을 문학으로 되게 하는, 다른 사회의식형태와 구별되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백방으로 살려야 한다.

문학이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기본고리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리론적으로뿐만아니라 창작실천적으로 매우 절실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였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작품창작에서 류사성을 없애고 독창적이며 비반복성의 원칙을 구현하는것이라고 가르치였으며 이로써 문학의 특성을 강화하는 기본고리를 밝혀주었다.

문학작품의 창조자는 작가이며 그에 의하여 창조된 작품이 다른 작품과 구별되게 하는것은 독창성이다.

독창성은 진실한 예술작품과 류사성이나 모방, 도식주의 등 온갖 문학의 모조품들을 날카롭게 갈라놓으며 창조자인 작가와 작가행세를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작가가 아닌 모방가를 갈라놓는다. 독창성은 창조라고 하면 류사성과 모방은 기성의 작품에 대한 반복이며 모조이다. 따라서 한 틀에 맞추어 만드는것은 작품이 아니라 상품이며 그러한것을 만드는 사람은 작가가 아니라 상품제조공이다. 도식과 류형은 예술의 죽음이다.

창작에서 독창성은 작가의 창작적개성에 의하여 담보된다. 창작적개성이 뚜렷할수록 그에 의

하여 창작된 작품은 언제나 비반복적이며 독창적이다.

독창성과 개성화의 원칙을 옳게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당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당적안목을 가지고 생활을 독창적으로 고찰하고 탐구하고 파악하여야 하며 그를 일반화하고 개성화하는데서, 그리고 탐구된 생활을 형상하는데서 특색이 있어야 한다.

당중앙은 또한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며 시대와 인민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을 깊이 연구할데 대하여 밝혀주었다.

당중앙은 이와 같이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옳게 결합시키며 독창성과 작가의 개성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명철하게 밝혀줌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이 그 어떤 편향도 범하는 일이 없이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백방으로 살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사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하였다.

당중앙에서는 혁명적문학예술발전에서 나서는 관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명을 주었을뿐 아니라 서정시와 가사에서의 서정성문제를 비롯하여 소설, 아동문학 등 문학의 모든 분야의 발전방향을 밝혀주었다. 그리고 음악과 미술 발전에서도 획기적인 전변을 일으킬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여주었다.

당중앙은 이밖에도 새로운 환경에 맞게 교양단체로서의 문예총과 작가동맹의 사명과 임무를 명철하게 규정해주고 교양사업의 내용으로부터 교양사업체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바로세워주었으며 동맹안의 당조직의 임무에 대하여서도 새롭게 밝혀주었다.

참으로 당중앙이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밝혀준 탁월한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문학예술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완벽한 해명을 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문예강령이다.

2

당중앙이 밝혀준 강령적인 문예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은 곧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의 모든 영역에서 낡은것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사상분야에서의 심각한 혁명이었다.

이 과정에 창작과 지도, 창작생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게 되었으며 우리 문학예술은 참말로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이 조화롭게 결합된 주체적인 문학예술로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전적으로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문학예술창작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방침을 제시하고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리론으로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준데서 이

록된것이다.

따라서 지난 10년간은 당중앙이 밝혀준 강령적방침의 위대성과 정당성을 과시한 10년이였으며 당중앙의 현명하고도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승리를 아로새긴 10년이였다.

당중앙이 밝혀준 강령적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은 무엇보다 우리 문학이 우리 시대인간들에게 귀중한 혁명의 량식을 주는 혁명소설들을 수많은 창작하여 내놓은데서 찾아볼수 있다.

수령형상창조문제를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창작에서 나서는 초미의 문제,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수령형상창조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완벽하게 해명하여준 당중앙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관철하는 길에서 우리 소설문학은 실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인 《준엄한 전구》, 《백두산기슭》, 《고난의 행군》, 《근거지의 봄》, 《대지는 푸르다》, 《두만강지구》 등은 그와 같은 작품들의 대표적인 실례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결국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은 오늘의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데 복무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에게 귀중한 혁명적량식을 주는 작품이란 바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삶의 목적과 의의를 최상의 높이에서 밝혀주는 작품이다.

우리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혁명적수령관을 세워주는데 이바지하는 가장 영예로운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 해결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혁명적수령관은 주체의 세계관에서 책을 이루며 우리 시대 인간들을 다름아닌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되게 하는 기본징표이다.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섰다는것은 수령관이 섰다는것을 의미하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품성인 혁명적신념과 혁명적의리 또한 수령관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에 있어서 우리 혁명소설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형상의 중심에 정중히 모심으로써 사람들에게 혁명적수령관을 세워주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인민들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으로 교양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실재하였던 력사적사실과 원형에 기초하여 예술적으로 재현하면서 우리의 혁명소설들은 것처럼 간고하고 시련에 찬 조선혁명이 어떻게 개척되고 어떻게 줄기차게 전개되었으며 바로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 승리의 로정을 걸어왔는가 하는것을 자기의 기본형상적과제로 제기하였다.

간고성과 준엄성, 그 치열성에서 일찌기 류체를 찾아볼수 없는 항일혁명투쟁의 20년, 공고한 후방도 그 어떤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강대성》을 자랑하던 일제와 정면으로 대결하여 싸웠으며 안으로는 사대종파분자들을 비롯한 혁명의 변절자들과 싸워야 하였던 그 간고한 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끈 힘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우리의 혁명소설들은 그것이 다름아닌 사람중심의 철학이며 사람을 세계의 주인, 그 지배자로 내세워주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성의 승리이며 세상물정을 모르는 떠꺼머리총각으로부터 시작하여 청춘의 불타는 열정을 어디다 쏟아부을지 몰라 땅을 치고 가슴을 치던 학생복차림의 지식청년에 이르기까지, 노동자, 농민 출신은 물론 자산계급출신에 이르기까지 조국과 혁명의 귀중함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백배천배의 힘을 내게 한 그 령도의 위대성의 승리이며 우주와 같이 끝간데 없이 무한대하며 또한 해빛처럼 따사로운 그 사랑, 그 인품의 위대성의 승리라는것을 철학적깊이를 가지고 형상적으로 힘있게 확증하였다.

사상과 령도, 사랑, 이것은 따로따로 떨어져있는것이 아니라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가로서의 품모속에 하나로 통일되어있는가 하면 위대한 아버지로서의 품모속에 하나로 결합되어있기도 하다.

이에 대하여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에 나오는 한 인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있다.

《나는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담화하는 과정에서 그들중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의 사상을 파악하고 그에 공명하기에 앞서 그의 인격에 먼저 감화되어 다시말하면 그가 베푸는 사랑에 감동되어 그를 따르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그의 사상으로 점차 무장되면서 혁명가로 자라났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간고한 혁명투쟁력사는 바로 일제의 백만대군과 현대적기술기재와 장비에 대한 위대한 주체사상의 승리의 력사이며 위대한 령도의 승리의 력사이며 전설같은 위대한 사랑의 승리의 력사 즉 수령님의 위대성의 력사이다.

이것은 우리 혁명소설이 혁명적수령관을 세움에 있어서 달성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커다란 성과로 된다.

혁명소설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의 귀감으로 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전형형을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조선공산주의운동력사에 맥맥히 흐르고있는 충실성의 전통을 밝히였으며 우리 시대 인간들로 하여금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어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을 받들며 그 어떤 시련과 풍파 속에서도 드물지 않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충성 다하도록 고무하고 있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의 빛나는

형상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옥, 차광수, 오중훈, 배정식, 강세호, 리복철, 리경준, 한태혁, 리성립, 최선금 등 감격과 흥분 없이는 회상할수 없는 수많은 매력있는 형상들이 창조되었다.

이들의 성격적매력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어떻게 높이 우러러 모시고 받들어야 하는가 하는 리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과 무한한 헌신성을 가르치고있는데 있다.

우리의 혁명소설들은 그들의 충성심이 책을 읽어서 체득하거나 그 어떤 의무에 의하여 생겨난것이 아니라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실지 체험을 통하여 체득한 신념에 기초한것이며 그이께서 베푸시는 크나큰 은정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고결한 혁명적의리에 기초한것이기때문에 그처럼 맑고 깨끗하며 또 그들의 내면세계가 그처럼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다는것을 형상적으로 확증하였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의 주인공들인 리경준 부부와 윤칠녀, 장기령이 유격근거지에 틀고있던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모략책동에 의하여 각각 혁명대오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을 때 사전에 아무런 약속한것도 없었지만 장군님께서 계시는 남호두로 가는 수림속에서 걸음을 같이 하게 된것은 자신들의 운명을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풀어주실수 있다는 오직 그 하나의 신념에서였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의 오중훈의 형상에서와 같이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지시는 물론 그이께서 심상하게 하시는 한마디의 말씀에서도 거기에 깃든 깊은 뜻을 헤아리고 과감히 전투를 벌려기어이 추적물자를 마련하는 충성심의 산 모범은 얼마나 깊은 감명을 주는가. 몸은 비록 대오를 떠나갔으나 명령집행에서의 무조건성의 상징처럼 그의 배낭속에 남아있는 훈련제강, 언젠가 장군님께서 과업을 주신것을 후련의 행군길에서의 휴식참에 짊짊이 쓴 훈련제강이 그처럼 커다란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것은 장군님의 요구는 혁명의 요구이며 그이의 명령지시를 관철하는것은 곧 조선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 길이라는것을 깊이 확신한데 있는것이다.

그것은 또한 리성립의 형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신이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데다가 또한 중상당한 춘옥을 발구에 싣고 사나운 눈보라와 굶주림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그 멀고먼 수백리길을 오히려 아름다운 우정을 꽃피우며 헤쳐간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뵈옵기전에는 쓰러질수 없으며 오직 정치적생명의 은인이실뿐아니라 육체적생명의 은인이기도 하신 장군님의 품에 안겨야 한다는 그 뜨거운 충성심이 있었기때문이었다.

우리 주인공들의 충성심은 이처럼 사령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격렬한 전투에서부터 아무리 어려운 길을 걸어가도 장군님 앞에서만은 꺾게 몸단장을 한 딸애를 뵈드리겠다고 배낭 깊

속이 간직해가지고 가는 어린 딸의 분홍명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장군님의 군복외투자락에 묻은 몇점의 흙탕물에서 그이의 말할수 없는 로고와 심려를 헤아리며 가슴아파하는데서도 그리고 혁명전위사이의 리별때에 몇마디 주고받는 말, 그이의 호위를 부탁하는 뜨거운 말속에도 비쳐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소설문학의 주인공들의 충성의 높이를 말해주는 동시에 그들의 정신세계야말로 인간이 지니고있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고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문학발전력사에서 볼 때 사람들에게 혁명적세계관을 세워주며 혁명적량식을 주는 작품들이 있었다는것을 알고있다.

지난시기의 로동계급의 문학은 많은 경우 인간의 존엄, 계급의 사명을 자각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의 길에 나서는 평범한 인간들의 혁명에 대한 각성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 아니면 공산주의자의 풍모를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주로 혁명적의지와 강의성 일면을 강조하는데 국한되어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지난시기의 그 어떤 작품들도 공산주의자들의 기본품성은 무엇이며 그들의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의는 무엇인가 하는것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의 혁명소설이 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인간들의 근본문제를 내세우고 그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줌으로써 참말로 귀중한 혁명의 량식을 주는 참다운 혁명의 교과서로 되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혁명소설의 특징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생활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제기하고있을뿐 아니라 또한 그것이 눈물 없이는 읽을수 없는 깊은 감동을 준다는데 있다.

우리 혁명소설들이 주는 깊은 감동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더없이 아름다운 정신세계에 대한 감동이며 그들의 불타는 신념과 인간의 량심, 의리에 대한 감동이며 총체적으로 작품에서 풍기는 사상에 대한 감동이다.

사회과학과 다른 문학예술의 고유한 특징의 하나는 생활의 진심을 생경한 론리로써가 아니라 정서를 통하여 감득시키는데 있다.

우리 혁명소설들이 눈물 없이는 읽을수 없는 깊은 감동을 주는것은 문학의 고유한 특징을 백방으로 살리면서 인간이 지닌 아름다운것 가운데서 극치를 이루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삶의 목적과 의의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형상하였기때문이다.

당중앙이 밝혀준 강령적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다음으로 문학작품의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 가치를 규정하는 철학적깊이가 있으며 특색이 있는 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된데서 뚜렷이 확

증되고 있다.

최근년간에 전례없이 많은 장중편소설들이 창작되었으며 또한 사상에술성이 현저히 높아졌다.

그가운데서도 우리 인민의 현대생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전변과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것과 같은 거대한 문제를 해명할것을 지향한 장편소설 《평양시간》, 《생명수》, 《새봄》과 같은 작품들은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 작품들은 문제제기의 대담성에서뿐만아니라 그것을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력사와 인민의 대표자인 주인공의 운명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그 비결이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위하시고 인민은 수령님만을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사랑과 충성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임을 밝히는데 성공하였다.

우리의 장중편소설들의 발전면모는 또한 심오한 문제성을 제기하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그린 작품들이 새롭게 나오고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에는 지난시기 흔히 소설이라던 사건으로 통용되던 낡은 개념이 극복되고 문학적인 이야기, 종자에 기초하여 재창조된 문학적인 세계가 자리잡고있으며 설화가 아니라 분석적인 묘사가 지배되고있다.

장편소설 《령마루》, 《축원》, 《로동가정》과 중편소설 《배고동소리》 등이 그 실례로 되는 작품들이다.

소설문학에서 심오한 문제성과 문학적인 이야기를 가진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는것은 그만큼 작가의 탐구의 몫이 많아지고 우리 소설문학의 형상수준이 높아졌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 다.

우리 소설문학의 주제분야도 넓어지고 다양해졌다. 그것은 특히 최근년간에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1, 2부)과 《평양성사람들》을 비롯한 력사소설들이 많이 창작되고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력사소설들은 오늘의 독자들에게 일찍부터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우리 인민의 슬기로운 력사를 알게 하며 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당중앙이 밝혀준 서정시의 고유한 특성은 풍부한 서정성에 있다는 가르침을 받들고 시문학분야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다.

우리 시문학의 혁신적성과는 무엇보다 당과 수령, 조국과 사회에 대한 우리 인민의 념원과 지향, 신념 등 주도적감정을 서정적바탕으로 하는 시문학으로 발전하고있는데 있다.

시대의 념원과 지향, 신념을 자기의 서정적바탕으로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시문학이 자기 시대의 기수로서의 사명을 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우리 시문학은 당과 수령, 조국과 사회에 대한 우리 인민의 념원과 지향, 신념 등 주도적감정을 노래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자주시대, 주체시대의 참다운 시문학으로 되었다.

이것은 최근년간 시문학에서 달성한 성과 가운데서 가장 큰 성과이다.

시문학에서의 성과는 또한 류사성과 모방, 도식주의 등 온갖 비문학적인 현상들이 많이 제거되고 철학적깊이가 있고 개성적인 시작품들이 적지 않게 창작되고있는데 있다.

서정시 《나의 조국》을 비롯하여 《어머니》, 《창밖에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등 많은 서정시들과 장시 《설레이라, 벼바다 강냉이 바다여!》 등이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러한 시작품들은 철학적깊이가 있는 종자의 선택, 높은 지성과 서정의 결합, 깊이있는 서정세계의 분석과 탄력있는 감정전개 등으로 다른 시작품들과 구별되며 또한 그것으로써 우리 시문학의 발전면모를 과시하고있다.

시문학의 혁신적인 성과는 특히 가사창작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었다.

명가사에서만 명곡이 나올수 있으며 가사는 시적이면서도 사상적내용이 풍부해야 한다는 당중앙의 방침을 받들고 가사창작에서는 실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최근시기처럼 명가사들이 많이 창작되고 가사창작에서 대성황을 이룬 시기는 일찌기 없었다.

또한 최근시기처럼 우리의 가사문학이 우리 시대의 철학과 밝은 서정, 주정과 생활이 그처럼 조화롭게 결합된적은 없었다.

가사 《동지애의 노래》, 《전사의 념원》,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장군님은 조선의 운명》 등의 기념비적작품들이 그러하다.

이 작품들은 비록 용량이 있어서는 가사라는 가장 짧은 형식의 작품이지만 그 사상적내용의 깊이와 크기에 있어서 그리고 예술적인 완벽성에 있어서 단연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의 철학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영원히 우러러 모시고 따르는것이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이며 또한 그 무엇보다도 비길수 없는 조선민족의 최대의 자랑이라는것을 힘있게 밝힌데 있으며 또한 그것을 서정적주인공-친위전사의 티없이 맑고 절절한 감정으로써 노래한데 있다.

우리의 가사문학은 또한 직접적인 해설을 극복하고 생활적으로 우리 시대의 진리를 깊이있게 노래한 가사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와 《내 삶이 꽃피난곳》과 같은 우수한 작품들도 내놓았다.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며 어떻게 교양하는가 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미래와 직접 관련되어있다고

한 당중앙의 가르침을 받들고 아동문학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오래동안 침체상태에 있던 동화, 우화 문학이 동화와 우화를 아이들의 기호와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의인화를 기본으로 하여 창작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확고한 발전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많은 경우 옛말이나 전설의 줄거리에 의거하던 동화문학의 무대를 대담하게 현실생활에 옮기는것과 같은 커다란 혁신을 일으켰다.

아이들의 밝은 동심을 노래한 좋은 동요들이 많이 창작되었고 아동소설창작에서도 전진이 있었다.

당중앙이 제시한 문예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우리 문학분야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다음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 작가부대가 튼튼히 꾸려진것이다.

그동안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기쁨을 드리는 작품들을 창작하는것을 최상의 영예로 여기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이 밝혀준 문예방침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는 혁명적인 작가들로 자라났다.

이는 전적으로 창작과정을 곧 혁명화과정으로 되게 하며 창작가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밝혀준 당의 방침이 정확하였기때문이며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와 다함없는 배려가 있었기때문이다.

당중앙의 방침을 관철하는 길에서 또한 우리 식의 창작체계와 창작지도체계가 확립되었다.

작품창작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문예방침을 창작의 기초로, 창작 전과정의 지침으로, 창작총화의 기준으로 하는 혁명적창작원칙이 확고히 섰으며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새로운 창작지도체계, 심의체계가 확립되었다.

이 모든것은 지난 10년동안에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루어진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에게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우리 인민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며 특히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전후시기에 그러하였던것처럼 다시한번 혁명적대고조에로 힘차게 불려일으킬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당중앙의 문예방침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특히는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강령적방침을 자로 하여 창작사업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작품들을 더 훌륭히 창작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치사상적준비와 예술적자질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

해방된 평양에서(3)

최봉무

은방울꽃다발

우리 수령님께서 높이 서계시는 만수대언덕!
사람들의 물결 그칠 새 없고 온갖 꽃 활짝 피
어나 꽃동산을 이루었구나.
우러르는 한마음 모이고모여 시각을 다투며 커
가는 꽃동산은 지구를 덮으려나 우주를 덮으려
나.
정성껏 가꾼 화분을 두손 받쳐들고 나도 어버
이수령님께 인사를 드린다.
내옆에는 예닐곱살 유치원코마들이 섰다. 멀리
서 온 모양인데 꽃리봉우에 나비들이 따라왔구나.
꽃나비들도 함께 인사를 올린다.
나의 눈길이 순간 그들이 안고온 꽃다발에 멎
었다. 내 미처 생각지 못한 꽃. 아, 은방울꽃다
발!
어린시절 아드님께서 아버지장군님께 드리셨던
그 은방울꽃다발. 애들아, 귀여운 꽃봉오리들아,
너희들은 그 꽃다발을 안고왔구나.
그날이 1949년 4월초였지.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장군님을 맞이
위해 비행장은 이른아침부터 들끓었다.
장군님께서 비행기에서 내리시자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이 울리고 예술인들이 꽃다발을
안고 달려나갔다.
그런데 제일 먼저 장군님 앞으로 달려가신분은
어리신 아드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아버님 앞
에 꽃다발을 들어올리시였다.
《이게 누구냐?!》
장군님께서는 대견하여 환히 웃으시며 꽃다발
을 받으시였다. 은방울꽃다발이었다.
눈속에서 꽃뿌리를 화분에 떠옮기시고 그것을
두달남짓한 기간에 해빛을 따라 이 방 저 방 옮
겨 가시며 피운 꽃이었다. 한송이 두송이 꽃망울
이 벌어질 때마다 아드님께서는 《어머니, 또 피
여났어요!》 하고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시였다.
그때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의 소행이
너무 대견하여 함께 기쁨을 금하지 못하시였다.
이 은방울꽃뿌리는 어느해 아버님과 함께 대성
산에 가셨던 아드님께서 《이 꽃은 아름다와서도
좋지만 향기가 그윽해서 더욱 좋다.》는 아버님의
말씀을 새겨들으시고 정히 떠다 정원에 심으신
것이였다.
군악이 울리고 장군님께서 위병대앞을 걸으시
였다.
사열이 끝나자 장군님께서는 폭풍같이 터져오
르는 군중의 환호에 해빛에 번쩍이는 은방울꽃다
발을 높이 흔드시며 답례하시였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감격에
못이겨 조용히 눈굽을 찍으시였다.
정녕 그 은방울꽃다발이구나.
어린시절의 아드님을 따라배우는 너희들이기에
저렇듯 훌륭한 꽃다발을 안고온것이 아니냐. 그
것이 좋아 꽃나비들도 백리길을 따라온것이란다.
은방울꽃다발!
황홀한 그 아름다움 만수대언덕에 빛난다. 그
윙한 그 향기 삼천리에 풍기리라.
어버이수령님의 억년장수를 바라는 인민의 마
음이 되여... 겨레의 소원이 되여...

잊지 못할 추억들...

저물녘, 나는 천리마동상앞을 내리며 모란봉을
바라본다.
모란봉!... 아, 모란봉에 노을이 불타누나.
저 노을속에 몸을 잠그고 깊이디깊은 명상에
잠기고싶어라. 유서깊은 곳곳을 걸으면서 내 하
지 못한 말 너무도 많아.
어서 오르자, 행복의 노을속에 한껏 물젖는 저
흐름을 이어. 어서 오르자, 락조 비긴 사랑의 포
석을 마음껏 밟으며...
하나 내 어이하여 모란봉, 네 가슴에 선뜻 발
걸음을 못떼느뇨.
이 길우에 무거운 자옥을 옮기자니 걸음걸음
잊지 못할 추억들이 눈앞에 삼삼히 살아오누나...

① 자전거경기

...어느 명절날 정원에서 아이들이 모여 자전거
경기를 하게 되였다. 여기에는 옆집어머니들과
주변 인민군전사들도 와있었다.
출발선에 나선 어린이들의 머리우에 호각소리가
울리자 한 인민군전사가 아드님의 등을 슬쩍
밀어 주었다.
얼마쯤 맨 앞서 달려나가기던 아드님께서는 갑
자기 자전거에서 뛰어내리시며 두손을 마구 흔드
시였다.
《다시! 다시!》
사람들은 모두 영문을 모르고 의아해서 아드님
을 바라보았다.
아드님께서는 자전거를 끌고 출발선에 되돌아
와서 등을 밀어준 전사에게 《그렇게 하면 되나
요?》 하고 들이 대시였다.
자기의 잘못을 느낀 전사는 어쩔바를 몰라했다
경기는 다시 시작되였다. 아드님께서는 여전히
단연 1등이시였다.
그 모습을 보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의

깨끗한 마음이 더없이 기쁘시여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었다...

② 친한 동무

...어느날 어리신 아드님께서는 동무를 올리신 일이 있었다.

이 사실을 아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드님께 왜서 동무를 사랑하지 않고 올렸는가고 엄하게 물으시었다. 아드님께서는 사연을 죄다 말씀드리시었다.

이날 이웃에 사는 어린이가 와서 놀다가 그만 세워놓은 문짝을 다쳐 넘어뜨리게 되었다.

그 순간 그 애는 자기 등으로 문짝을 받치여 다행히도 유리가 깨지지 않았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도저히 그 큰 문짝을 받치고 서있을수가 없었다. 애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선채 왕하고 울음을 터뜨리고말았다.

급히 달려오신 아드님께서는 서슴없이 문짝 밑에 자신의 어깨를 들이대시었다.

크고 무거운 문짝을 두 어린이의 힘으로도 세울수 없었다. 아드님께서는 빨리 가서 운전사아저씨들에게 알려라고 그를 보내시었다. 그 애는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꾸중을 들을가봐 겁이 나서 도중에 집으로 가고말았던 것이다.

아드님께서는 그런줄도 모르고 오래동안 땀을 흘리면서 문짝을 떠받들고계시었다. 힘이 부치여 더는 견디기가 어려웠다. 이때 지나가던 경위대 군인들이 달려와 문짝을 세워주었다.

생각할수록 동무의 행동이 못마땅하였다. 그래서 아드님께서는 그길로 동무를 찾아가시여 그의 잘못을 옳게 이야기해주시었다. 그러자 마음이 약한 그 애는 또 울음을 터뜨렸다.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님은 그런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아드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었다. 그러자 아드님께서는 어머님의 두손을 꼭 마주잡으시며 말씀하시었다.

《어머니, 나도 잘못했어요. 울지 않게 이야기해 줄수도 있었는데...》

③ 이란과 페르샤

어느 쉬는 날. 운전사들이 모여앉아 세계적인 원유생산국에 대한 논쟁을 하였다. 저마끔 원유가 많이 나는 나라들을 꼽던 그들은 두패로 갈라져서 이란과 페르샤를 세계적인 원유생산국으로 꼽을수 있는가 없는가 하고 다투게 되었다.

한패는 이란은 세계적인 원유생산국으로 들수 있으나 페르샤는 없다는것이고 한패는 페르샤도 꼽을수 있다는것이였다.

옆에서 그들의 논쟁을 듣고계시던 아드님께서는 병글병글 웃으시며 《두편이 다 맞았어요. 이란만 꼽아야 한다는 아저씨들도 맞고요, 페르샤도 꼽아야 한다는 아저씨들도 맞았어요. 이란과

페르샤는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나라예요.》 하고 말씀하시었다.

운전사들은 의아해서 쳐다보았다.

아드님께서는 좀 기다리라시더니 댁에 뛰어들어 가시여 지구의를 가지고 나오시었다. 그리고 이란을 가리키시며 이란을 이전에는 페르샤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란이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시었다...

④ 올밀대에서

...진달래, 살구꽃이 활짝 핀 어느 봄날.

친척분들과 항일혁명녀투사들은 아드님과 함께 모란봉에 오르시었다.

그때 올밀대에서 한 로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옛 이야기를 재미나게 해주고있었다. 임진조국전쟁때의 계월향과 김응서장군에 대한 이야기였다.

로인이 얼마나 실감있게 말하는지 이야기가 끝났는데도 사람들은 헤어질줄 몰랐다.

이때 누군가가 로인에게 물었다.

《그때 죽은 적피수의 이름이 뭔가요?》

로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도리머리를 흔들면서 나이를 먹어 그런지 금방 외우던 이름도 깜빡깜빡 잊어 진다고 개탄하였다.

이때 중절모를 쓴 신사가 그 피수놈이 바로 《풍신수길》이라고 아는채하였다.

그러자 로인은 모르면 가만있으라고 욕박지르고는 아무래도 적피수놈의 이름을 알아내야겠다고 하면서 눈을 조프리고 생각에 골똘하였다.

로인이 안타까와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 어린이가 그의 귀에 대고 《소서비, 소서비》라고 속삭이였다.

그러자 로인은 눈을 번쩍 뜨면서 《그렇지! 소서비, 그 피수놈이 소서비였지.》 하며 중절모를 쓴 그 신사에게 알아두라는듯 큰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자기를 귀뜸해준이가 누군가 하여 두리번거리였다. 아무리 살펴보아야 그럴만한 사람이 없었다.

《자, 이거 모를 일이다. 분명 누가 내 귀에 대고 소서비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는 어린이를 가리켰다. 로인은 눈이 둥그래서 예닐곱살밖에 안되어보이는 그 어린이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그이가 바로 항일의 녀성웅용 김정숙어머님의 품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계시는 아드님이시였다...

.....

이것은 모두 어머님생전에 기쁨드린 일이다. 어머님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누구든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였거니와, 모란봉 이 길우에서부터 그 기쁨, 그 행복을 마련해드리지 못하시는 아드님의 아픈 심정 내어찌 이 길을 밟는다고 하여 다 헤아릴수 있으랴.

모란봉의 노을

해방년의 그날부터 어머님 찾아 걸은 내 발길
이제는 더 갈곳이 없구나.

아, 노을을 이고 높이 솟은 모란봉아!

내 천년이끼 오른 옛 성벽을 손바닥이 닿도록
쓸어만지며 괴로움에 몸부림친다. 가슴속에 쏟아
지는 눈물이며, 이 마지막 기슭에서 내 그날을
더듬을뿐...

1949년 9월 22일.

평화적전설의 노래 가는곳마다 울려 퍼지고 있던
이날 눈보라만리 불길만리 고난의 길을 헤쳐오
시고 미래의 향도성을 받들어올리신 항일의 녀성
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너무나도 일찌기 우리의
걸을 떠나시었다.

항일혁명전쟁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태양의 해
발이 되시여 몸바쳐오시고 눈보라 울부짖는 백두
의 밀림속에서 아드님을 품에 고이 안으시고 정
다운 사랑의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어머
님!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다니... 해방된 조
국에서 장군님 모시고 보람있게 오래오래 살자시
던 그 언약은 어데다 두시고 우리의 걸을 떠나시
다니...

슬픔이면 이런 슬픔 어디 있고 불행이면 이런
불행 어디 있으랴.

그날엔 산천초목도 설움에 겨워 흐느끼고 맑은
하늘도 눈물에 젖어 묵놓았다.

하건대 어리신 아드님께서 어떻게 일신의 한가
슴으로 이 크나큰 고통을 받아안을수 있었던말인
가!

피로와... 이 마음 더는 달랠길 없어 나는 옛
성벽을 등지고 허둥지둥 걸음을 옮긴다.

나의 발걸음이 닿은곳은 어머님의 묘소가 안치
되었던 모란봉결의터!

이 기슭에 서니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날에 하신
말씀 가슴을 저미여라.

《김정숙동무는 나에 대한 충실성이 매우 지극
한 동무였습니다. ...

그가 한 모든 일은 동지를 위한것이였지 자기
를 위한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

나는 그가 단 하루라도 잘먹고 잘입고 편안하
게 살았다면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생동안 고생만 시키다가 먼저 보낸것이 제일
가슴아픕니다.》

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모란봉!... 모란봉아!...

서러운 가슴 달랠길 없어 몸부림치는 이 아들
을 너는 어이하여 따뜻이 품안아주지 못하느냐.

슬픔은 산악같고 눈물은 바다같다.

내 심장에 마쳐오는건 그저 어머님 바라시는데

로 당의 뜻 높이 받드는것뿐이구나.

어느덧 마음은 정화되고 추억만 끝이 없다.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신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였다.

유치원교양원은 그날도 꼭 어머님께서 아드님
의 손목을 잡으시고 유치원마당으로 들어서실것
만 같아 길가에 나와 기다리고있었다.

그러나 그 시각 유치원언덕길위에 아드님의 손
목을 잡으시고 어린 동생을 안으신채 걸어오시는
분은 존경하는 어머님이 아니라 친척분이시였
다.

어머님을 잃은 슬픔으로 하여 무겁게 걸음을
옮기시는 친척분. 아, 진정 매일과 같이 반가운
웃음을 웃으시며 마주오시던 어머님께서 이제는
영영 오시지 못한단말인가.

교양원은 너무도 설움이 북받치고 통분함을 금
할수 없어 돌아서 얼굴을 짜쥐고 울음을 터뜨리
였다.

그때 울고있는 교양원앞에 달려오신 아드님께
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선생님, 울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울면 내 동
생도 옵니다. 동생이 올라봐 나도 울지 않습니
다.》

그 말씀에 교양원은 더 흐느끼고 친척분도 끝
내 걱정을 참지 못하였다.

그후에 아드님께서서는 어머님을 대신하여 동생
을 더 각별히 돌보시며 자주 동생이 있는 방으로
찾아가시였다.

어느 하루 오침시간에 아드님께서서는 교양원에
게

《우리 동생이 밥을 잘 먹습니까? 놀기도 잘합
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밥을 내놓고 잠을
자면 배가 아프답니다. 우리 동생이 밥을 내놓고
자지 않는가 잘 돌봐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였
다.

교양원은 목이 메여 말을 못하고 이슬어린 눈
길로 아드님을 바라볼뿐이였다.

나의 추억은 계속된다.

그해 12월 어린 동생이 그만 몹시 앓기 시작하
였다.

아드님께서서는 동생의 머리맡에서 떠나지 않으
시고 밤새워 아픔을 덜어주려고 무진 애를 쓰시
였다.

하지만 동생은 자주 어머님을 부르며 울었다.

그러던 어느날 밤 아드님께서서는 복도의 창문턱
에 올라서시여 모란봉을 바라보시며 어머니가 빨
리 오셔서 동생을 안아달라고 애타게 웨치시였

다.

아드님의 목소리는 메아리로 울릴뿐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시였다.

아! 어머니, 어머니,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간절히 부르시는 아드님의 눈가에서는 맑은 이슬이 흘러내렸다.

근무를 서던 호위군관이 어찌된 일인가고 물으시자 아드님께서서는 동생이 자꾸만 어머니를 찾는데 어머니가 안아주면 인차 나올거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동생은 병이 나은 다음에도 오빠에게 이렇게 물었다.

《오빠야, 우리 엄마는 왜 아직 안오나. 우리 엄마는 모란봉에 산보갔다면서...》

그럴 때면 아드님께서서는 솟구치는 설음을 애써 참으시며

《너 또 그런 말 할랜... 그러면 오빠는 너하고 안놀래.》라고 동생의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시며 타이르시곤하시였다.

그후에도 아드님께서서는 모란봉결의터에 자주 오르시여 생전에 어머니께서 가르치신대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 굳은 맹세를 다지시곤하시였다.

그때마다 모란봉, 모란봉에는 아름다운 노을이 비끼였었다.

노을, 모란봉의 노을!-

어머님의 눈빛인가, 어머님의 마음인가.

설레이는 가슴 진정할길 없어 내 두팔을 높이 뻗쳐들고 우주를 향해 웨친다.

가사

어머님 그리시던 조국입니다

리광선

진달래 곱게 피는 푸르른 강산
봄종다리 우짖는 기름진 들관
아 아름다운 내 조국은
어머님이 그리시던 이 땅입니다

가없이 높이 들린 저기 저 하늘
이 땅 가득 내리는 눈부신 햇빛
아 장군님 품에 안겨
그처럼 기뻐보신 하늘입니다

아, 모란봉! 모란봉아!...

길이 전해다오, 어머니께서 념원하신대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받들어 아드님께서 일떠세우신 저 주체사상탑의 기상도 개선문의 위용도 인민대학습당의 웅자도...

길이 전해다오, 락원거리, 창광거리, 문수거리, 웅장화려한 평양의 새 전설을...

이 땅에 펼쳐진 하늘이여, 들이여, 숲이여, 어머니께 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함이 원통하구나. 어머니 다시 소생하시여 오늘의 행복 누릴수만 있다면 내 수천척 폭포속에 몸을 던져 하나의 물방울이 되어도 행복하리라!

그렇게 살 마음 번치 않으려니 그렇게 살 마음 영원히 당을 따라갈 조선의 마음인줄 알아다오....

×

노래소리 울린다.

저 하늘높이 붉은노을이 펼쳐지고 메아리는 끝없이 끝없이 흘러가누나.

.....

개선문에 자유종을 높이 올리고
삼천리에 붉은기를 펴낼 날릴제
수십년을 짓밟히던 삼천리강산
우리 조선 락원으로 어서 만들자

아, 존경하는 아드님께서 어머니를 대신하시여 사랑하는 동생과 함께 부르시던 그 노래소리 오늘도 평양의 하늘가에 울리는것인가.

온 세상이 바라보는 인민의 락원
은혜로운 사랑속에 행복한 우리
아 천만년 무궁토록
어머님을 모시고 살 조국입니다

아 주체의 내 조국은 어머니가 그려보신
세상에 부럼없는 조국입니다

첫 기쁨

김응호

1

설아는 깊은 생각에 잠겨 관리위원회로 가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을 되풀이해도 이해할수 없는 일이었다.

턱없이 랭대를 받은것 같기도 하고 현실을 똑똑히 보라고 경종을 울린것 같기도 하고...

잠전에 있는 일이다. 1작업반 3분조에 갔던 설아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어제부터 시작된 벼모씨뿌리기로 온 농장이 들끓고있는데 3분조 모판엔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다. 영문을 알수 없어 두리를 살피는데 부식퇴비를 가득 실은 달구지 한대가 삐걱거리며 굴러왔다.

덩에걸에 색깔은 허줄한 솜옷을 걸친 40대의 장년이 터벌터벌 따라왔다. 검실검실한 얼굴에 관공이 나온 배상만분조장이었다. 모임때면 한쪽 구석에 앉았다 가군하여 마주대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설아는 그의 앞으로 다가서며 나직이 물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예요, 분조장동무?》

달구지를 멈춘 배상만은 설아를 처음 보듯 유심히 굽어보는데 우뚝히 들어앉은 눈동자엔 이름할수 없는 표정이 얹혀돌았다. 이윽하여 아무말없이 허리를 굽힌 그는 관상의 흠을 뚫뚫 굽었다. 관상위에 굵은 손톱자리와 얼음버께가 하얗게 일어났다.

설아는 눈뿌리가 화끈했다. 하얀 얼음버께는 마치 《여기다 씨를 뿌리겠소?》하고 면박을 주는 것만 같았다.

손을 탁탁 털고 일어선 배상만은 소잔등우에 채찍을 후려쳤다. 달구지가 와당탕하며 사방으로 흩먼지를 뿌려던졌다. 엉겁결에 한발 물러선 설아는 눈을 감았다. 놀란 가슴이 후둑후둑했다.

이때였다. 《저...》 하고 줌절이는 너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설아는 눈을 떴다. 동실한 얼굴이며 서글서글한 눈매로 하여 무척 어지게 보이는 배상만의 안해 손금이가 앞에 서있었다. 머리에는 부식퇴비가마니가 이워져있었다.

《여보-》

저쪽에서 석싹한 목소리가 다급히 불렀다. 무슨 말인가 하듯 안타까이 쳐다보던 손금은 호-숨을 내쉬며 남편쪽으로 황망히 걸어갔다. 몇걸음 따라 가던 설아는 그만 서버렸다. 속이 알찌근한게 무엇인가 부끄러워 가슴속에 피어올랐던 것이다...

선뜩한 바람이 귀밑을 스친다. 생각에서 깨어

난 설아는 고개를 쳐들었다.

나폴대며 내려오던 개피는 한송이가 눈처럼 희고 보들보들한 얼굴에 주저하듯 사뿐히 내려앉는다. 눈송이들은 어깨며 맑은 눈을 덮은 속눈썹에도 연방 떨어졌다. 그러자 끝이 까부라진 긴 살눈썹이 자르르 젖어들며 진주색으로 반짝인다.

언제 시작됐는지 광막한 하늘은 재빛으로 변했고 눈발은 더욱 촘촘해진다.

(어쩌나!...)

소문봉쪽을 바라보던 설아는 우뚝 서버렸다. 소문봉중턱에 걸려있는 얼음기둥이 비취색을 띠기 시작했던것이다. 저런 색깔을 띠면 영낙없이 날씨가 사나와진다고들 한다.

수십길이 넘는 벼랑에서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그대로 얼어붙어 생긴 얼음기둥은 이고장의 명물이기도 했다.

여름에는 폭포수의 시원한 소리로, 겨울에는 백설기둥으로 그리고 봄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얼음 색깔로 날씨를 알려주는 얼음버덩이다. 사계절 그 변화가 하도 신기하여 소문이 파다했고 그래서 비둘기 벼랑산을 소문봉이라 이른다 한다.

눈보라는 점차 세차지며 설아의 온몸에 휘감겼다. 눈조차 뜰수 없어 발을 헛딛곤했다. 한발자국 내걸기가 힘들었다. 얼마후 그가 관리위원회 마당에 들어서는데 흰칠한 키에 몸집이며 얼굴이 부둥부둥하여 서근서근해보이는 차명학기사장이 성급히 마주 달려나왔다.

《날씨가 몹시 갈개지요.》

설아는 안면근육이 얼어들어 대답조차 할수 없었다.

그들은 기사장실로 들어갔다. 방안에는 긴통을 잘라만든 화독이 벌겋게 달아있었다. 화끈한 열기가 인 불을 콧코 찔렀다. 설아는 잠시 문턱에 그냥 서있었다. 배상만의 이름할수 없던 그 눈빛이며 손금의 어진 모습이 다시금 떠올랐던것이다.

《평양에선 진달래가 한창이겠는데 여긴 아직 이놈 신세를 단단히 보지요. 허허, 아니 왜 거기서 있습니까?》

화통뚜껑을 열어제끼고 참나무토막을 다져넣던 차명학이 의아한 눈길로 돌아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3분조에서 아직 벼락종을 시작하지 않았기에...》

설아는 화통앞으로 다가서며 변명하듯 말했다.

《그래요?!... 음.》

낮빛이 굳어졌던 차명학은 인차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다.

《원래 3분조가 좀 뜨겁니다. 소조원동무, 몸을 좀 녹이고 오늘은 그만 들어가 쉬십시오. 공부만 하던 몸이 어디 견뎌내겠소.》

차명학은 옷걸개에서 자기 손으로 가공하여 만들었다는 양털모자를 벗겨 머리에 썼다.

《기사장동지, 이런 추위에 락중한 벼가 얼지 않을가요?》

설아는 이끌려가듯 한발 따라서며 다급히 물었다.

《글쎄요...》

차명학은 눈을 찡프리며 밖을 내다봤다.

《모판에 발열재료는 충분히 넣었겠지요?》

발열재료란 모판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넣는 부식퇴비나 돼지두엄 같은것을 말한다.

《허허, 너무 걱정 마시오. 우리가 이런 추위를 한두해만 겪었다구요. 자, 그럼 난...》

차명학은 무엇에 튕기듯 성큼 밖으로 나갔다. 열려진 문으로 눈가루가 확 몰려들었다. 설아는 한동안 차명학이 사라진 문쪽만 바라보았다. 활기와 정력에 넘친 저 모습을 보니 울적했던 기분과 불안이 말끔히 가해지는것 같았다.

문득 언젠가 자기 동창생들에게 보냈다는 차명학의 편지 한토막이 떠올랐다.

《...내가 10년이 넘도록 론문 하나 발표 못한다고 흠속에 묻힌줄 아는데 친구들, 난 오히려 자네들이 걱정이야. 감자밖에 없던 이 산골에 강냉이가 설레고 벼농사까지 하게 됐다는 현실을 모르니 말이야. 자네들은 시약방울을 떨구며 론문을 쓰지만 나는 땀방울로 론문을 쓰고있어...》

차명학이 큰소리칠만도 했다. 이고장에 충충 다락밭이 생기고 뽕기밭이 논으로 변한데는 그의 공로가 컸다.

항간엔 이런 말이 돌았다. 그전날 이고장은 소문봉의 얼음기둥으로 이름났는데 근래엔 차명학 기사장이 있어서 뜨르르하다고...

이런 차명학이가 못내 부러웠다. 한생을 농산 기사로 살고싶은 설아에게 그는 정녕 사회생활의 첫 안내자처럼 생각되었다. 《딱-》 하는 소리가 났다. 설아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장작 튀는 소리였다. 화통은 욱 욱 소리를 냈다. 금시 녹아내릴 듯 빨갛게 달아오른 화통은 그 무엇을 열정적으로 호소하는것만 같아 편안히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설아는 밖으로 나왔다. 맵짠 추위가 옷섶에 매달렸다.

저 멀리 소문봉아래 모판자리들에서 재빛 연기가 타래쳐오르고 분주히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어렴풋하다. 추위를 막아보려고 불무지를 만드는데 같았다. 양털모자를 쓰고 부지런히 나서던 차명학의 모습이 보이는듯했다. 설아는 그쪽으로 걸

음을 다그쳤다. 미처 저런 생각을 못한 자신이 민망했다.

얼마후 1작업반 마을어귀에 들어섰을 때다. 어데선가 심상치 않은 말소리가 울려왔다.

《...체면보구 살겠소. 이 추운 때 밖에 나가 덜덜 떨어야 당신 속이 좋겠구만.》

석십한 목소리는 분명 배상만의것이였다. 설아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난 길역 문화주택앞으로 조춤조춤 다가갔다. 창가에 두 그림자가 비껴있었다. 그는 남의 가사일을 엿듣는것 같아 그만 돌아 섰다. 그러나 몇걸음 못가서 다시 서버렸다.

《난 정말 부끄러워 다닐수 없어요. 모판에선 기사장이랑 온 마을이 불무지를 피우며 뛰고있는데... 5년전 일을 잊었어요. 그때두 기사장의 말을 들었더라면...》

《뭐요?... 이제 당신까지 그렇게 생각하는가?》

《글쎄... 이제 분조원들도 당신 분조엔 있기 꺼려해요.》

《음... 그럼 내가 분조장을 그만두면 되지.》

《당신은 정말...》

영문은 알수 없으나 가느다란 흐느낌소리가 내장까지 찌르르 흘러든다.

문이 벌럭 열리었다. 설아는 미처 피할 사이도 없어 그대로 서있었다. 문밖에 나선 배상만은 고개를 수गत한채 설아의 앞을 지나갔다. 설아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웅송그렸다. 남편의 솜동복을 들고 뒤쫓아나오던 순금이가 설아앞에서 굳어졌다. 솜동복을 뒤로 감추며 어쩔줄 몰라하던 그는 얼른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오목한 입술이 가늘게 떨린다. 더는 주체할길 없는지 황황히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입술을 꼭 깨물었다.

《소조원동무-》

갑자르는데한 떨린 목소리와 함께 솜동복이 땅에 떨어졌다. 순금이가 설아의 두손을 덥석 부둥켜잡았던것이다.

《우리 집 주인을... 좀 도와주세요.》

울먹이는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설아는 흠칫 한걸음 물러섰다. 얼마나 절박하면 이러랴 하는 같은 녀성으로서의 동정심이 북받쳤다. 설아의 손은 어느새 땅에 떨어진 솜동복을 집어들었다. 순금이 두손으로 솜동복을 그러안았다.

《고마와요. 꼭 이럴줄 알았어요.》

《?!...》

설아는 눈앞이 확 흐려지며 가슴이 쩡했다. 그는 눈물에 젖은 순금의 손등을 조심스레 쓸어만졌다.

(내가 참말 3대혁명소조원이었지!...)

2

설아는 그날밤 잠들수 없었다. 울먹이며 피염 피염 말하던 순금의 목소리가 귀전에 그냥 살아

올랐다.

생기 없는 얼굴, 웃음 없는 집이었다. 그 시발점이 기사장과 얹힌 감정의 곡절이라고 할 때 더욱 놀라왔다.

열정이 높고 그 생김새처럼 서근서근하던 차명학이 아니던가. 내심 존경하던 사람한테 결점을 본다는건 피로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에게 꼬물만한 티도 허물도 없기를 바랐다. 생활에는 과오 아닌 착오나 실수가 있지 않는가. 그러나 마디마디에 진정이 느껴지던 순금의 하소와 평시에 침울하던 배상만의 모습을 그려볼 때 차명학을 좋게만 생각할수 없었다.

이런 고폐치는 생각들로 밤을 새웠고 날이 밝아 기사장실로 달려온 설아였다.

기사장실은 썰렁했다. 열기를 내뿜던 화통은 불이 꺼져 써늘했고 창문유리엔 백설무늬가 그려져있었다. 여기서 쪽잠을 잔듯 차명학의 얼굴이 부석부석했다.

벌써 어디 나가려고 작업복상의를 꺼입던 그는 설아를 반겨맞았다.

《아니 벌써 어디 나가시렵니까?》

《작업반들에... 아무래두 어제밤 추위에 좀...》

차명학은 잘 들어가지 않는 팔소매를 겨우 들어 밀고 육중한 몸을 의자에 실었다.

《자, 좀 앉읍시다. 무슨 일로?...》

몸을 비스듬히 눕힌 그는 두다리를 쭉 편다. 피발이 선 눈동자며 꺼칠한 턱수염이 몹시 지친 모습이다.

《한가지 물어보려구... 방조를 좀 주세요.》

설아가 의자에 마주앉으며 나직이 말했다. 스스로 두눈을 감고있던 차명학이 빙긋 웃어보이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저... 5년전에 배상만분조장이 모관발열체를 연구도입한 일이 있습니까?》

《모관발열체라니요?...》

흠칫 놀라듯 차명학의 몸이 쏙쏙해진다. 그바람에 의자가 찌그러져나갈듯 뻗어덕거렸다.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릴 합디까? 그 동무가 말합디까?》

다급히 말하는 차명학의 유들유들한 턱밑이 가늘게 떨렸다.

설아는 그만 병병해지고말았다. 어제밤 순금의 말속에 발열체란 말이 약간 비쳐나왔다. 그 말은 설아의 귀에 쑥 들어왔다. 이미 발열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있던 설아다. 그래서 꼬치꼬치 묻자 순금은 더는 아무 말도 안했다. 겁먹은듯 커다란 눈을 내려잔채...

《안됐습니다. 너무 오래 된 일을 갑자기 묻기에... 허허.》

차명학이 미안한듯 허겁스레 웃었다.

《그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발열체라니요? 하긴 그렇게 말해봅시다. 그 동무가 자칭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때 그것때문에 눈앞이 캄캄했던 일을 생각하면... 하긴 미리 막지 못한 내 잘못이 컸지요.》

설아는 점차 긴장해졌다. 차명학의 미간에 두줄기 주름살이 패워졌다.

《다 듣고온것 같은데... 우리 걸으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밖으로 나왔다. 마을은 고즈적한 새날을 맞고있었다. 밭짓는 파란 연기가 골목골목에 휘감기고 방금 화에서 내린 수탉이 잔뜩 깃을 돋군채 서너마리의 암탉을 몰아가고있었다.

차명학은 소문봉에 눈길을 준채 척척 걷기만 했다. 뒤에서 걸던 설아는 두눈이 둥그래졌다. 애용품이라고 늘 아끼던 양털모자가 새노랑게 그슬렸던것이다. 불무지를 피우며 온 밤 뛰어다니더니 그때 받은 피해갈았다.

《모자가... 못쓰게 됐군요.》

차명학이 허구쁜 미소를 그렸다.

《정말 여기 벼농사가 힘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배상만동무도 발열체를 만들어보겠다고 맘먹었겠지요. 원래 그 동문 책임성이 높은 좋은 동무였지요. 나는 그를 작업반장감으로 지목하고있었습니다. 때문에 나는 첨엔 그를 적극 도왔습니다. 그러나 차츰 발열체가 불가능하다는걸 확신하게 됐지요. 나는 부디 말렸지요. 두해가 지난 어느 봄날 이였습니다. 3분조모관이 절반이나 열지 않았겠습니까. 난 영문을 알수 없어 모관을 분석해보았지요. 그런데 글썄... 그 <발열체>를 넣고 락종을 했더군요 참... 그래 솟이 발열체의 원료로 되겠습니까?》

《솟말입니까?》

《네, 열었던 모관에 온통 솟덩이뿐이더군요.》

순간 설아의 머리속에 섬광처럼 번쩍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 불꽃은 비상한 속도로련쇄반응을 일으키며 환희의 전율을 일으켰다. 사실 설아가 북변산간마을을 택한데는 누구도 모르는 속심이 있었다. 그것은 대학 2학년때부터 연구해오던 모관 발열체료를 현실에 나가 완성하는것이였다. 해마다 한랭전선이 번덕을 부리고 더욱 극심해지는 조건에서 북부고산지대벼농사를 안전하게 하자면 혁신적대책이 필요했다. 설아는 이 대책을 모관안에 특수한 발열체료를 넣어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다. 그 특수한 발열체료의 기초원료를 안타까이 찾고있던 설아에게 배상만의 착상이 한점의 불꽃으로 됐던것이다.

《기사장동지, 정말 솟을 가지고 발열체료를 만들수 없을까요?》

설아는 흥분되어 물었다.

《허허, 무슨 그런 룡담을 합니까?》

《네?!...》

《물론 그런 연구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여기 북방농사에서 중요한건 조직적수완이라고 생각

합니다. 저기 소문봉얼음기둥을 보시오. 아직 덩 덩 합니다.》

손세를 써가며 열변을 토하는 차명학의 얼굴은 빨개졌다.

설아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저 열성높은 자부심을 어찌만 들었다해도 존경했을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야박할만큼 팽담해보였다.

어제밤부터 피어오르던 그에 대한 불만이 급기야 자기 형체를 나타내는것 같았다. 그날 설아는 리당위원회와 토의하고 1작업반을 고정담당했다.

거처도 아예 3분조모판가설막에 옮기고 밤에는 전적으로 발열체의 연구에 달라붙었다. 일단 결심하면 끝장을 보는 강직한 성미의 설아는 이틀간을 초진장속에서 보냈다. 배상만을 만나 5년전에 만들었다는 발열체의 구성성분을 알아보려 했으나 한숨만 실뿐 대답이 없었다.

차명학은 애초부터 달가와하지 않았다.

《소조원동무, 한지나 다름없는 이런 가설막에서 발열체가 뭘니까?》

차명학의 이러한 간곡한 권고에 설아는 상그시 미소를 그리었다.

《언젠가 기사장동진 시약방울이 아니라 땀방울로 논문을 쓴다고 했지요? 전 논문까지는 모르겠으나 배상만분조장의 착상을 완성시키고싶어요.》

《아, 심사숙고하십시오. 너무나 황단해서 그러오. 더구나 솟이 탈 때 나오는 가스가 어린 모의 생장에 지장을 준다고. 배상만 그 사람이 뭘 안다고 호기심을 가지는지...》

차명학은 그만 말끝을 삼키고말았다. 그윽한 미소가 떠돌던 설아의 눈동자에 반짝 불꽃이 피었던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후 차명학은 3분조모판에 열심 안했다. 그는 배상만을 은근히 추궁했다. 왜 그때의 교훈을 잊고 또 말썽을 일으키는가고...

배상만은 더욱 울적해졌다. 소조원을 일부터 피하군했다. 그러나 그런것만은 아니었다. 남 안보는 깊은 밤이나 이른새벽마다 가설막둘레를 조심스레 에돌며 소조원의 일거일동을 유심히 살피군했다.

3

며칠이 지난 어느날 저녁이다. 작업반에 나갔다가 돌아와보니 가설막이 없어지고 그자리에 너댓명 들어앉을 아담한 풍막이 생겨났다. 풍막안에는 불화로까지 놓아 후끈했다. 다심한 손길이 느껴지는 막안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점심때의 일이 되살아났다. 점심때 막안에서 발열재료의 성분표를 만들고있는데 배상만이 찾아왔었다. 이곳에 거처를 옮긴후 직접 찾아오기는 처음이다.

《기사장이... 2계단 벼락종을 당장 하라고 하우다. 더는 기다릴수 없다구...》

배상만은 송구한듯 말끝을 흐렸다. 설아는 대답을 못했다. 좀처럼 나타나지 않던 그가 힘들게

찾아와서 궁색한 말을 하자니 심적고충인들 오죽 컸겠는가. 지금 농장에선 벼락종을 마지막 단계에서 다그치고있었다. 배상만분조만이 발열체를 넣고 해보자는 설아의 권고로 벼락종을 못하고있었다.

심중한 문제였다. 때도 때이거니와 기사장한테 독촉을 받고있는 배상만의 피로운 마음을 더 지속시킬수 없었다.

《하루만 참아주세요. 오늘밤엔 결말을 보겠어요.》

설아는 이렇게 대답했었다....

그러니 막을 고쳐세우고 화로를 가져다놓은것은 배상만이 분명했다. 말없이 도와나선 그의 소행이 고마왔다. 설아가 실험준비에 서두르고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조심스레 저거드는 발걸음은 무척 귀에 익었다. 며칠전부터 깊은 밤 이른새벽마다 막둘레를 천천히 에돌군하던 그 발자국소리였다. 설아의 짐작은 옳았다. 벼짚단을 한짐 지고 온 배상만이 그것을 막둘레에 조심조심 치고있었다.

《고마와요, 분조장동무.》

가슴이 후터워진 설아는 곧 발열체의 실험에 착수했다. 막안에 있던 화로를 밖에 내놓고 더운 공기를 뽑았다. 그리고 다섯곳에 갈라놓은 발열체덩이에 흙을 덮고 불을 지켰다. 이 발열체가 연기도 없이 여러 시간 타면서 막안의 온도를 2도이상 높여야 성공하는것으로 된다.

가만히 앉아 온도계의 눈금을 바라보느라니 피곤이 확 실리어 온몸이 땅속에 잦아드는것 같았다. 손바닥이 쿡쿡 쑤신다. 이번이 몇번째던가?...

일곱번 아니 아홉번째 실험이다. 그동안 기초원료며 솟덩이를 쇠절구에 넣고 불은것만 해도 한 자동차는 넘을것이다. 한자동차가 아니라 그 몇급절을 불더라도 발열체는 꼭 성공시켜야 한다.

이는 모판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단순한 물리적 재료만이 아닌것이다. 묻혀버린 한 농장원의 지향을 소생시키는 그런 보람찬 일인것이다. 설아는 눈을 스르시 감았다. 그러자 허술한 솜옷이며 토색으로 변해버린 검실검실한 배상만의 모습이

진하게 새겨졌다. 말보다 행동을 귀히 여기며 변심없이 자기의 소망을 실현코져 번민하는 그, 남 다 자는 깊은 밤 이른새벽 모판이며 풍막둘레를 돌고도는 그 마음속에 과연 무슨 티가 있을텐가. 땅처럼 성실하고 순박한 이런 농민을 내 왜 진작 가려보지 못했던가. 당초에 나는 외적표현인 언행이나 현상만을 봤었다. 내가 눈이 그렇게 어둡다니...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며 온몸의 피가 마디마디에서 뛰놀았다. 그 어디 비길데 없는 사랑의 해발이 먼 북방의 여기 풍막안에 줄줄이 쏟아져내리는것 같았다. 한갓 철부지였던 자기를 대학에서 공부시켜주시고 오늘은 또 손색없는 나라의

초석이 되라고 이런 농장원들속에 파견해주신 아버지수령님의 그 한없이 숭고한 뜻이 가슴가득 안겨왔다. 내 어찌하여 그 높으신 뜻과 뜨거운 은정을 이제야 절감하게 되는지... 생각이 깊어질수록 자책의 아픔이 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속이 메슥메슥하고 팔이 뻣했다. 손목시계를 보았다. 세시간 반이 흘렀다. 온도계는 겨우 1도를 가리켰다. 팔이 지끈 지끈했다. (왜 이럴까? 참자. 참아야 한다.)

입술을 꼭 깨물었다. 초들초들 마른 입술사이로 빨간것이 새어나왔다. 느닷없이 맥박이 빨라지며 숨이 가빴다.

아, 그날의 감격 그날의 행복... 순간도 잊을수 없는 영광의 그날이 가슴 뼈근히 되살아난다. 폭풍같은 만세, 환호성, 환호성... 바다처럼 설레던 만수대의사당, 감격과 행복에 목메여 근위대 결사대의 구호를 부르던 그날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내 그날 만수대언덕우에 높이 모신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을 우리러 총계총계 디딤돌을 오르면서 무엇을 생각했던가. 천만년 변함없을 그 화강암총계처럼 3대혁명의 전위로 충성의 고임돌이 되리라 속다짐하지 않았던가. 그날이 바로 한달 전이다. 것처럼 귀중한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하루하루를...

깊은 밤 구운 감자와 더운물을 들고나왔던 배상만은 쓰러져있는 소조원을 보자 억이 막혀 어쩔줄 몰라했다...

설아는 새벽녘에야 깨어났다. 처음엔 몽롱한 꿈 세계에 잠긴것 같기도 하고 구름우에 동실 실린것 같기도 했다. 어디선가 나직한 말소리가 들려온다.

《이제야 정신이 드는것 같아요.》

설아는 힘들게 눈을 떴다. 뿌연 망막속에 침을 하게 앉아있는 배상만과 순금이의 눈물이 그러한 얼굴이 안겨왔다. 그때야 어제밤의 일이 피땀 살아나며 사위를 둘러보았다. 언젠가 순금이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던 배상만내 아래방이었다. 설아는 얼굴을 찌프렸다. 의식이 들자 팔이 쭈서왔던것이다.

《이걸 좀... 숯내를 마셨을 땐 이게 제일이우다.》

배상만이 사발을 권했다.

《어서 마시세요.》

순금이 김치국사발을 받아 설아의 입에 가져다대며 점찍해한다. 흰거품이 몇첩 떠도는 김치국을 이윽도록 내려다보는 설아의 가뭇한 눈귀에 맑은것이 피었다. 육친같은 정이 꼭 메여왔던것이다. 설아는 김치국을 조금씩 마셨다. 혀끝이 짜릿하고 내장이 당장 뒤집힐듯 시원했다. 좀 있으니 까실까실하던 입술에 발깃한 홍조가 살아났다.

컴컴하던 배상만의 낮에도 맑은 빛이 어린다. 그러던 그의 눈길이 무릎우에 놓여있는 설아의

손에 닿는 순간 흠칫했다. 보기 끔찍할 정도로 손바닥은 온통 물집터진 자리였고 손끝들은 금시 피가 나올듯 말갭게 닳아졌던것이다. 배상만의 아래턱이 부르르 떨렸다. 그때야 설아의 손바닥을 띄여본 순금이가 입을 딱 벌렸다.

《날 실컷 욕해줘요. 제가 실없는 소릴 해와서...》

순금은 목이 메여 설아의 손바닥을 자꾸 어루쓸었다. 설아가 그의 손을 꼭 잡아쥐었다.

《아주머닌 저를 제때에 깨우쳐주었어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분조장동지를 오해하고있었답니다. 용서를 빌 사람은 저예요.》

배상만이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두릿두릿한 눈동자에 물기가 번뜩였고 숫구치는 걱정을 누르듯 울대뼈가 세차게 오르내렸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못된놈은 나요. 소조원동무가 이렇게 된것도 결국은 나때문이요. 내가 제때에...》

(아니예요. 발열체에서 아직 가스가 나오는걸 미처...)

《글쎄 그게 바로 생숨을 써서 그렇다니까...》

《?!...》

《익은 숯을 쓰면 인체엔 아무런 피해도 없수다.》

배상만은 속주머니에서 손바닥만한 수첩을 꺼내들며 흥분하여 말했다. 그러자 순금이가 펄쩍 놀라며

《아니 당신은 정말... 자, 이제 좀 누우세요. 안정해야 해요.》 하고 남편을 흘겨봤다.

배상만은 주춤거리며 안해와 설아를 번갈아 본다.

《괜찮아요. 분조장동지의 말을 들으니 신심이 생기구 정말 기뻐요.》

설아가 웃음어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여보이자 배상만이 제법 큰소리를 쳤다.

《여보, 내 말을 막지 마오. 발열체가 다시 시작됐는데 어디 가만 있을수 있소. 당신은 어서 산꼴이나 한사발 타오라구.》

순금은 더 어찌지 못하고 웃고름만 만지작거리다가 설아에게 상긋한 미소를 지어보이며 밖으로 나갔다. 안해의 뒤모습을 멍히 바라보던 배상만이 고개를 푹 숙이며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만다.

얼굴빛이 다시금 컴컴해졌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수다. 제발 이제 발열체를 그만두오. 실패로 끝나면... 그것만은 안되우다. 그럴수 없수다.》

《아니 왜들 그러세요? 네?》

설아는 배상만의 손을 잡고 안타까이 흔들었다.

《다 말씀드리지요. 이제 뭘 숨기겠소.》 후- 하고 숨을 내쉬 배상만이 떠듬떠듬 입을 열었다.

...5년전. 40고개에 들어선 그가 고등농업학교

통신졸업증을 받았을 때 누구보다 기뻐한것은 차명학이었다.

《자네 성미도 웬간하군. 허허.》

배상만은 이 기회에 발열체문제를 다시금 화제에 올렸다.

《또 그 소리요. 이젠 신물이 나오. 기수자격증을 받더니 론문생각이 나는가. 허허.》

배상만은 낮이 뜨거웠다. 그러나 결심을 굽히고 싶진 않았다. 그해봄 배상만은 누구도 모르게 발열체를 넣고 제일 선참 벼락종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것처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줄이야... 모판이 팽해를 받았던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차명학이 천방지축 달려왔다.

《내 그만كم 말했는데 이게 무슨짓이요. 이런 산골에서 흰쌀밥이 공짜로 생기는가. 그렇게 뽀시를 아꼈다가 뽀하자구. 이 모가 어떤 모요. 어떤 모, 영?...》

차명학은 얼음버께가 깔린 모판을 쿵쿵 내려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때 내 가슴엔 피멍이 졌수다. 참말 씻을수 없는 죄악이었지. 하지만 한두해가 지나자 또 그 발열체생각으로 잠이 안옵디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사를 헐하게 해야 그것을 먹는 사람들의 마음도 좋다고 심려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사장이 어디 틈을 주어야지요. 나는 너무 속이 타서 도나 군에서 내려오는 지도원들에게 내 심정을 토설해봤수다. 그때마다 그들은 <참 좋은 생각이요. 어디 해봅시다.> 하고 귀맛을 돋구지요. 웬걸 영농지도기간만 지나면 말 한마디 없이 올라가버리지요. 계절조와 같다고 할가... 후에 알아보니 기사장이 그들을 막아나섰다질 않소. 가슴이 아롭디다. 그런들 어찌겠수. 죄진 몸엔... 소조원동무가 우리 분조에 왔을 때도 그런 계절조와 같은 《손님》으로 치부했수다. 더구나 발열체를 함께 하자고 했을 땐 책상물림의 저 대학생처녀가 어찌자고 그럴가 하고 근심이 생깁디다. 진짜 나는 실농군을 몰라봤지요. 그렇지만 발열체는 그만두슈. 흑시...》

말끝을 맺지 못한 배상만은 꺼지듯 한숨을 내그었다. 짝 틀어진 손등에 바줄같은 피줄이 타래쳐 올라왔다. 설아는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올랐다. 심장이 후둑후둑 드놀며 금시 튀어나올듯 세찬 박동을 일으켰다. 그 소중한 꿈과 념원을 실현할 길 없어 가슴속에 묻고 살자니 오죽 괴로왔겠는가. 우리 일꾼들이 이처럼 농민들의 꿈도 념원도 모르고 귀중한 기술적발견을 무시해버린다면 3대혁명의 과업을 어떻게 실현하며 나라의 전망은 어떻게 되겠는가. 의분이 북받쳐 도저히 가만있을수 없었다. 설아는 높아지는 숨결을 누르며 나직이 말했다.

《분조장동진 난관앞에 주저했어요. 모판 발열체만 생각했지 왜 자신의 심장엔 불을 지피지 못

했어요.》

배상만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는 설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설아는 성큼 일어섰다. 순간 상반신을 비출하며 문설주에 간신히 지탱했다. 눈앞에 무수한 동그라미가 떠돌았다. 그는 자신이 빈사상태에 있었다는것을 모르고있었다. 잠시후 정신을 가다듬은 설아는 다리에 힘을 주었다. 배상만과 부엌에서 뛰쳐나온 순금이가 숙연한 눈길로 설아의 뒤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동녘하늘을 물들이던 노을이 점차 주홍빛으로 변했다. 노을은 배상만부부의 얼굴에도 붉게 타고있었다.

4

그날 배상만은 달구지를 끌고 소문봉 다람쥐굴로 올라갔다. 다람쥐굴에는 그의 아버지가 반생을나마 보낸 솿구이터가 있었다. 솿을 가져다가 발열체실험을 완성하고싶었던것이다. 그런데 솿구이터가 있던 자리에는 잡판목이 우거져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수 없었다. 삭풍에 흔들거리는 목은 잡초만이 그의 발목에 휘감겼다. 배상만은 한참 신고를 해서야 옛 솿터를 찾을수 있었다. 솿터에 곡괭이를 들이박으니 속이 찌르르하며 저절로 눈물이 나왔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아버지생각이 났던것이다. 자신이 기수자격증을 받았을 때 이제는 버모를 헐하게 기를수 있게 되었다고 것처럼 대견해하던 아버지였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여기로 올라와 솿을 구우면서 아들을 도왔지만 종시 성공을 보지 못한채 떠나고말았지...

(아버지, 이젠 그 소원이 풀리게 됐어요.)

배상만은 팽이를 높이 들었다가 힘껏 내려쳤다. 끝에 콧- 하는 감촉이 왔다. 5년세월이 흘렀지만 잘 익었던 참솿은 대글대글한 소리를 냈다. 배상만은 무릎을 꿇으며 솿을 한응큼 그러안았다. 이 솿때문에 기사장한테 따돌림을 받고 담고생하던 나날들이 어지러이 안겨든다.

배상만은 소문봉을 쏘아봤다. 수십길이 넘는 얼음기둥은 여전히 청회색으로 번들거리며 팽기를 뿜고있었다.

그가 달구지를 끌고 분조모판에 닿은것은 중년이 지나서였다. 기다리고있었던듯 차명학이 급히 다가왔다.

《달구지에 뭘 싣고오우?》

《.....》

《하라는 벼락종은 하지 않고 어딜 다니는가말이요. 그래 뭘 싣고왔소?》

《솿을 가져왔수다.》

《사실이였군. 정신있소, 동무.》

두눈을 홑뜬 차명학은 성큼 달구지우에 뛰어올라가 가마니를 헤쳤다. 순간 그의 유들유들한 볼편이 고추빛이 되며 부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차명학이 이처럼 노여워할만도 했다. 아침에 소조원이 잘못될번했다는 소리를 들은 그는 자신

을 몹시 질책했었다. 흔히 현실을 잘 모르는 대학생들이 호기심과 동정에 끌려 실수를 하곤하는 그런 결함을 끝까지 타일러주지 못했다는 후회였다. 때 늦은 후퇴는 단호한 결심을 내리게 했다. 그는 《리발열체의 불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상급에 제기하는 한편 여기 풍막에 있던 실험기구와 원료들을 창고에 실어갔던 것이다.

차명학은 달구지에서 훌쩍 뛰어내려 배상만의 앞으로 바짝 다가섰다.

《소조원을 그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아직… 이번엔 누구를 잡자고 그러오. 응? 솔직히 동무가 이런 일에 빠질 자격이나 있소. 한심하오.》

순간 배상만의 머리가 폭 숙어지며 두주먹이 짹 쥐여진다. 두툼한 입술이 푸들푸들 떨었다. 차명학은 너무 모진 말을 한것 같아 얼른 누긋이 타일렀다.

《자신이 자기를 알아야지. 동무야 시키는 일이나 하면 되지 않소. 두말 말고 당장 벼락종을 하오.》

차명학은 몸을 돌려 모관쪽으로 향했다.

굳어진듯 잠시 서있던 배상만이 와들 놀라며 달려가 차명학의 앞을 막았다. 앞가슴이 폭풍을 만난 파도처럼 세차게 오르내렸다.

《2계단모관엔 발열체를 넣어야 합니다.》

좁 갈린듯한 목소리엔 움직일수 없는 결심이 어려있었다. 순간 두눈길이 부딪치며 불꽃을 일으켰다. 튕기면 터질듯 숨소리만 높았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분조원들이 하나 둘 다가왔다. 차명학은 너무도 급변한 배상만의 행동에 억이 막혀 어리둥절했다. 이때 누군가 《소조원동무가 와요-》 하고 반겨 소리쳤다. 두리에 모여들었던 분조원들이 술렁대기 시작했다. 차명학은 바위처럼 딱 막아선 배상만의 어깨너머로 달구지를 몰아오는 리당비서 허석준의 험결찬 웃음소리에 수집은 미소를 띠운채 따라오는 설아의 모습을 보았다.

《저리 비키오. 동무하군 마주서기도 싫소.》

차명학은 씹어뱉듯 중얼거리며 그들한테로 마주 걸어갔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오는 달구지우에는 농장창고로 가져갔던 실험기구며 원료가마니들이 실려있지 않는가. 묻지 않아도 리당비서의 의도가 명백했다. (그럼 리당비서까지?…)

달구지는 차명학의 앞에서 멎었다. 리당비서 허석준은 차명학의 뒤로 술레술레 따라오는 분조원들의 표정을 살피다가 《수고들합니다. 기사장동무, 그럼 난 9작업반엔 또 가보겠소.》 하고 쾌활하게 말한후 오던길로 되돌아섰다.

리당비서의 모습이 저쪽으로 사라졌을 때 《짜-》 하고 달구지에 채찍을 안기는 소리가 났다. 배상만이였다. 그러자 여직껏 마음조이며 서있던 분조원들이 수군수군 활기를 띠며 달구지를 따라갔다. 설아와 차명학은 서로 눈길을 피하고

있었다.

얼마후 낮으나 절절한 설아의 목소리가 울렸다.

《저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열성이 높은 기사장동지를 존경했어요. 그런데… 발열체를 왜 그렇게 반대합니까. 전 그것이 안타깝고 이해할수 없습니다.》

차명학은 당황해진 눈길을 얼른 땅에 떨구었다.

《허물없이 대해주니 고맙소. 내 거듭 말하지만 술한 사람들이 발열체를 가지고 애쓰나 아직 해결 못하고있지 않소. 때문에 소조원동무도 이 문제만은 심중해야 합니다. 그 어떤 호기심이나 인정에 못이겨 벼락종을 할수야 없지 않소. 힘이 들더라도 안전하게 합시다.》

설아는 가슴이 선했다. 내심 우려하던 말이 스스로 흘러나왔던 것이다.

《물론 발열체는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꼭 만 들어야 해요. 여기엔 한 농장원의 소중한 꿈이 깃들어있어요. 저는 이 꿈을 키워주고싶어요.》

《그건 너무 심각하군요. 발열체는 이미 내가 잘 알고있습니다.》

《아니예요. 기사장동진 잘 몰라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숨결이 높아진 차명학이 꼳꼳해진 눈길로 따지듯 물었다. 설아는 긴 속눈섭을 내리깐채 나직이 말했다.

《기사장동진 늘 자랑하시지요. 감자밭에 없던 이고장에 벼농사까지 하게 됐다구… 그런데 왜 농민들은 보지 못합니까. 물론 배상만분조장은 사고를 낸 사람이예요. 실수를 했어요. 생활에는 본의아닌 실수나 파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을수 있는 이런 티 하나를 보고 그 사람전체를 규정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티는 있지만 벼모기르기를 안전하고 험하게 하자고 아글타글 속태우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티보다 그 마음을 먼저 알아줬으면 그가 것처럼 속을 썩이며 기를 못퍼고 살지 않았을거예요. 저는 이것이 제일 가슴아픕니다.》

자기를 강그리 잇고 설아의 얼굴만 쳐다보던 차명학의 눈길은 차츰 초점을 잃고 해땀뻘다.

5

(내가 사람을 잘못보다니?)

생활에는 실수나 파오가 있을수 있다지만 배상만의 경우엔 다르지 않는가. 사람들은 각성하고 살타이다. 그런데 배상만은 어떠했는가. 굳이 그 만두라고 타일렀으나 끝내 고집을 부리다가 농사에 피해를 주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다. 하나의 티로 볼수 없다. 더구나 그때의 잘못을 뉘우칠 대신 아직토록 가슴에 품고 자기를 쓴외보듯하다가 소조원에게 추동질까지 했다. (차명학은 그렇

게 생각하고있었다.) 속이 알알했다. 여지없이 무시 당한것 같기도 하고 발등을 밟힌것 같기도 했다. (하긴 원래 배상만이 그런 사람이였을테지. 내가 잘못 볼수가 없어.)

차명학은 이렇게 자신을 위로해보았으나 설아의 말이 가슴에 맺혀 내려가길 않았다. 그런데다 요즘은 한가지 불안이 더 생겼다. 그것은 3분조 2계단모판이다. 설아는 그 일이 있는 다음날부터 배상만과 함께 이틀밤을 꼬박 새우더니 모판에 발열체를 넣고 벼락종을 하고야말았다. 그 모판이 바람앞에 등불같아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소문봉의 얼음색갈을 보게 됐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구질구질 비가 내리던 하늘에서 청송맞게도 허연 눈꼬치가 섞여 떨어졌다. 그 눈꼬치는 불안을 느낄 사이도 없이 허공을 짹 덮어버렸다. 좀 있더니 바람이 터지고 눈보라가 일기 시작했다. 차명학은 자신의 몸이 뽕뽕 얼어드는것만 같았다. 방금 아지자르기 시작한 벼모판이 이번 추위에 견딜것 같지 못했다. 차명학은 노랑게 끄슬린 양털모자를 눌러쓰고 작업반들을 나돌기 시작했다.

해마다 이런 고초를 몇차례나 겪어야 할지. 그중에서도 올 봄의 날씨는 더욱 한계점을 잃고 헤엄쳤다. 이 모판에서 저 모판으로 분조와 작업반을 옮겨가며 해종일 숨가빠 뛰어다니던 차명학은 밤이 이슬해서야 농장을 한바퀴 다 돌아볼수 있었다. 비상대책을 세우고나니 그래도 한시름놓인다. 그는 숨돌릴 사이 없이 지름길을 찾아 소문봉마루로 향했다. 거기에 올라서면 끝안마다 박혀있는 농장의 모판들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혈색거리며 한참 치달아 오르던 차명학은 걸음을 멈추었다. 눈앞에 펼쳐진 모습이 정말 불만했던 것이다. 곳곳마다에 불무지가 솟아오르고 웃음소리 노래소리로 떠들썩했다. 마치 런대장감시소에서 마지막 격전장을 내려다보는것만큼 속이 후련했다. 담배를 붙여물고 흐뭇이 내려다보던 차명학은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바로 발밑아래에 있는 3분조모판에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숨이 딱 막히며 속이 울컥했다. 소조원이 나와있다가에 마음을 놓았는데 그 발열체만 믿고 하등의 대책도 세우지 않고있는것이 분명했다. 불쑥 5년전 배상만의 일이 가슴을 쳤다. 차명학은 더 생각할 사이 없이 3분조모판을 향해 아래로 내달렸다. 령길은 가파롭고 험했다. 소문봉을 거의 내려왔을 때다. 발부리가 떠끔하는 순간 육중한 몸이 앞으로 콕 쏠렸다. 돌부리를 찔던것이다. 그는 손 쓸 사이도 없이 허공을 그리안으며 나뒹굴고 말았다

차명학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3분조 모판에 들어섰다. 아까 넘어진 때 무릎뼈가 상했는지 왼

쪽다리를 쓸수가 없었다. 어둠속에 잠긴 모판은 조용했다. 박막우에 덧쌓인 허연 진눈까비가 맹수의 발톱처럼 아프게 눈을 찔렀다. 기가막혀 말뚝처럼 서있는데 모판쪽에서 웬 사람이 성큼성큼 걸어온다. 배상만이였다. 그를 보니 분기가 왈각 솟구쳤다. 그러나 그는 두걸음도 못가서 한쪽다리를 꺾으며 주저앉고말았다.

《아니 어디 다쳤소? 이 밤중에 어떻게 여기까지...》

황급히 달려온 배상만이가 차명학의 다리를 부둥켜잡으며 걱정스레 물었다. 차명학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강인히 일어섰다.

《도대체 어찌자는거요, 영? 분조원들은 다 어딜 보냈는가말이요. 이 진눈까비가 뭐 숨이불인줄아오?》

《제발 그 목소릴 좀 낮추시우.》

배상만이 나직이 간청했다.

《뭐요?! 남은 울어도 시원치 않겠다는데...》

《기사장동무, 저 막에서 우리 소조원이...》

《무슨 소릴 하오?》

차명학은 두눈이 휘둥그래져서 풍막쪽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불빛이 풍막에서 새어나왔다.

《기사장동무, 여기 모판은 안심해도 되우다. 이온도를 좀 보시우.》

배상만은 앞에 있는 모판의 박막 한귀퉁이를 제끼고 온도계를 뽐아들었다. 그리고 성냥을 그어댔다. 온도계의 눈금을 들여다보던 차명학의 두눈이 번쩍했다. 모판안의 온도가 정상온도였던 것이다. 고개를 기웃거리던 그는 다른 모판의 온도계를 뽐아들었다. 온도는 역시 같았다. 정말 모든 모판의 온도가 이와 같다면 기적이 아닐수 없었다.

차명학은 높아지는 숨결을 느끼며 다급히 물었다.

《이걸 믿어두 되겠소? 분조장동무.》

《허허... 발열체가 은을 내는것 갈수다.》

온도계를 반아든 배상만이 껄껄 웃었다. 차명학은 낮이 화끈했다. 여유있고 활기에 넘친 배상만의 웃음소리가 전혀 판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던 것이다. 차명학은 자신도 모르게 풍막쪽을 바라보았다. 뜨거운것이 가슴속에서 솟구쳐올랐다. 그것은 점차 환희의 감정으로 변하더니 두눈에 더운 이슬을 뿌렸다.

풍막을 향해 한걸음 두걸음 다가가던 그는 막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막안에 선뜻 들어설수 없다는 자아의식이 뇌리를 쳤던것이다. 차명학은 천천히 막둘레를 거닐기 시작했다. 한바퀴, 또 한바퀴... 걸을수록 며칠동안 삼거웃처럼 덧영키기만 하던 생각들이 깨끗이 정화되면서 지나간 나날들이 새록새록 안겨들었다. 그중에서도 배상

만이 달라진 저 모습이다. 오랜 기간 그와 함께 일해오지만 오늘처럼 활기에 넘쳐 기뻐하는 모습을 처음 본다. 마치 일생의 소원이 성취된것 같다. (발열체가 그리도 귀중했던가?)

그러자 발열체는 배상만의 넋과 같다고 하던 소조원의 말이 생각난다. 그 넋을 왜 진작 가려보지 못했던가. 그가 범한 파오때문일까. 파오나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으랴. 그것은 생활에서 하나의 티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티가 내 눈을 흐리게 하다니...

차명학은 자신을 랭정히 돌이켜보았다. 정녕 자신은 변모되는 땅과 그 축복에 취하여 그의 마음과 지향을 볼수가 없었다. 일찌기 배상만의 그 소중한 꿈을 잘 알고있는 마음의 기사장이 되었던들 발열체는 이미 온 농장의 모판들에서 은을 낼것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차명학은 소스라치듯 놀라며 걸음을 멈추었다. 이것은 일시적실책이 아니라 범죄인것이다. 3대혁명의 불길에 세차게 타번지는 오늘의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사업작품과 생활관점이 가져다준 엄중한 파오였다. 소조원의 절절한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오는듯했다.

《...티 하나를 보고 그 사람전체를 규정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한건 티가 아니라 그의 마음과 지향이에요. 우리 지도일군들은 응당 그의 마음과 지향이 활짝 피어나도록 불씨를 안겨주는 발열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발열체, 발열체... 내 꼭 그 발열체가 되겠소. 소조원동무.)

차명학은 눈곱이 축축히 젖어들었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이렇게 소조원의 막돌레를 걷고 걸으며 동트는 새날을 맞고싶었다.

《소조원동무, 이 밤도 또 새우려오?》

차명학은 어둠속에 잠긴 마을을 안타까이 바라보았다. 불빛 한점 보이지 않는 마을은 고요한 평온과 꿈 속에 잠겨있었다. 어디선가 《수령님 밤이 펴 깊었습니다》의 은은한 선율이 들려왔다.

그 은은한 선율은 밤공기에 스며들며 다함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광막한 우주공간이 그 은은하고 절절한 노래의 선율로 짙어차있는것만 같았다.

별들이 반짝였다. 별 별... 수수만만개의 별들은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명렁한 빛으로 빛났다.

차명학은 저렇듯 별들이 많은줄을 그리고 별들이 것처럼 눈부시게 반짝이고있다는것을 처음으로 보고 느끼는것만 같았다. 참으로 태양의 은혜

로움은 끝이 없는것이다. 문득 숨이 가빠지며 뜨거운 땀방울이 울컥울컥 치받는다. 그것은 자신도 저 별처럼 반짝일수 있다는 신심에 넘친 행복의 덩어리였다.

봄날씨는 바야흐로 질어가고있었다.

혈끔하던 산허리며 골안마다 진달래며 철쭉이 빨갭게 휘감기고 겨우내 쌓였던 해묵은 눈이 버석버석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유난히도 해빛 따사롭던 어느날.

소문봉꼭에서 골안을 들었다놓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 소문봉비둘기벼랑턱에 걸려있던 수백톤의 얼음기둥이 빠져져나간것이다. 레년보다 보름이나 앞당긴 얼음붕괴에 사람들모두가 어리둥절했다. 산산이 부서진 얼음조각들은 눈석이에 녹아들며 강마른 골짜기에 시내물을 만들어놓았다.

봄시위가 시작된것이다. 차명학이와 함께 작업반으로 나가던 설아는 허둥해진 비둘기벼랑턱을 내려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기사장동지, 저 얼음기둥이 또 무슨 변덕을 예고하는게 아닐까요?》

《실컷 변덕을 부리라지요. 그러나 이젠 맘으십시오. 발열체가 성공했는데 아무렴 저놈의 비위를 맞춰가며 농사하겠습니까. 허허...》

차명학은 노랑게 끄슬린 양털모자를 벗으며 호탕하게 웃었다. 짐짓 의미심장한 그 말에 설아도 따라 웃었다.

눈석이물은 더욱 벌창해지며 시루떡처럼 부풀어 오른 밭고랑이며 꺼멓게 갈아번진 논판들에 소리치며 흘러들었다.

미구하여 저 생명수를 흠뻑 마신 논밭들에서 강냉이와 벼모들이 우실대며 자라나 황금파도로 설레일것이다.

설아는 그 가을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아 대공을 우러렸다. 맑고푸른 하늘엔 눈부신 해별이 가득했다. 한없이 은혜로운 태양은 온 강산을 따사롭게 비쳐주고있었다. 설아는 눈앞이 확 흐려지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말았다. 마음속 깊이에서 소용돌이치던 환희가 분화구를 찾은 용암처럼 세차게 세차게 솟구쳐올랐다. 그것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이름할수 없는 격앙된 감정이였다.

아마도 그 감정은 만풍년든 이 두메산골에 어버이수령님을 꼭 모시고싶은 간절한 소망이었으리...

설아와 차명학은 그 만풍년든 가을을 마중가듯 힘차게 걸어갔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김정곤

(1)

발벗은 아이
장대재
네 기슭에서 자랐다

언덕이 높아
오가는 바람 다 맞으며
집도 없이
안아줄 품도 없이
장대재우에 돋은 버섯처럼

한술 밥이 그리워
배고파 울다울다
네 기슭에 터버리고 앉아
차라리 밤 없이 사는 돌이 부러웠다

추위에 떨다떨다
교회당 추녀끝에
가랑잎처럼 웅크리고
차라리 추운줄 모르는
나무라도 되었더면...

운명도 기구하지
나무로도 돌로도 될수 없었던 아이
눈을 뜨면 먹을것을 찾아
다박다박 기슭을 내리고
저녁이면 또 요람이 그리워
네 기슭으로 찾아들고

《땡강 땡강 땡강...》
시꺼먼 교회당 종탑은
천당에 가자고
오밤중 허공중에 울어에도
굶주린 창자로야 열발자욱도 못갈것을...

혹시 하늘나라에 올라가
참으로 하느님을 만나면
무엇을 달라고 졸라볼까
그 아이 눈을 감고 생각했다

배부르게 먹을 밥을
찬바람 막아줄 옷을
그리고 잔등 시리지 않는 초마구리 한칸...

두손을 쥘아 열손가락도 못차는
그처럼 소박한 부러움을 안고
하늘에도 맛닿을 긴 한숨을
아침저녁 걸음마다 내쉬며
열두살에 벌써 그 아이
어른이 되었다

아!
이것이
지금은 아버지
나의 어린시절이었다
그리고
그대들 어린시절이었다

(2)

...지금은 아버지
꽃같은 어린것들 데리고
저녁이면 버릇처럼
장대재
네 기슭에 마주 나서노니

오!
하늘의 성좌들이 내려 네 마루에 명멸하는가
누리를 밝히며 활활
온 하늘에 타오르는 글발이여
《세상에 부럼없어라》

지금은 네 창문에
노래가 되어 터져울리고
지금은 네 층계에
기쁨이 되어 물결치고
지금은 마음속에 눈빛속에
어리며 깃들며 안기며
지금은 공기를 마시듯
그처럼 레사로와진 이 말을

저 하늘의 별보다 더 아득히
그 어디엔가 까마득하여
생각에조차 어리지 못하던
이 말의 참뜻이

장대재
장대재여!
너는 이마우에 빛발로 뿌리며
누리에 찬란히도 일어섰구나

삶은 이렇게 환희로와
인간찬미의 대음악을
세상을 향해 소리치며! 울리며!

내 어린시절
두손 쏘아 세이던 부러움을
우리 수령님 사랑의 바다에
천가지 만가지로 늘어
설레이며 파도치며
이 땅 끝에서 끝까지

부러움 없는 세계 펼쳐주시었으니

지금은
하늘나라 달도 별도 은하도
장대재
네 처마밑에 깃드는구나

《세상에 부럼없어라》
이 글발 하늘에 걸어놓고
아이들이 크고
아버지들 일하고
너인들 고운 옷을 마르고…
아아!
수천년력사가 처음으로 맞이한 수령님을 높이 모
신 내 나라
내 땅
내 하늘에
머리를 둔 아버지
내 또한 참으로
세상에 부러운것 그 무엇이라

소년궁전은 왜 이리 높은가

소년궁전은 왜 이리 높은가
아이들 머리에 별이 앉으라고
지붕은 하늘을 스친다

꿈길인듯 푸른 주단은 아득하구나
은하는 하늘에서 흘러내려
창문가에 드리운듯…

이 창가에서 아이들이 웃으면
동해의 푸른 물도 손벽치며 일어서고
백두의 천지는 거울같은 수면에
저 얼굴 비껴담는다

아! 외투자락에 아이들 안으시고
수령님 걸어오신 뜨거운 자옥이
저 층계우에 로대우에 굽이쳐왔는가
마안산에서 열린 사랑의 피창은
저 하늘에 번쩍이며 열려있구나

행복도 충충 밟고오르리라

오르고 또 올라도 끝이 없으라고
수령님 사랑이 하늘에 닿아
하늘도 처마아래 깃들었는가!

오!
수령님께 미래를 맡기고
백두산마루에 누운 아버지들
누워서도 마주
이렇게 아들딸들 쳐다보라고
수령님 위해 아버지들 걸어오른
그 빛나는 삶과 행복의 절정을
그 언제나 후손들이여
마주
맑은 눈으로 바라보라고…

오오, 소년궁전은 왜 이리 높은가
이 세상 다시 없을 수령님 사랑이
아이들을 받들어 받들어
온 누리를 굽어보라고
온 세상 행복을 다 안으라고…

저기에 내 딸이 있다오

저기에 내 딸이 있다오
가야금 타고 춤도 추고
거기서 내 딸이 크다오

별들도 창머리에 취해있는
둥기당당 가야금소리
내 딸이 고르는 가락이라오

...이제 방문이 열리면
부신듯한 쌍가풀눈
궁전서 날아온 내 딸의 모습이라오

탐스런 두팔로
내 목 끌어안을 땐
그만해야 나도 꽃이 된다오

옛적에사 아버지들이
먹이 나르는 어미제비처럼
자식들 머리말에

조금씩 기쁨도 물어다줬지만

이제 보소
이 아버지 가슴에
내 딸이
무슨 희한한 행복 날라오는지

하늘땅도 부러워하는 기쁨을
지금은
아이들이 집으로 날라온다오
창문들 열어보오
온통 하늘땅이
우리 아이들 세상이 아니요!

아이들 좋으니
아버지들 좋은 세상
아이들 기쁘니
아버지들 백배로 더 기쁜 우리 세상 아니겠소.

아버지의 노래

나는 모른다
아직 세상엔
아버지의 노래 왜 없는지
그렇게도 많이
어머니의 노래 지으면서도...
외톨자식 하나를 위해
기둥 삼대가
몽청몽청 물러갔던 그 세월이
노래조차 가뭇없이 쓸어갔는가

자식들 한치 앞길을 위해
평생을 바쳐도 열수 없었던
노래를 짓기에는
아버지의 사랑 너무도 실낱같았을가

어머니들에겐 그래도
물릴 젖이라도 있으련만
가난한 아버지 참으로
무엇을 아들에게 줄수 있었던가

주고만싶었다
엽전 한잎에도 산같은 사랑을 실어
웃음을 주고싶었다
아이들 이름 울고싶도록 부르며
기쁨을 주고싶었다

그래서
아버지들 한숨엔 땅도 꺼지였다
아버지들 주름살은 골처럼 깊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했다

어머니의 사랑이
요람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요람가에 떠도는 온기였단다
어머니의 사랑이

살랑이는 잎새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잎새에 펼친 줄기였단다

하지만 아들이
지금은
이 아버지 너를 위해
이름 석자 달아 내세우면
크나큰 사랑의 바다가
너를 안고 설레이는구나

이 아버지 너를 위해
바람 새지 않는 한칸 방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은 너를 위해
이 세상 다시없는 궁전을 지어놓고
이 아버지 너를 위해
한쌍 새조롱을 엮을 때
그 사랑은 너를 위해
하늘의 별을 따다 네 머리말에 놓았구나

아아!
그 품에 너를 맡긴 아버지
이 아버지 또한 그 품에 안겼으니
아들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자식 쌀밥을 먹이면
석삼년 굶어도 배 쓰리지 않을 이 아버지
너에게 부어줄

이 사랑
이 열정
어디에 다 쏟아놓는단말이나

온몸 불이 되어 일해도 성차지 않구나
달덩이같은 네 얼굴
그 어디 가나 얼렁이니
지금은
노래를 부르고싶다
...나는 모른다
세상에 왜 아직
아버지의 노래 없는지

아! 하지만 아들이
네가 부르고
아버지 내가 부르는
이 우주 천만 아버지들 다해도 못다할
위대한 사랑의 노래

너희들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고
우리들 어버이로 받들어모시는
아아 우리 수령님의 노래!
이 땅에서 태어나
온 누리에 차넘쳐 울리나니

아들이
이 땅을 아버지가 가꾼다
아들이
예서 네가 자란다

우리 세상은

너희들 기쁨으로 펼쳐진
우리 세상이다
너희들 희망으로 가꾸는
우리 땅이다

배우고싶으면
그 어디나 교문이 열린다
뛰놀고싶으면
온 강산이 네앞에 길을 연다

너의 식탁엔
철철 단우유가 넘치고
너의 무대엔
황홀한 노래춤이 흐른다

너희들 행복 무엇에 비길가
꽃이라면 빛이 없고
별이라면 또

향기가 없으니

너희들은 꽃
너희들은 별
그래서 이 땅은
빛과 향기 차고넘친다

이 지구 그 어디에 있다는
임금님도
왕자도
네 안은 행복 사무치게도 부러워
잠결에도 시샘을 한다니

천만금을 쏟아부어도
이런 세상 못가꾸리라
금보석을 다 모아도
이런 세상 못퍼리라

오! 것처럼 어린 녀들이
해묵은 가랑잎처럼
바람찬 한지에 나뭇굴던 그 세월

그 작은 가슴에 깃드는 서러움을
이 세상 가장 큰 아픔으로 안으시고
그 두볼에 담기는 웃음을

가사

더 많은 검은금 어서 캐세

백수길

하늘땅 울린다 발파소리
탄맥을 따라서 달려나가자
굴진과 박토를 앞세워가며
더 많은 검은금 어서 캐내세

아 속도전의 기세높이
7개년계획의 돌파구 열어 앞장서가자

탄맥을 제끼는 우리의 열정
혁신의 불길로 타오른다
수천길 땅속에 우리 살아도
은 나라 공업을 꽃피워가네

이 세상 가장 밝은 빛으로 펼치시며

아아 우리 수령님
피바다를 넘으실 때에도
네 눈동자엔 새날의 노을빛을 담아주시고
불구름 헤치실 때에도
네 머리우엔 창창한 하늘 엮어주셨으니

보아라
너의 행복 한껏 담아
해가 불탄다
너의 희망 한껏 실어
땅이 설렌다

오! 우리 세상은 너희들 세상!
이 하늘땅에 펼치는
만년대계의 설계로부터
방금 심은 애기나무 한그루까지

너희들 더 밝은 웃음에서
너희들 더 큰 기쁨에서
우리 수령님 늘 시작하시고
쉬임없이 이끄시고
그처럼 즐기치게
펼쳐가시는것이여라!

아 속도전의 기세높이
7개년계획의 돌파구 열어 앞장서가자

탄부의 불타는 충성을 담아
석탄산 하늘높이 쌓아올리세
땅속의 검은금 모두 캐내여
주체의 내 조국 빛내여가세

아 속도전의 기세높이
7개년계획의 돌파구 열어 앞장서가자

그가 바라것

장동일

1

용광로직장초급당비서 박규식은 휴야근 교대 작업반의 사고심의회가 시작되자 마음이 무거웠다. 부임되어온지 얼마 안되는 그로서는 오자마자 이런 회의에 참가하게 된것이 그리 달가운감정이 아니었다.

사고의 당사자는 출선구착공기운전공인 조태만이였다. 박규식은 주의깊게 사람들의 발언을 듣고만 있었다. 그러면서 이따금 검스레한 얼굴을 들어 창밖에 시선을 보내기도 하였다.

《무슨 생각을 하다가 그 모양을 만들어놓았는가말이요, 엉?!... 어디 대답해보우.》

눈썹이 진한 허달수직장장이 큰 눈을 부라리며 독촉했다.

바로 어제밤 일이였다. 조태만이네 작업반은 틀림없이 네번째 쇠물을 뽑아내는것으로 휴야근 교대의 새벽을 맞이했다.

이날 아침 출근하자바람으로 로상에 올라가 생산정형을 알아본 허달수는 마음이 가벼웠다. 계획을 넘쳐했던것이다. 그러나 이때 바로 허달수 앞에 그의 외동딸인 향숙이가 나타났다.

실험실장의 지시를 받고 급히 달려온 향숙은 딸로서가 아니라 실험실의 쇠물시료분석공으로서 어제밤 교대에서 뽑아낸 쇠물의 질에 류황성분이 많아졌다는(이것은 쇠물의 질이 나쁘다는것이다.) 전화가 분석실에서 생산과로 걸려올라갔으며 또 걸려내려왔다는것을 전달하였다.

허달수는 펄쩍 정신을 차리며 딸을 돌아볼 사이도 없이 긴 허리를 구부정한채 사령실로 급히 달려올라가 생산과와 분석실에 다시금 전화를 걸어 모든것을 재확인하였으며 생산진행결과를 하나하나 따져보았다.

원인은 명백했다. 그것은 조태만이가 어제밤 출선구착공기를 맡아 운전하면서 출선구를 뚫을 때 그 심도와 각도를 표준조작의 요구대로 보장하지 못했기때문이었다. 사실상 이것은 설비를 망가뜨려 생산을 중단시킨것과 같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러나 특수기대를 맡아보는 운전공이 생각을 한푼으로 집중하지 못한 무책임성은 크게 문제를 세워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훈을 주어야 한다고 허달수는 생각했다.

(...글쎄 다른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어. 그러나 태만이 그 사람은 이번에 단단히 혼을 내우고 대책을 세워야해.)

허달수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당장 작업반사고

심의회를 열도록 했던것이다...

《출선구착공기를 로밀통에 박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말이요? 무슨 생각을?!》 하고 허달수가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조태만은 커다란 머리를 수그리고 대답없이 서고만있었다.

(조태만, 조태만...)

박규식은 사업을 인계받을 때 특수기대 운전공들을 료해하였었다. 전 초급당비서는 그가 제대 군인으로서 빠른 시일에 출선구착공기의 운전조작을 맡아서 크게 제기되는것이 없이 일하고있는 청년이라고 간단히 지적하였다.

조태만에 대한 이러저러한 인상들을 더듬어보면서 여직껏 창밖에 눈길을 주고 앉아있던 박규식이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응글은 목소리로 한 마디 했다.

《조동무, 함께 일하는 동무들앞인데 어서 말해보라구.》 박규식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조태만은 새로 온 초급당비서의 목소리에 머리를 약간 쳐들었다가 몸자세를 바로가지면서 허끝으로 마른 입술을 추기였다. 그다음 《사실 저는 어제밤에...》 하고 말머리를 떼었으나 채 맺지 못하고 다시금 머리를 떨구었다.

《아, 여보, 왜 말을 못해?... 그럼 또 졸았구만.》

허달수가 참지 못하고 제나름으로 단정하며 혀를 찼다.

그러자 조태만은 빨경게 달아오르기 시작한 머리를 갑자기 쳐들었다.

《...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쇠물을 뽑는데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에 잠겨서 그만...》

《보라구, 정신을 판데다 팔았단말이야, 일하는 사람이야 손발을 부지런히 놀려야지 생각이라는 건 또 뭐요?... 좌우간 답답하군.》

허달수의 목소리에 호응이라도 하듯 여러 사람들이 수군덕거려였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곧 잦아들었고 더 무거운 침묵이 서리였다.

(솔직한 동무이로군, 대체로 사고심의회에서는 변명을 하기가 일쑤인데... 그렇다면 조태만이가 한 생각이란 어떤 생각이였을까?...)

박규식은 금시 떠오를듯한 그 생각의 실마리를 당장이라도 찾아내려는듯이 정신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때 창밖에서 어떤 그림자가 얼썌거렸다.

(?…)

박규식은 창너머로 눈길을 던졌다.

창밖의 그림자는 허리를 꼬부리고 창턱밑으로 두번이나 처음 본새대로 가까이 접근하였는데 세 번째만에야 박규식은 회의장안에서 들려나오는 말소리를 엿들려고 애를 쓰고있는 처녀의 옆모습을 알아볼수 있었다.

(어떤 처녀일까? 무엇때문에, 누구를 만나러 왔을까?)

이 찰나 박규식은 처녀와 눈길이 마주쳤다. 처녀는 황급히 창문턱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돌아가지는 않고 어디엔가 머물러있는것 같았다.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동한 박규식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뒤문을 조용히 열고 나서서 창밖에서 아직도 서성거리고있는 처녀한테로 천천히 다가갔다.

《누구요?》 하고 박규식이 나직이 묻자 그 처녀는 흠칫 놀라며 돌아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두 손을 소리가 안나게 마주치며 속삭이듯 부르짖었다.

《아이, 초급당비서동지?!》

(이 동문 어떻게 나를 쉽게 알아맞힐까?) 하고 생각하면서 박규식은 그에게로 한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난 동부를 잘 모르겠는데?…》

《전 실험실에 있어요.》

《실험실예? 그런데 어떻게 나를 아우?》

《아이참, 비서동진 우리 아버지랑 1호용광로에서 함께 일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랑 같이?… 아! 그럼 네가 향숙이냐?!… 향숙이가 이렇게 성숙했구만! 그런걸 내가 알아보지 못했구나!》

《비서동지야 그동안 학교에 가게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향숙은 말했다.

사실 그랬다. 박규식은 허달수가 1호용광로사령실에서 일할 때 교대세포비서로 일하다 공산대학에 갔다. 그후 3년동안 공부하고 제철소에 돌아온 박규식은 허달수를 사령실에서가 아니라 직장장사무실에서 만났으며 그에게서 벌써 경험있는 일군의 외모를 엿볼수 있었다.

《아버지가 뽑아내는 쇠물을 분석하는 향숙이를 내가 몰라보았구만.》

《호호호… 비서동지 말을 듣구보니 그렇구만요.》

《향숙인 정말 중요한 일을 하누만!… 그래 왜 왔었나?》

《…………》

《응- 아버지 만나러 왔었겠구만.》

《아니예요…》

향숙은 얼굴을 붉히며 수집어했다.

《그럼 누구를 만나러 왔었나?》 하고 박규식은 한발자국 나서며 캐여물었다.

그러자 향숙은 약간 당황해하며 공연히 서성거리다가 여직껏 뒤에 감추었던 왼손을 천천히 앞으로 가져왔는데 그 손에는 무슨 봉투같은것이 쥐여져있었다.

《그게 뭐요?》

박규식은 더욱 눈을 밝혔다.

《편집니다…》

《편지? 어디 좀 볼까?》

박규식은 두통의 편지봉투겉면에 똑같이 소박하게 씌여진 주소를 읽었다.

청진시 00구역 00동 김책제철소로동자합숙
《7》동 3층 9호 조래만 앞

《아니, 편지가 이렇게 두통씩이나 올 때까지 태만동무는 어디 갔었소?》

《가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 편지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일하느라구 바빠서 그랬겠지요뭐…》

《바빠서?》

《그 동문 원래 그런 동무랍니다.》 하고 향숙은 말했다. 그는 자기네 합숙 접수에는 늘 여러통의 편지들이 오군하는데 그 편지들은 오기가 바쁘게 찾아간다고 하면서 언제나 조래만동무의 편지가 임자 없이 놓여있는 때가 종종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용해장으로 한교대에도 두세번씩 쇠물시료를 뜨러 다니며 얼굴을 마주보는 처지에 스쳐지낼수 없어서 이렇게 현장에 가지고 나왔다고 했다.

《그거 참 잘 생각했소… 그런데 무슨 사연이 적혀있는지 봉투가 두툼하군.》

박규식은 창문불빛에 편지를 공연히 비쳐보면서 미소했다.

《어머니가 머느리감을 골라놓았다고 빨리 휴가 오라는 편지겠지요뭐. 호호호…》

《오- 그것 참 그럴듯하군. 허허허…》

박규식은 즐겁게 웃으면서도 생각해보았다. 그는 대체로 제대된 아들을 빨리 장가보내고싶어하는 어머니들의 심정과 그런 심정을 몰라주는 아들들이 있는데 바로 조래만이도 그런류의 동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촉기빠른것이 처녀들인지라 향숙이도 그런 식으로 알고있는것 같았다.

《그럼 이 편지를 내가 전달해줄까?》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하고 향숙은 얼굴을 붉히며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박규식에게 각뜻이 인사를 하고서야 돌아서는것이였다.

박규식은 멀어져가는 향숙의 모습을 이윽도록 지켜보고 섰다가 다시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허달수가 계속 말하고있었다.

《…좌우간 이걸 그저 스쳐보낼수 없는 엄청난 일이요, 조태만동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건 내가 상관할바가 아니요. 그렇지만 오늘 일에 대해서는 동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우, 알겠소?!》 하고 그는 앞으로 문제를 크게 보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은근히 위협조로 말을 마쳤다.

《…………》

박규식은 묵묵히 듣고만있었다.

2

그 이튿날 박규식은 초급당위원회사무실을 찾아온 허달수와 마주앉아있었다.

《그러니까 초급당비서동무는 앞으로도 계속 출신구착공기를 태만이한테 맡기잔말입니까?》하고 허달수는 방금전에 초급당비서와 마주앉자마자 시작하던 말을 되풀이했다.

그는 조태만을 특수기대인 출신구착공기에서 내리우려는 자기의 결심까지 말했다. 그는 생산에 지장을 줄수 있는 사소한 요소라도 제때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조태만에 대한 자기의 결심을 알리려고 박규식을 이렇게 찾아온것이다.

그러나 박규식은 벌써 두번째나 독촉해오는 허달수의 물음에 대답을 못하고 앉아있었다. 단순히 대답할 문제가 아니였다. 그것은 아직 당원들에 대한 파악이 깊지 못하다는 리유에서만 아니였다. 조태만은 이미 초급당위원회의 결정으로 임명한 특수기대운전공이다. 그러한 동무를 어떻게 한번 있는 기대의 오조작을 근거로 기대에서 내리우자는데 선뜻 동의할수 있단말인가?…

생각에 잠겨있던 박규식은 조태만을 한번 더 믿고 그에게 출신구착공기를 맡겨보자고 하였다.

그러나 허달수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반대하였다.

《초급당비서동무두 참… 아, 내가 사람을 작게 지내봐서 조태만의 사람됨됨을 모르겠습니까? 글썽 비서동무가 용광로 문제를 전혀 모르는건 아니지만 그동안 학교에 갔다가 온지 이제 한달 두 못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야 그 사람하구 1년이상이나 이마를 마주대구 일해왔수다, 이마를… 그 사람이 달라지면 이 손바닥에다 장을 지지겠수다 원.》

허달수는 담배재가 발등에 떨어지는줄도 모르고 왼손바닥의 한복판을 바른손의 두번째 손가락으로 쿡쿡 찌려보였다. 그바람에 머리칼이 이마에 흘러 내렸다. 거기에 흰머리칼이 섞여있는것을 박규식은 새삼스럽게 보았다.

박규식이 떠날 때 허달수는 신고개를 넘겼으나

그때에는 머리에 흰머리칼이 없었다. 이 순간 박규식은 허달수가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느껴 지면서 허달수의 제의를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박규식은 자신을 다잡으며 미소어린 눈길로 직장장을 마주보았다.

《직장장동진 태만동무를 단단히 잘못본것 같은데 그중에서 제일 마음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게 어떤건지 그걸 한번 말해보십시오.》

《그야 어렵지 않지요. 가까운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고 허달수는 한달전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그는 그날이 설비점검의 날인데 그때도 바로 조태만이 밤일을 했다고 하면서 말을 이었다.

《…후야근교대운전공이라면 마땅히 설비점검준비의 절반이상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낮교대만 믿구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았대거든요. 낮교대운전공의 말을 들어보니까 조태만이 출신구착공기에는 자동화할 요소가 있다거니, 기대가 육중하다거니 하면서 점검준비를 불성실하게 한 자기의 잘못을 느끼지 않더라지 않겠소…》

《내가 그전에 출신구착공기운전을 좀 해보니까 교대본위가 자기도 모르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더군요. 혹시 낮교대운전공의 과장된 반영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규식이 이렇게 말했지만 허달수는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자기는 벌써 그때부터 조태만을 잘못보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박규식은 다시금 할말을 찾지 못하고있었다. 생각이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는 허달수가 조태만을 오래동안 데리고 일해온 초급일군으로서 그에 대한 결함을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면서 과학적으로 론증하는 앞에서 갑자기 대답을 찾을수가 없었다.

그러나 대답을 주어야 한다.

그것은 물론 어렵지 않다. 그를 기대에서 내리우는데 동의하면 될것이다. 그러나 그런 대답을 어떻게 판단말인가? 만약 그렇게 되면 조태만이 자신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은 단순한 운전공의 로력배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당원의 믿음에 대한 문제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좌우간 이번주일안으로 락착을 지어야겠수다.》하며 허달수는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났다.

허달수가 나간 다음에도 이윽도록 한자세로 앉아있던 박규식은 탁상월력에다 이렇게 썼다.

《조태만동무에게서 기대를 인계받는 낮교대운전공을 만나볼것. 밤교대시간에 실험실분석공 향숙을 만나볼것.》

그날 밤이었다. 박규식은 계획보다 두시간이나 늦어서 향숙이가 일하는 쇠물분석실에 찾아갔다. 공장당위원회가 늦게 끝났던 것이다.

행정시간에 일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박규식은 잠시 망설였다. 분석실교대조장이 향숙이를 불러오겠다고 했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타일려주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정 그렇다면 내가 향숙동무의 일을 도우면서 만나보겠습니다. 나두 쇠물분석하는 법을 배워야 하니까요. 일없겠지요?》

박규식은 분석실교대조장의 뒤를 따라서 향숙이가 일하는 분석실에 들어 섰다. 그는 향숙이가 일손을 놓으면서 잠시 틈을 내어 말해도 일없다고 했으나 하던 일을 마저 끝내자고 하면서 그의 일손을 도왔다.

《자, 어서 하던 일을 끝내자구. 그게 이제 그 가열로안에 들어가나?》하고 박규식은 호기심이 어린 눈길로 시료분말이 담긴 사기고뿌를 잡으면서 대답했다.

《네, 이걸 가열로안에 넣고 이 스위치를 넣으면 이쪽 신호등에 불이 옵니다.》

《음- 그렇게 하는군...》

박규식은 향숙의 눈치를 보다가 저울추를 재빨리 섬겨주기도 하고 그가 기입하는 분석일지를 유심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가 기입하는 분석일지를 유심히 들여다보기도 하면서 분석의 중요성을 느끼기도 했다.

다음 시료가 올 때까지 잠시 시간이 나서 어차피 쉬지 않으면 안되었을 때에야 박규식은 조태만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를 잘 아는가고 물어보았다.

향숙은 얼굴을 붉히며 잠시 서있었다.

박규식이 재차 물어보자 향숙은 붉어진 얼굴을 쳐들지 않았지만 어딘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용해공동무들의 량심을 저울에 달구는 우리가 한교대동무들의 마음속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그 동무들이 뽑아낸 쇠물을 분석할수 있겠어요.》

《하- 이거 향숙이가 수첩에 적어둘만한 명대사를 하는데!...》

박규식은 흰이발을 내놓고 빙그레 웃었다.

《아이참, 그거야 초급당비서동지가 저보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한 말씀이 아닙니까.》

《허... 내가 그랬던가... 그건 그렇구. 향숙이 보기엔 조태만동무가 어떻소?》

《아이참,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하고 향숙은 또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러다가 잠시후에 그는 조태만이 입이 무겁고 자기의 속심을 좀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놓지 않아 상대방을 조금하게 만드는 파묵한 청년이라는 것과 요즈음은 출신구착공기에 기술적합리화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아직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있으며 기초가 어린것으로 하여 혼자서 고민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고심의를 하는 날 왜 창문밖에서 서성거렸는가 하는 물음에는 종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규식은 향숙에게 조태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일러주면서 생각이 깊어졌다.

(조태만을 직접 데리고 일하는 허달수직장장에 비하면 그의 딸이 얼마나 속이 깊은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저렇게 깊이 알고 좋은 점을 사준다면...)

3

이튿날 박규식은 조태만을 찾아 남청진합숙으로 올라갔다.

그는 정작 현관층계를 올려밟는 순간 조태만이 가 호실에 있으리라고 타산한 자기가 뉘우쳐졌다. 그것은 병사생활을 마치고 합숙생활을 하던 자기의 청년시절을 생각해드 될 것이다.

그러나 조태만은 호실에 있었다.

그는 방안에 들어서는 초급당비서를 의아하게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엉겨주춤하니 서있었다.

《어서 앉아서 하던 일을 하오. 그래 무얼 쓰오?》 하며 박규식은 신발장안에 신발을 넣고 허리를 펴면서 물었다.

《.....》

《...그래 어머니한테 회답을 써보냈겠지?》

《아직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직두?...》

박규식은 조태만을 찬찬히 여겨보았다.

그는 사고심의하는 날 향숙이가 가져온 편지를 받아쥐고 그 자리에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향숙의 말을 듣고 태만을 보고싶어하는 그의 어머니의 절절한 심정을 알수 있었다. 박규식은 그때 벌써 이것이 스쳐지나보낼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무엇때문에 어머니한테 회답을 쓰지 않았을가?...)

박규식은 생각에 잠긴채 크지 않은 호실안을 조용히 거닐었다. 그는 화분들이 놓여있는 창문가로 다가갔다가는 옷보가 걸려있는 벽장문쪽으로 걸어 왔고 머리를 쳐들지 않은채 조용히 돌아서서는 다시 창문가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었다.

그러던 그의 눈길은 창문열 구석쪽에 치우쳐있는 책상우에 펼쳐놓은 종이장우에 가뒀었다.

박규식은 바로 그 책상을 마주하고 서있는 조태만에게 나직이 물었다.

《그래 이진 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만은 종이장들을 밀어놓으려고 하면서 뒤더

수기에 손을 가져갔다.

《가만… 손을 좀 치우라구, 좀 보지요.》 하며 박규식은 허리를 구부리고 종이장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출선구착공기운전에서 심도와 각도의 자동조절에 대한 기계적요소.》

이렇게 제목을 써놓은 첫번째 종이장에는 출선구착공기의 단면도가 그려져있었고 그다음 종이장들에는 본인만이 알아볼수 있는 복잡한 선들과 계산수치들이 새까맣게 씌여져있었다.

《이걸 언제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소?》

《한달쯤 됩니다.》

《음…》

생각할아서는 좋은 일을 하고있다고 태만의 손을 덥석 잡아주고싶었지만 박규식은 저도 모르게 창밖에 눈길을 주었다.

…제대될 때 것처럼 원하던 용해공이 되었으니 쇠물을 본때있게 뽑아내리라고 마음먹고 출선구 앞에 선 조태만이였으나 정작 모든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것이다. 병사시절부터 탐구력이 남다른 그에게는 아직 자동화하지 못한 출선구착공기의 부족점이 눈에 띄었을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자동화할만한 이론적기초가 약하다보니 자기판으로 남다른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기술혁신은 오히려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것이고 그것으로 하여 직장장에게 잘못보였다는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나 그 기술혁신을 해내려고 남다른 고민에 몰두하다가 출선구착공기의 오조작사고까지 내었을것이다…

박규식의 눈앞에는 사고심의를 할 때 생각에 잠겨있었다고 자기의 심정을 솔직히 내놓던 조태만의 모습이 얼른거렸다.

박규식은 창문에서 얼굴을 돌리며 나직이 물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왜 자기 당조직에 알리지 않았소?… 그리구 직장장동무한테두 반영 했어야 하지 않았겠소?》

《이제 생각중인데요 뭐…》 하고 조태만은 자기같은 사람은 결과를 내놓기전에는 직장장이 그 기술혁신의 구상을 인정해주지 않을것이라고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듯 부언했다.

이때 박규식은 허달수가 찾아와서 조태만이를 잘못보게 된 한달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던 생각이 났다. 물론 한 당원에 대한 반영을 정확히 하지 못한 세포비서와 반장의 문제는 앞으로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인간의 결함을 두고두고 고정불변한것으로 보고있는 직장장의 일면적인 견해가 사람과의 사업에 주는 나쁜 영향에 대하여 박규식은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지 않아도 말을 하기 싫어하는 조태만은 일군들에게 잘못 보였다는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귀

중한 기술혁신을 하면서도 매우 소심하게 복잡한 생각속에서 혼자 안고 애쓰고있지 않는가…

박규식은 착잡한 자신의 마음을 될수록 내비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입을 열었다.

《조동무, 사람들이란 호상관계에 있는것ियो. 직장장동무가 동무를 잘못 보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조동무가 직장장동무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먼저 생각해보라구.》

《…………》

《동무가 작업반조직앞에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지 않고 그것이 제때에 직장장동무한테 반영되지 않는데 직장장동문을 조동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겠소?》

박규식은 대답을 못하고 앉아있는 조태만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엄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당조직이 모르는 일을 당원이 어떻게 할수 있겠소? 동무는 기술혁신뿐만아니라 동무와 관계되는 모든 일을 당조직에 반영하구 당조직의 방조를 받아야 하는것ियो… 만약 동무가 직장장동무에게 동무가 하고있는 기술혁신의 내용을 허심하게 털어놓고 도와달라구 했더라면 직장장동무가 동무를 왜 도와주지 않았겠소?…》

박규식은 마지막 말을 하면서 왜 그런지 말머리가 더듬어지면서 조태만의 얼굴표정을 살피게 되었다.

그러나 어딘가 어색해지고있는 자신의 표정을 태만이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약간 실무적인 어조로 오늘과 래일까지 지금 하고있는 출선구착공기의 도안을 끝내여보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태만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이쪽을 건너다보았다.

《아직 대휴날은 멀었는데…》

《일없소, 내가 직장장동무한테 말할테니 마옵시고 하오.》

박규식은 이렇게 오금을 박아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합숙현관문을 나서려던 박규식은 그 자리에 못 박힌듯 굳어졌다.

《아니, 향숙이가 어떻게?!…》

그는 반가움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까지 높였다.

그러지 않아도 초급당비서와 마주치지 않고 돌아서려고 하던 향숙은 귀밑까지 새빨개지면서 탄 소리를 했다.

《저… 초급당비서동지, 집에 누가 왔다구 전화가 왔어요.》

《알고있소.》

박규식은 제대되어 먼 북부탄광에 배치된 동생이 집에 찾아와서 형님이 퇴근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전달을 이미 받았었다. 그래서 오전중에 열간압연직장에서 있는 방식상학이 끝나면 점심

시간에 동생을 만나보리라고 했는데 조태만을 찾아 합숙에 올라온채 너무 시간을 보내다나니 일이 생각대로 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박규식에게는 동생에 대한 생각보다 때마침 합숙에서 향숙이를 만난것이 자기의 친동생을 만난것보다 더 기쁘고 반가웠다.

《향숙이 그건 뭐요?》 박규식은 향숙이가 꽃보자기에 싸든 꾸레미를 넘겨다보며 물었다.

《<기계공업편람>이예요, 태만동무에게 필요할것 같아서...》

향숙은 편리하겄으로 층대모서리를 툭툭 차면서 대답했다.

박규식은 향숙의 나지막한 대답을 들으면서 그리고 상기도 수집음이 가시여지지 않은 발그레한 그의 얼굴모습을 여겨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졌다. 용광로쇠물의 시료를 가져다 분석한다는 실무적인 립장에만 서지 않고 용해공의 마음속을 헤아려보고 그의 기술혁신을 도와나선 처녀의 깨끗한 로동계급적양심은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이 순간 박규식은 작업반사고심의회때 사람들을 앞에 머리를 떨구고 서있는 조태만의 모습을 여겨보며 창밖에서 서성거리던 향숙이의 심정을 비로소 짐작할수 있었다. 그리고 분석실에 찾아갔을 때 조태만이가 기초가 약하다고 자기 일처럼 걱정하던 향숙이의 마음이 헤아려졌다.

(직장장동무는 이런 딸의 심정도 모르고있었으니 태만동무의 마음을 어떻게 알수 있었겠는가?...)

박규식은 조태만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이런 마음씨 착한 처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하고있다는것을 알면 얼마나 반가와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래일중으로 조태만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리라 결심했다.

《향숙동무, 마침 잘 왔소. 지금 태만동무가 도면을 앞에 놓고 고심하고있소. 어서 올라가 도와주우, 어서!》

박규식은 친절하게 이 한마디를 남기고 가볍게 발걸을 돌리었다.

4

공장정문앞의 갈림길에서 박규식은 한동안 머뭇거리며 서있었다.

왜 그런지 아침부터 형님을 기다리고있을 동생이 원망어린 눈길로 자기를 노려보고있는것만 같았다.

잠시동안 서성거리고 섰던 박규식은 갑자기 발걸을 돌려 용광로로 향했다. 그리고 누가 다쫓아 오기라도 하듯이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구내식당에 가서 저녁밥을 먹은 박규식은 작업복을 갈아입자마자 로상으로 올라갔다.

전교대에서는 마지막 출선작업이 한창이었다. 전교대운전공은 운전실에 나타난 초급당비서를 자못 놀란 눈길로 지켜보고있었다.

이때 뒤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거 비서동무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혹시 점점이라두 하시려우?》

박규식이 돌아보았다. 그는 큰 눈을 꺼벅거리며 서있는 허달수직장장을 마주하게 되자 무점중계 꺾꺾 웃으며 응수를 했다.

《허- 나두 오늘부터 출선구착공기운전을 좀 해볼가 해서 그러니다.》

《그럼 옛숨씨를 보일 작정인가. 그렇지만 걱정 마시우다. 비서동무가 출선구착공기를 운전하지 않으면 기대를 탈 사람이 없겠소?》

《그래두 내가 타봐야 다른 사람들두 타라구 하지요... 좌우간 연습을 단단히 해둘테니 <사고>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박규식은 직장장을 건너다보며 여전히 빙그레 웃고있었다.

박규식은 운전편을 잡았다.

그런데 운전은 처음부터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동안 손을 놓았더니 좀 말썬데...)

박규식은 한참동안이나 모지름을 써서야 《옛숨씨》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그동안 운전법을 잊고있었기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싶지 않았다. 당비서인 자기를 포함한 일군들의 호홉과 맥박이 잠시라도 불앞에서 땀흘리는 용해공들의 맥박과 함께 뛰지 못할 때 사람과의 사업에서는 빈틈이 생길수 있다는것을 몸으로 느끼고있었다.

그는 조태만의 마음속을 더 깊이 파악하려는듯이, 마치도 그가 다루는 출선구착공기가 그의 일거일동이기나 한것처럼 기대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주시해보며 정신을 집중했다. 그럴수록 왜 그런지 그 기계부속들의 움직임을 전보다 매우 굵뻬 보였으며 기대의 소음도 그리 고르롭지 못 한듯싶었다.

박규식은 조태만이가 기대가 육중해서 다루기힘이 들다고 했다는 직장장의 말을 다시한번 상기해보는 순간 하루라도 더 빨리 출선구앞에서 기대를 직접 다루지 못했던 자신이 뉘우쳐졌다.

교대를 마치고 조태만이네 교대작업반 휴게실로 올라가던 박규식은 뒤따라오는 허달수를 보자 발걸음을 멈추었다.

《직장장동무, 마침 잘 만났습니다. 그러지 않아두 내 좀 만나려든 참이었는데...》

《왜요?》

《조태만동무에게 대휴를 줍시다. 오늘부터 한이틀동안말입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예, 출선구착공기자동화도면을 만들고있습다.》

《그 사람이 도면을 그려요?... 모를 소립니다. 아마 그전부터 말을 내었던걸 공연히 종이장에다 옮겨보자는거겠지요. 옛날부터 학식이라는건 관록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졸업장두 없는 새파란 애송이가 현장에서 1년두 되나마나하게 일했는데 도면은 무슨 도면이겠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군대에 복무할 때 이악하게 독학을 하여 수리기수가 된 동무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아? 사람 성미두...》

《그래서 아무래두 한 이틀 대휴를 조절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주어야지, 좌우간 줘봅시다...》

허달수는 약간 면구스러워하면서도 누구에게라 없이 화풀이를 하는듯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그럼 오늘밤 출선구착공기운전을 누가 한다?》

《내가 하지요.》

《조급당비서동무가요?... 그럼 그때문에 비서동무가 전교대운전공이랑 같이 기대를 다루어보았습니까?》

《뭐 그때문이라기보다 잊어먹었던 운전법을 익혀보았는데 어디 한번 믿어보십시오.》

박규식은 버릇처럼 또 그 흰이발을 가지런히 드러내놓으며 빙그레 웃어보였다.

그는 합숙에서 향숙이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였다.

향숙이가 조태만이 하고있는 기술혁신을 돕고 있다는 전후사연을 이야기했을 때 허달수는 저으기 놀란 표정으로 종잡을수 없다는듯이 머리를 긁적거렸다.

《모를 소린데... 그런데 우리 향숙이가 그런덴 또 언제부터 빠치기 시작했나?》

《아, 왜 모르겠습니까? 아마 향숙이는 태만동무가 뽑는 쇠물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분석해보았을겁니다.》

박규식은 일부러 어제저녁 향숙이한테서 들은 말을 되풀이했다.

《...우리 향숙이가 태만의 마음을 분석한다? 그거 참 그럴듯하군...》 하고 허달수는 어이가 없다는듯이 웃어버렸다. 그러나 그는 어딘가 몹시 무거워진 걸음걸이로 돌아섰다. 공장참모회의에 갈 시간이 된것이였다.

작업이 시작되였다.

원료장입이 끝나고 송풍압을 올리기 시작하자 용광로는 마치도 선잠을 깬 맹수처럼 울부짖으며 거센 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박규식은 출선구착공기의 기계요소들을 다시한번 점검한 다음 로앞으로 달려내려갔다. 사실 출선구착공기운전공의 임무는 출선시간에 출선구를 뚫고 쇠물이 다 나온 다음 다시 그것을 막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박규식은 그렇게 하고싶지 않았다. 그는 교대동무들의 쇠물도랑정비작업을 도와나섰다. 쇠물도랑에서 피어오르는 화기에 박규식의 얼굴은 달아올랐다. 이번에는 머리꼭대기에서 천정 기중기가 출선구점토포를 받아내려놓으라고 귀가 메여지게 종을 울린다. 박규식은 그 종소리가 마치도 자기만을 부르는 그 누구의 웨침소리이기라도 한듯이 어느새 내려드리워지는 점로바가지의 쇠바줄을 향해 두팔을 벌린다. 사람들이 여기 일은 녀려 말고, 기대우에 올라가 출선시간까지 땀이라도 좀 들이라고 벌써 몇번이나 거듭 권고했지만 박규식의 머리속에는 오늘밤 자기가 조태만을 대신하여 더 많은 쇠물을 뽑아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첫번째 쇠물은 좋았다.

담황색 쇠물이 팔팔거리며 출선구를 빠져나와 폭포처럼 쏟아져내리자 어둡던 밤하늘에 쇠물빛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박규식은 그 쇠물빛 밤노을을 바라보며 그제야 온몸이 노근해지는것을 육감으로 느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음 출선을 위하여 기대점검을 시작했다.

그가 공구함에서 기름통을 꺼내들고 일어서려는 때였다. 누구인가 기척도 없이 운전실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들어섰다.

《?!...》

그는 조태만이였다.

《아니 태만동무가 어떻게??》

말없이 박규식의 앞으로 걸어진 조태만은 대답 대신에 박규식이 들고있던 기름통을 빼앗듯이 받아들고 주유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태만의 모습을 바라보던 박규식은 일부러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나왔소?》

《.....》

《도면을 완성하라는데 왜 나왔소?》

《일하고 들어가서 또 그리겠습니까.》 하고 조태만은 대답 대신에 벌써 기름통을 집어들었다.

(쉽게 꺾을수 없는 성실성이 가슴속에 세워져 있는 동무이구나...)

박규식은 목구멍으로 치밀어오르는 뜨거운것을 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왕 나왔으니 반장동무한테 내려가서 나왔다는 보고를 하우.》

박규식은 태만에게 있는 이러한 성실성, 이러한 좋은 점이 한시바빠 허달수직장장한테 가닿을것을 원하고있었다.

5

박규식이가 조태만을 찾아 합숙에 올라갔다운지 보름째 되는 날 저녁이였다. 향숙이가 점심시

간을 리용하여 초급당위원회사무실에 나타났다.

《아, 이거 향숙동무가 어떻게? 어서 들어오우.》

박규식은 그를 반갑게 맞으며 응접탁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향숙은 의자에 앉을념은 하지 않고 잠시 망설이다가 양복호주머니에서 네첩으로 접은 전보쪽지를 꺼내었다.

《아니, 이건 전보가 아니요?》

《그렇습니다. 제앞으로 온것인데 조태만동무의 어머니가 보낸것 같습니다.》

《태만의 어머니한테서?!》

《네...》

《어디 좀 보지요.》 하며 박규식은 전보쪽지를 받아들었다.

전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청진시 00구역 김책제철소 허향숙 앞. 초급당비서동지의 편지를 받았음. 27일 낮차에 청진도착.》

그제야 박규식은 조태만을 대신해서 그의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던 일이 생각났다. 출선구착공기자동화의 도면을 안고 애쓰면서 어머니에게 편지 회답조차 못하고있는 조태만을 도와서 박규식은 편지를 썼던것이다. 편지에도 박규식은 태만이 그동안 기술혁신을 하느라고 몹시 바쁘게 지내고 있다고 쓴 다음 실험실에서 일하고있는 허향숙이라고 하는 직장장동무의 딸과 여러 동무들이 이 일을 적극 돕고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썼었다...

《그러니까 나한테루 왔어야 할 전보가 향숙동무 앞으로 온걸 보면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닌것같소...》

박규식은 향숙이가 머리를 숙이며 얼굴이 제깎에 새빨개지는것을 지켜보며 즐겁게 웃었다.

바로 그 이튿날 오후에 조태만의 어머니가 제철소정문에 나타났다.

박규식은 조태만의 어머니를 초급당사무실로 데려오게 했다.

올해에 예순고개를 넘는다는 조태만의 어머니는 자나깨나 늘 맏아들만을 생각하고있었는데 그 아들이 좋은 일을 하고있다는 편지를 받자 불원천리하고 신의주에서 청진까지 이틀동안 왔다는 것이다.

《아이구, 이제 나이를 먹어놓으니 다니기 힘들구만. 그래두 내가 한사코 떠났수다. 내 먼저번 편지에도가두 썼지만 남들은 제대되자마자 휴가를 온다, 잔치를 한다구들 하는데 이건 무슨자식이 편지회답조차 하지 않으니 원... 아, 글썄 제가 해야 할 편지회답을 초급당비서어른이 하게했으니 내 참...》 하고 키가 작달막한 조태만의 어머니는 매듭진 손가락으로 반백이 된 머리 자꾸만 쓸어 넘기는것이였다. 그는 박규식을 자꾸

건너다보며 호소라도 하듯이 말을 이었다.

《사실상 사내나이 스물아홉이 이디 적소? 현대이건 장가갈 생각은 꿈에두 하지 않는것 같단말이웨다. 여기에 봐둔 체내가 있는지 원... 이거야 어디 속이 타서 살겠소?》

《허허... 어머니, 여기두 좋은 처녀들이 많습니다.》

《글썄 하긴 여기 함북도쪽 처녀들이 살림살이를 그렇게 알뜰하게 한다는데!... 좌우간 우리 애가 무슨 기술혁신을 하는데 필요하다구 해서 이런걸 가지구 왔습네다. 도움이 되겠는지 해서.》

조태만의 어머니는 공연히 신바람이 나서 보따리 풀어헤치고 명주실통구리를 끄집어내며 책상우에다 올려놓았다.

《아니, 이런걸 어떻게 다...》

《농장 트랙트르운전수를 하는 딸애가 초급당비서동지의 편지 두번세번씩이나 읽어보고 곰곰히 생각해보더니만 농작안에 있던 명주실통구리를 이 보따리에다 싸주면서 이제 오빠가 기술혁신을 하고 기대 다루는데 요긴하게 쓰일게라구 하질 않았겠소. 향숙이 앞으로 보낸 전보두 그 애가 직접 썼다우.》

《네- 그랬습니까! 정말 이 명주실은 아들이 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이는것입니다.》 하고 박규식은 어머니의 손을 두손으로 꼭 잡아주었다. 조태만이 언젠가 출선구착공기수리를 할 때마다 바킹이 마땅치 않아서 기름이 새어나온다고 혼자서 중얼거리던 소리를 들은적이 있는 박규식이였다.

그러나 그는 편지에 이런 말을 쓰지 않았다.

박규식은 종이장에 적혀져있는 글자 한자한자에 스며있는 뜻을 깊이 헤아려보는 혈육들의 심정과 명주실보따리를 가지고 천리가 넘는 길을 찾아온 소박한 어머니의 성의에 가슴이 젖어들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을 이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하는 심정으로 뜨겁게 대하였더라면 조태만이가 하는 기술혁신의 내용도, 허달수직장장에게 남아있는 부족점도 벌써 알아내었을것이며 도와주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도착하는 날 그 아들이 기술혁신을 완성했다는 속보를 써내붙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박규식은 갑자기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가 신호기를 성급하게 두드리며 직장장실을 찾고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였다. 박규식이 그 소리도 듣지 못하고 다시금 신호기를 두드리는데 등뒤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비서동무, 찾는 사람은 여기에 있수다, 허허...》

《?!...》

박규식은 송수화기를 든채 뒤를 돌아보았다.

《아, 영화상영때문에 이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

하구서 또 찾아요?》 하고 허달수는 의자를 끄집어내어 앉으며 말했다.

《허허… 자꾸만 보고싶어서 찾았수다. 자, 그런 그렁구. 여기에 누가 왔나 보십시오.》

《누가 오다니?》

이번에는 허달수가 박규식이처럼 뒤를 돌아다보았는데 때마침 찬찬히 여겨보는 조태만의 어머니와 눈길이 마주쳤다.

때를 같이하여 박규식이 먼저 조태만의 어머니에게 허달수직장장을 소개하고 이어서 허달수에게 어머니를 소개했다.

《직장장동무, 인사합소. 조태만동무의 어머니님이다.》

그러자 허달수가 미처 돌아다볼 사이도 없이 조태만의 어머니가 치마자락을 앞으로 감싸쥐며 일어났다.

《아니 그럼 우리 태만을 극성스레 도와주었다는 향숙이란 체네의 아버지 되시는…》

《아니, 아니 내 여기 직장장입니다.》 하고 허달수는 열결에 일어나며 본능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조태만의 어머니는 더 바투 다가왔으며 말을 이었다.

《그래, 그래 옹쇄다! 내가 멘바루 알아맞혔수다.

옛날부터 그 아버지에 그 자식이라구 아무려면 그렇게 행실이 바르고 남의 일에 말벗고 나서는 딸을 낳아 키운 직장장어른이야 우리 태만이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켜겠소! 정말 철없는것이 무슨 기술혁신을 한다구 했으니 직장장어른 속인들 오죽이나 태웠겠소… 에미루서 면목이 없수다.》

이때 박규식이 재빨리 응접탁우의 명주실통구리들을 허달수앞으로 밀어놓았다.

《운전공들이 기대보수때마다 귀중하게 쓰는 명주실바킹감을 이 어머니가 가져왔습니다.》

《예?!… 아 이거 참, 이런걸 어디서?…》

허달수는 더 말을 잊지 못하고 어쩔줄 몰라했다. 이 큰 공장에 그것이 없으랴만 아들이 하는 일에 자기 집의 성의도 함께 깃들어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그라고 왜 모르랴.

바로 이때 마치도 직장장을 구원하러 달려오기라도 하듯이 뜻밖에 조태만이 나타났다. 전야근 교대근무에 출근하던 조태만은 작업반휴계실마당에서 어머니가 오늘 낮차에 내리자마자 때마침 역앞에서 방송차를 만나서 타고 공장으로 직접 오게 되었으며 이어 초급당위원회사무실로 안내되어 들어 갔다는 소식을 듣자 가슴이 철렁하였던것이다. 공장물정을 모르는 어머니가 제철소구내로 직접 들어왔다는것부터가 그렇고, 제일 가슴에 쫓이는것은 아들을 잘 돌봐달라고 직장장을

만나 부탁하는 경우에는 일이 그닥 재미없게 되리라는 예감이였다. 그런데 바로 그 예감이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게 되자 조태만은 기가 막혀그만 그 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박규식이 일어나서 그들 모자를 판방으로 안내하지 않았더라면 조태만이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태만이와 그의 어머니를 안내하고 방안에 들어온 박규식은 다시 허달수와 마주앉았다.

방안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들이 마주하고 앉은 응접탁우에는 조태만의 어머니가 가지고 온 눈부신 명주실통구리가 놓여있었다.

《어머니의 성의를 받아줍시다. 이 명주실로 바킹을 하면 출선구착공기 유압관을 련결하는데 귀중히 쓰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실통구리를 뒤적거리며 마침내 박규식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귀중하지요…》

허달수는 그 마음이 귀중하다는 말을 이렇게 짹막하게 하면서 타래지어있는 새하얀 명주실묵음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왔다. 그러나 두사람은 다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

《직장장동무, 이따가 조태만동무의 어머니를 만나보십시오.》 하고 박규식이 이번에도 역시 먼저 말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태만의 어머니를 만나보겠습니까?》

《왜요?》

《…우리 향숙이나 만나보라구 하지요.》

《그래두 되지요.》

박규식은 웃다가 심각해진 허달수의 얼굴을 보고 입을 다물어버리였다. 아무리 심각한 일에 부닥쳐도 대범하게 룡담 절반, 추궁 절반으로 대하던 허달수의 달라진 얼굴을 박규식은 처음 보고 있었다.

《정말 사람이란 한몫으루 보지 말고 쇠물을 두세번 분석하듯이 지내보고 또 지내보아야지 그렇지 않다간 혁명과업에 큰 지장을 주겠수다!…》

허달수가 이렇게 말하자 박규식은 빛나는 눈길로 허달수를 마주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직장장동무, 제가 바란것이 바로 그것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꾼들모두가 가슴속깊이에 귀중히 간직해야 할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허달수의 목소리는 박규식의 목소리보다 몇배 더 절절하였다.

강철을 보내며

권강일

밀어낸 후관들
통구리 환강들
상기도 열기를 뿜는 기관들에
백목을 박아 나는 쓴다
《남포갑문으로》
《태천발전소로》

철의 구내를 뒤흔들며
철길이 휘도록
강철더미를 싣고 떠나는 화차들, 화차들
멀리 구배를 돌아 사라지는 기적소리는
보내는 내 마음
왜 이다지도 세차게 흔드는것인가

그리운 누가 있어
뜨거운 마음을 담아보내듯
어제도
오늘도
날마다 주소를 적어보내는 이 강철

불앞에서 흘린 땀이 쇠물로 고이는
그 힘겨웁던 날에도
대건설의 수없는 전선들이
이 철의 도시를 지켜보던 그날에도
조국이 부르는곳에
우리는 어김없이
이 강철의 주소를 써보냈나니

그 사랑과 공지로 하여
새로 일떠서는 거리를
내 얼마나 큰 흥분속에 걸었던가
뻗어가는 철길
그우에 달려오는 《붉은기》호의 기적소리
이 땅에 태어나고 솟아나는 그 모든것들을

내 얼마나 뜨겁게 안아보았던가
바람 찬 해변가의 조선소로
먼먼 기계공장으로
아버이수령님
현지지도의 끝없는 길을 이어가시면
우리는 마음속 뜨거운 불길을 더해
쇠물을 끓이고 또 끓이고...

드릴세라
강재 강재를
화차가 휘도록 실어보내면
거기에 시대의 기념비는 솟아오르고
그 기쁨을 안아 보내고 또 보내면
조국은 더 높이 비약의 나래를 펴고...

강철로 조국을 섬기고
강철로
아버이수령님 밝히신 주체위업을
이 땅우에 펼쳐가는 이 보람

강철이여, 강철이여
이 땅에 펼쳐질 크나큰 행복의 무게를 싣고
당이 부르는곳
조국이 부르는곳으로
이 땅의 한끝까지 실려가라

그러면 나는 읽으리라
주체위업의 대전성기를 부르며
솟아나고 솟아나는 조국의 모습속에서
청춘의 열정을 다바쳐
이렇게 날마다 떠나보낸
나의 강철을! 나의 기쁨을!

따뜻한 계절

김재규

1

유정희는 두툼한 편지를 다 써놓고나서 잠시 망설였다.

세번째 쓴 편지였다. 두번씩이나 체신소앞에까지 갔다가 끝내 편지를 부치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다. 이번에도 그는 편지를 다 써놓고 자리에서 일어서기는 하였으나 발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왜 이렇게 망설이게 되는지? 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지?...

유정희는 오래도록 책상앞에 서있었다.

의학과학원에서 일하고있는 애인이 자기의 마음을 것처럼 휘어잡는것은 단순히 그가 가지고있는 시대를 받아안은 비범한 열정때문만이 아니었다.

대학동창시절에 맺어진 우정, 과학탐구의 길에서의 남다른 학구력, 그의 강의한 의지, 높은 정신력, 남아다운 성격, 다정다감한 인간미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한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 깊은곳을 점령당했던것이다.

마음은 사정없이 그리로 쏠렸었다.

그런속에서 시간이 흘러 인젠 약혼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약혼을 앞두고 늙으신 시부모들을 뵈오려 평양으로 오라는 편지가 여러번 오기까지 했었다.

오랜 생각끝에 벌써 세번째나 편지를 쓴것인데 떠나겠다는 날자를 종잡지 못하여 이렇듯 망설이고있는것이다.

연구실장은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일인데 어서 갔다오라고 권유하는것이였으나 유정희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할 한 환자의 담당연구사로서, 의료일군으로서의 본분이 발목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그의 량심이였으며 리성이기도 하였다.

마음은 사정없이 새생활이 시작될 그곳으로 달리는것이였으나 유정희는 그것이 립상연구사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마음을 달래여나갔다.

그러자니 마음은 한없이 번져로왔다.

유정희는 착잡해지는 번민의 심연속에서 벗어나려고 세번째로 써놓은 편지마저도 한쪽옆에 밀어 놓고 며칠전부터 온 심혼을 쏟아부어오던 한 화상환자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달포전에 연구대상으로 입소시킨 환자의 중학교동창생들속에 서있는 사진이였다.

그는 사진에서 줄곧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아무리 사진을 들여다보아도 바라는것은 찾을

수가 없었다.

얼굴의 룰판도 이마와 눈언저리의 모습도 량쪽 볼과 코마루의 곡선도 희미하였다.

끝없는 사색을 이어나가는 유정희의 얼굴에 차츰 그늘이 짙어갔다.

흘러내리는 한오리의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던 연구사는 지친듯 자리에서 힘없이 일어섰다.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연구소의 아늑한 정원은 따스한 봄별에 한껏 무르녹고있었다.

만가지 꽃들이 다시 소생하여 땅울을 터치고있었다.

한그루의 소담한 흰장미가 활짝 피어서 외과병동에 온통 달콤한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거기서 벌들이 울고나비들이 날고있었다.

유정희는 정원이 넘치도록 향기를 뿌리고있는 흰장미에 눈길을 세우고 그것을 흘린듯이 바라보았다.

유정희는 마치도 자기가 따뜻한 계절을 모르고사는 연구사처럼 부끄럽게 여겨져 꽃을 외면하며 돌아섰다.

맑은 샘물에서 방금 건져올린 조약돌처럼 청신하고 정결하게 생긴 립상연구사 유정희가 어찌하여 녀성연구사들에게 잘 어울리는 소아과나 내과를 택하지 않고 하릴 사람들의 살을 베고 뼈를 깎는 외과부문의 연구를 담당하여 고심을 하고있는지 그의 속깊은 마음을 아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다.

다만 정기가 흐르는 다정한 눈을 검은 눈섭속에 감추고 전공하는 연부성형술의 완성을 위한 탐구사업에 전념하고있는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 직업에 애착을 느끼고 거기에 투신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엿볼수 있을뿐이였다.

유정희는 여전히 사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방안을 천천히 거닐며 사진속의 환자의 얼굴을 더듬는 유정희의 얼굴에 한가닥 짙은 우수가 구름처럼 번져져갔다.

그는 다시 책상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시간가는줄 모르고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탐구의 세계로 달리고있는 유정희의 모습에서는 반드시 수술방도를 찾고야말겠다는 연구사로서의 자세가 엿보였다.

처녀로서 알맞춤한 키와 호리호리한 몸에 백설같이 흰 위생복을 단정하게 해입고 머리우에 주름이 곱게 잡힌 위생모를 꼭 눌러쓴 그의 모습은

학위론문을 완성단계에서 다그치고있는 녀성 연구사로서의 위엄이 흐르고 한생을 환자들을 위하여 복무하겠다는것을 세상에 대고 선포라도 하는 듯 너무나도 잘 어울리었다.

위생복에 가리운 그의 가슴속에는 바다가 들어 앉은듯 마음은 하얗고 넓었고 출렁이는 파도처럼 항시 지칠줄을 모르는 정력을 지니고 치료연구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는 자기 연구의 마지막 실마리를 기어코 한 장의 사진에서 찾으려고 깊은 사색의 바다속을 헤매이며 좀처럼 연구실에서 나올줄 몰랐다.

마치도 온 녀를 거기에 바치고있는상싶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얼굴에 험상스러운 화상을 당한 환자의 상처에서 본래의 모습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아무리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정성이 지극하고 기술이 높아도 상처속에 가리운 환자의 부상당하기전의 모습을 모르고서는 본래대로의 완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던것이다.

그래서 환자가 부상당하기전의 사진을 구해다 놓고 그토록 세심한 관찰을 하고있는 유정희였다.

림선화가 전쟁전 학급동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얼굴이 작는데다가 색깔마저 날아서 본래의 모습을 알아볼수가 없었다.

림선화환자가 입소한지 벌써 달포가 지났으나 아직 이렇다할 수술방도를 찾지 못하고있는 유정희였다.

한장의 사진앞에서 골똘하던 연구사의 눈앞에 얼마전에 있었던 일이 펼쳐졌다.

…림선화가 입소한지 일주일이 되는 날 아침이었다.

연구사는 조심스럽게 선화환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동안 종합적인 진단도 하였고 각종 검사도 다 진행하여 상처의 진상을 대체로 파악한터이라 환자의 기본상태를 가늠하며 그의 곁으로 걸어갔다.

봄벌이 무르녹는 창문쪽을 향해 앉아서 소설책에 정신을 팔고있던 선화환자는 담당연구사를 향해 가볍게 눈인사를 하고는 다시 책의 글줄에 눈길을 박았다.

눈인사를 받으며 환자의 곁으로 다가가던 유정희는 어딘지 모르게 변모된 방안의 모습을 몸으로 가늠하며 침대곁에 놓여있는 의자에 가앉았다.

그리고 다시한번 방안을 둘러보았다. 한쪽벽에 걸려있던 거울에 깨끗한 보가 드리워있었던것이 다.

유정희는 의아한 눈길로 그쪽을 바라보다가 환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기분이 어떠세요?》

유정희는 화상을 당하여 허물이 간 환자의 손

을 꼭 잡아주었다.

환자를 방문할 때마다 언제나 던지는 범상한 말이지는 하였으나 연구사는 지금 전혀 다른 의미에서 묻는것이였다.

활짝 꽃피어야 할 얼굴에 험상스러운 화상을 입어 심한 반흔이 생긴데다가 뺨측까지 온 환자의 얼굴모습을 보며 연구사로서의 심정을 초월하여 동년배치녀로서의 런던의 정까지 담아서 던진 말이였다.

《그저 그렇지요 뭐…》

깊은 우수가 드리워있는 환자의 눈에 구름이 비껴있는듯싶었다.

마음의 괴로움을 잊으려고 소설의 세계속에 살다싶이하는 환자의 심정을 벌써부터 감촉해온 유정희였다.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유정희는 간절한 호소가 담긴 말을 건넨면서도 환자의 얼굴에서 줄곧 시선을 떼지 못하였다.

《뭘데요? 말씀하세요.》

짧게 대답하는 선화는 여전히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

《혹시 전쟁전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있는것이 없는지.》

유정희의 눈은 환자에게 바치려는 한가닥 열망에 불타고있었다.

《사진이요?》

선화는 낮색을 붉히며 도리를 흔들었다.

《그래요. 부상당하기전에 찍은 사진이면 아무거나 돼요.》

유정희는 돌변하는 환자의 얼굴색갈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물었다.

《몇장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다 없어버렸어요. 우리 나라의 현대의학기술로서는 저의 얼굴을 고칠수 없다는 결론이 내렸을 때 저는 그 사진들을 더는 보기가 괴로웠어요, 그래서…》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환자의 눈길은 어느덧 보가 썩여져있는 거울에 가 머무른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유정희의 눈길도 환자의 눈길과 함께 거기서 굳어졌다.

그제서야 유정희는 방안에 걸려있던 거울에 비치는 자기의 얼굴조차도 보기가 괴로와 거울에 흰 보를 씌워놓았을 림선화의 심정을 깨닫고 새삼스럽게 놀랐다.

《…………》

한동안 묵묵히 앉아있는 유정희의 눈에도 한점의 그늘이 덮이였다. 그의 가슴에 한조각의 검은 구름이 떠돌기 시작하였다.

연구사는 더는 환자의 곁에 앉아있지 못하고 머리를 숙인채 쫓기듯 거기서 나왔다.

자기 방에 돌아와서도 그는 환자의 괴로운 심정을 헤아리며 오래도록 창가에서 떠나질 못했었

다.

그후 유정희는 환자의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내어 중학교시절에 학급동무들속에 서 있는 선화의 사진을 겨우 구했던것이다...

그러나 이 사진마저도 쓸모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였을 때 연구사의 마음은 피로왔다.

유정희의 사색은 깊어만갔다.

2

유정희는 뻘람을 열고 립선화의 병력서를 찾다가 자기가 오늘까지 부치지 못하고있는 세통의 편지를 발견한 순간 섬찝해지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가슴이 번거로울수록 더 역세게 일감을 잡고 일해온 유정희였다.

돌이켜보면 정말 이 편지를 부치지 않은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몰랐다.

편지들을 부쳤다면 어떻게 될번 하였던가.

온 사회가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결정정신을 높이 받들고 천리마를 탄 기세드높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피워올리고있는 장엄한 시대앞에 우리 보건일군들이 서야 할 자세는 과연 어떠한가 하겠는가.

이 시대의 엄숙한 물음앞에 우리 보건일군들이 무엇으로 대답해야 하겠는가.

어느 한 개인의 안락과 행복만을 바랄수 있는가.

모든것의 주인은 사람이고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하며 모든것은 사람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사람중심의 주체철학이 명시한 길에서 인간생명의 기사인 우리 보건일군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실로 중대하다.

이 중대한 시대적사명감앞에서 유정희는 자기를 너무나도 똑똑히 들여다보았던것이다.

정녕 환자들에게 바치는 의사나 립상연구사들의 정성의 감정이란 이처럼 숭고하고 중대한것이 아니었던가. 그것이 숭고하고 중대하기에 의사와 환자들 사이에 뜨겁고 아름다운 감정만이 오가고있는것이다.

그러기에 오늘도 유정희는 한장의 사진에 그토록 온 심혼을 바쳐오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착잡한 생각을 이어나가던 유정희는 가슴속의 번거로운 마음을 지워버리리라 마음먹고 편지들을 서류함 깊은 구석에 집어넣었다.

그러나 애인에게로 쏠리는 처녀의 가슴에 자리잡았던 감정은 좀처럼 누르기가 쉽지 않았다.

유정희는 그 가슴을 부여안고 연구사업을 밀고나갔다.

사진을 다시 10배로 확대해보았다.

마찬가지였다. 눈언저리의 룬팍도 두볼과 코마루의 곡선도 다 희미하였다.

유정희는 실망하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환자에게 바치는 연구사의

정성이 이것이 다란말인가?)

그는 무거운 걸음으로 자기 방에서 나왔다.

정원을 거닐었다. 다른 방도를 모색해보았다.

신통한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정원에 활짝 핀 흰장미가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자기를 향해 비웃는상싶었다.

더는 정원에 서있기조차 피로왔다.

병동안으로 들어서는 유정희의 발걸은 자기도 모르게 선화의 방으로 옮겨졌다.

선화는 창문쪽으로 돌아앉아서 뜨개질에 여념이 없었다.

그는 자기 방에 사람이 들어서는것도 감촉하지 못하는상싶었다.

유정희는 발굽을 세우고 조용히 환자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뜨개질에 정신을 팔고있는 선화의 허물이 간 손등을 이윽도록 내려다보고 서있다가 앉으며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아이 깜짝이야, 기척도 없이.》

선화는 그 고운 눈매를 흘리며 유정희를 마주보았다. 얼굴은 비록 험해졌어도 눈매만은 아름답다웠다. 극악한 원수들도 그의 눈매만은 빼앗지 못한것이였다.

《선화동무는 손재간이 여간 아니구만요.》

연구사는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며 본의 아닌 말을 건넸다.

《손재간이나 좋아서 뭘하겠어요.》

환자는 일손을 놓고 창문밖을 내다보며 서글픈 어조로 말했다. 그의 빛나는 눈에 한가닥 구름이 지나갔다.

립선화는 무중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상두대의 뻘람을 열고 거기서 이미 준비해놓았던 종이꾸레미를 꺼내들었다.

《정희선생님.》

환자는 유정희가 자기 나이또래의 처녀이기는 하나 항상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유정희는 그것이 거북하기는 하였으나 연구소안이라는것을 고려하여 그냥 받아주곤하였다.

《정희선생님, 달리 생각하지 말구 이걸 받아주세요. 오래지 않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는데 필요할거예요.》

환자는 행복이라는 두 글자에 힘을 주어 말하며 종이꾸레미를 유정희의 무릎우에 올려놓았다.

《아이 망칙해라. 가정은 무슨 가정...그것이 뭘데요?》

《선생님두, 내 다 들었어요.》

선화의 눈은 능청스럽게 빛나고있었다.

유정희는 서둘러 그것을 헤쳐보았다.

책상보와 이불보, 재봉기보 등속이였다.

유정희는 못볼것을 본 사람처럼 흠칫 놀라며 검은 속눈섭을 치며올리는 선화를 마주보았다.

임소한 그날부터 쉬지 않고 째깍이 뜨개질을 하더니 이런 일을 해놓은것이였다.

《아니? 이거야 선화동무한테 필요할텐데 어서 간수하세요.》

유정희는 도리를 치며 사양하였다.

가슴에 넘치도록 고마운 일이기는 하였으나 동년배처녀로서 남에게 이런 선심을 쓴다는것은 실로 놀라운 사실이었다.

《선생님, 받아주세요. 저한테는 필요없어요. 꽃이 고와야 나비들도 날아올게 아니겠어요. 정희 선생님한테야 얼마든지... 그렇지 않아요.》

선화는 가슴에서 솟구쳐오르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혼연스럽게 말하고 꾸레미를 기어코 정희의 무릎우에 밀어놓았다.

《네?! 선화동무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유정희는 놀라왔다. 처녀로서 자기 존재를 다 잃어버린 그의 속깊은 말앞에서 림상연구사로서의 유정희는 낯색부터 창백해졌다.

안겨주는 종이꾸레미가 단순히 선심을 쓰는 물건이 아니라 마치도 자기의 가슴에 던지는 폭탄파도 같이 안겨왔던것이다.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다.

유정희는 꾸레미를 뿌리치듯 선화의 가슴에 되안기며 잠시 눈길을 피해 외면하였다가 가까스로 다음 말을 꺼냈다.

《선화동무, 동무는 그 얼굴을 고치자고 우리 연구소에 온게 아니예요.》

유정희는 선화의 두손을 꼭 그러쥐고 마구 흔들었다.

《정희선생님, 그런 말 마세요. 저는 이미 단념한지 오래요. 한때는 희망을 안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종이꾸레미를 유정희에게 다시 안기는 선화는 종당 눈을 내리깔고야말았다.

《네!? 어쩌면 그런?...》

유정희는 환자가 서슴없이 던지는 의미깊은 말에 더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한동안 그의 얼굴만 쳐다보고있었다.

오랜 세월 얼굴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받아온 선화의 속심정이 그대로 안겨왔다.

무릇 자기 몸에 받은 상처를 두고 고민을 하지 않는 환자들이 있으랴만 선화가 저렇게까지 자기를 포기하였을줄은 몰랐다.

유정희는 선화의 얼굴을 건너다보았다. 불꽃이 튀는듯한 선화의 눈은 곁에 놓여있는 한두권의 서적에 머물고있었다.

유정희는 그의 눈길을 따라 책들에 시선을 주었다.

《약전공학》이었다. 펼쳐놓은 책장의 글줄마다에는 빨간 밑줄을 그어가면서 탐독한 자취가 어리여있었다. 그리고 그 책결에 놓여있는 한권의 노트에 각종 선과 점, 원으로 이루어진 설계략도들과 구성안들이 적혀있었다.

《이건 뭐예요?》

유정희의 눈초리는 의혹으로 떨었다.

《선생님, 전 전선에 있을 때 통신병을 하였어요. 제가 이제 사회를 위해서 복무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길이... 앞으로 우리 나라의 통신망은 지금보다 비할바없이 발전할거예요.》

림선화는 나직한 목소리로 도란도란 말했다.

《그래요!》

유정희는 놀라왔다.

그처럼 그들이 덮인 선화의 가슴에 전쟁시기 조국의 영예를 지켜싸웠던 그 의지, 그 신념이 식지않고 도도히 태동하고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의 지향을 실현시켜주기 위하여 그에게 인간의 참된 삶과 기쁨, 행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싸워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유정희는 꾸레미를 선화의 무릎우에 올려놓았다.

《나는 못받겠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받겠어요. 선화동무의 소원을 아직 풀어주지 못한 제가 아니예요.》

유정희는 자기 울분에 차서 말하였다.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것만 같았다.

유정희는 창문쪽으로 돌아섰다.

(아 내가 왜 의술을 배웠던가. 저런 아픈 마음을 풀어주지 못할바에야 뭇하러 의사의 직업을 택했던가?... 내가 의사가 아니였던들 이렇게까지 가슴아픈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것이 아닌가...)

그는 비수를 박은것 같은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모지름을 썼다.

그렇다. 조국은 미제놈들이 일으킨 3년간의 전쟁으로 하여 아픈 상처를 입었다. 조국이 상처를 입듯이 사람들도 상처를 입었다. 전쟁이 끝난후 조국은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 일떠서고있으나 선화는 저렇듯 오늘까지 무서운 상처를 그대로 안은채로 있는것이다. 자기의 얼굴을 더는 보기가 괴롭다고 전쟁전에 찍은 사진을 모조리 없애버렸고, 병실에 걸려있는 거울에 흰보까지 가리워놓고있지 않는가.

쉬지 않고 뜨개질을 해서 만든 결혼지참품마저도 고스란히 남에게 넘겨주고있다.

유정희는 찢어지는것 같은 가슴에 손을 얹으며 선화의 얼굴을 다시한번 마주보았다.

질은 그늘에 덮여있는 선화의 얼굴은 어느덧 두줄기 이슬발에 축축히 젖어있었다. 그러나 그의 빛을 뿌리는 눈만은 여전히 생기를 띠고있었다.

선화는 유정희에게 호소하듯 열렬하게 말을 이었다.

《선생님, 제발 저의 심정을 받아주세요. 저는 비록 이렇게 되었지만 남들의 밝은 웃음을 보고 기쁨을 느낄줄은 압니다. 저는 행복을 바랄수 없지만 남들의 행복을 축복해줄줄도 압니다.

지난 전쟁시기 우리의 영웅전사들이 줄폭탄속

으로 뛰어든것도 다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도 그 궁지만은 소중히 간직하고있어요. 저의 축복을 받아주세요. 네!》

《…………》

유정희는 아무런 대답도 못했다. 할 말이 없었다.

유정희는 환자앞에 죄를 진것 같이 마음이 무거웠다. 더는 선화앞에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선화동무, 제발 저의 이 피로운 심정을 이해해주세요. 저는 정말 그것을 받을수 없어요. 그 대신 그 어떤 일이라도 다 들어줄수 있어요. 피로움을 꼭 씻어 주어야말겠어요.》

유정희는 종당 방에서 나오고야말았다. 자기 방에 돌아와서도 유정희는 방안에서 서성거리며 잠시도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였다.

3

락동강너머 불타는 고지 룡선을 활는 불길, 하늘을 덮는 불구름, 귀전을 스치는 총포탄…

그속에서 전파를 날리는 무전수의 모습이 유정희의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후퇴의 마지막 순간까지 연합부대와와의 통신을 보장하다가 무전기의 전선을 잡은채 쓰러졌던 림선화무전수!

땅이 뒤집히고 온몸이 불길에 휩싸여있었으나 전선만은 끝내 놓지 않았다.

종당 전투임무를 수행하고서야 그 자리에 쓰러진채 의식을 잃었었다.

얼마나 용감하고 슬기로운 투쟁이었던가!

비록 얼굴모습은 험상궂게 되기는 하였지만 그 모습을 어찌 험상궂다고만 하랴!

전쟁을 이겨내고 천리마로 달리는 현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떠받들고 찬양해야 할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선화는 저렇게 되였는가.

다음순간 유정희는 선화의 눈에서 반짝이던 한줄기의 불꽃을 그려보았다.

선화는 그가 당한 처지를 초월하여 날로 행복해져가는 우리 인민들의 얼굴을 보고 기뻐할줄 알았고 뜨개질을 해서 남이 향유할 행복을 축복해줄줄 알았다.

그렇다! 그 불꽃이 귀중하다. 그의 한줄기 불꽃에 그의 생의 미래가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그 불꽃에 불을 달아주어야 한다.

유정희는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선화의 가슴에 번쩍이는 불꽃을 들여다본 유정희의 가슴은 끓어올랐다.

단순히 실망만이 있는것이 아니였다.

더 귀중한것이 그의 가슴에서 태동하고있는것이었다.

그것이다. 거기에 연구사의 힘이 가해진다면 무엇이 무서우랴…

한시바빠 선화를 만나고싶었다. 힘을 합치고싶

어졌다.

유정희는 어느새 자기가 선화의 방에 들어섰는지도 몰랐다.

선화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서 따뜻한 봄볕이 흘러드는 정원을 묵묵히 내다보고있었다.

환자에게 다가간 유정희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힘주어 흔들었다.

《어쩌면 동무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할수 있어요?》

유정희의 격한 목소리는 갈리고있었다.

《…………》

창문쪽에서 얼굴을 돌리는 선화의 눈언저리는 축축히 젖어있었다.

유정희는 환자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울분에 찬 어조로 말을 이었다.

《동무의 그 상처가 어디 선화동무 개인을 위해서 싸우다가 받은거예요? 조국과 인민 앞에 얼마나 땀뻑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러기에 온 나라가 동무를 떠받들고있고 우리 집단이 기어코 동무의 얼굴을 고쳐주려고 이처럼 애쓰고있는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동무는 무슨 그런 생각을 하고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밝은 웃음을 보고 기쁨을 느끼고 자기자신이 아니라 남의 행복을 축복해줄줄 아는 그것은 더없이 귀중한거예요. <약전공학>을 보며 가슴속에 미래의 꿈을 키우는 것은 더더욱 훌륭한 일이에요.》

선화의 무릎우에 두손을 얹은채 웨치듯이 말하는 유정희의 눈은 열기에 차있었다.

《아니예요. 선생님은 저의 심정을 다는 몰라요.

선생님이 하는 그런 말은 벌써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다…》

선화는 그만 유정희의 무릎우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흔들기 시작하였다.

자기의 얼굴을 고쳐주겠다고 나섰던 많은 의사들이 레외없이 자기결에서 손을 놓고 물러섰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였다.

선화의 그런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유정희는 더는 말없이 그의 어깨우에 손을 얹고 가볍게 쓸어내렸다.

자기도 전철을 밟은 그런 의사들처럼 되지 않을까?

유정희는 이런 생각이 바이 없는것은 아니여서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유정희는 꼭 그의 얼굴을 고쳐주리라던 자기의 초지를 되새겼다.

《선화동무, 그건 동무의 속단이에요. 우리 집단을 믿어주세요. 그리구 힘을 합해보자요.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세요 네! 그리구 저를 좀 도와주세요.》

달래듯 호소하듯 말하는 유정희의 목소리에는 기어이 고치고야말리라는 진정이 담겨져있었다.

《선생님! 고마와요. 제가 잘못하였어요.》
얼굴을 다시 드는 환자의 눈언저리는 함뿍 젖어 있었다.

《좋아요. 우리 서로 힘을 모아보지요. 그런데 선화동무, 저의 부탁을 하나 꼭 들어주어야겠어요.》

《무슨?...》

선화는 젖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전쟁전에 찍은 사진이 정말 한장도 없어요?》

얼마전에 질문했던 그 말이었다.

자기의 경험으로 보아 처녀들이 청춘시절에 찍은 사진은 몽땅 없앨수 없다고 인정하고있는 유정희였던것이다.

《.....》

선화는 대답이 없이 머리를 숙인채 뜨개질만 만지작거리고있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사진만 있으면 꼭 그 모습대로 고쳐주겠어요. 연구사가 아무리 열성이 있는들 뭘하겠어요. 환자들이 힘을 합쳐주지 않으면...

나는 선화동무에게 영원히 간직하고있는 사진이 있을것만 같이 생각되요. 그렇지요 네?!》

유정희는 환자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

선화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자 어서 부탁이에요.》

《.....》

선화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한동안 말없이 유정희의 얼굴만 쳐다보고있더니 이윽하여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벽쪽으로 돌아서서 가슴속깊이에 간직해두었던 한장의 사진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보지도 않고 유정희앞에 내밀었다.

《정희선생님 미안해요.》

사진을 내미는 선화의 상처받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갱게 물들었다.

《고마와요.》

유정희는 반가움에 자기를 잊어버리고 환자의 손을 덥석 잡으며 사진을 받아들였다.

순간 유정희의 뇌리에는 자기의 옛얼굴을 다시는 보고싶지 않아서 사진을 다 없애버렸다고 하던 선화의 말이 떠올랐다.

유정희는 사진을 차마 선화앞에서 볼수가 없었다.

《고마와요. 정말 고마와요.》

유정희는 끝내 사진을 그 자리에서 보지 못하고 위생복주머니에 넣고나서 인차 그의 방에서 나왔다. 그리고는 허둥지둥 자기 방으로 걸음을 다그쳤다.

방에 들어서기가 바쁘게 그는 사진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흘린듯이 사진에 눈길을 모았다.

군복을 입었으나 군모를 벗은 단발머리처녀 림선화의 얼굴모습이 유정희의 눈에 해불처럼 안겨왔다. 그의 곁에 중위견장을 단 한 군관이 서있었다.

(녀자들에게는 다 자기나름의 비밀이 있는것처럼 선화에게도 다정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사진을 내놓기를 주저했었구나... 그런데 아직도...)

이런 생각이 유정희의 머리에 번개처럼 지나갔다.

선화의 모습은 유정희의 두 동공속에 영화의 화면처럼 확대되면서 비쳐들어왔다.

눈언저리와 코날의 뚜렷한 곡선, 그런듯이 고운 검은 눈썹, 얼굴전체에 흐르는 탄력있는 균형미, 왼쪽 코날개밑에 박혀있는 검은 기미...

모든것이 선명하였다.

유정희의 얼굴에 기쁨이 강물처럼 물결쳐지나갔다.

유정희는 가슴에 환희감을 안고 선화의 곁에 서있는 중위견장을 단 군관에게 눈길을 세웠다.

순간 유정희의 눈길은 한점에 못박히고 거기서 움직일줄을 몰랐다.

이윽하여 그의 눈길은 바르르 떨더니 다음 찰나 화등잔처럼 커졌다.

유정희는 자기의 눈을 의심하며 사진에 열기찬 눈총을 쏘았다. 군관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1년전에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 다리를 완전히 고쳐준 김형민의 얼굴이었다.

유정희는 한동안 그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이들은 이런 사이였구나...)

유정희의 눈은 빛나기 시작하였다.

수술방도를 모색해나갔다. 밤이 깊어가는줄도 날이 밝는줄도 몰랐다.

선화의 얼굴을 10배로 확대하여 5매의 사진을 뽑았다.

다음날 유정희는 선화가 준 사진을 들고 그의 방으로 찾아들어갔다.

《선화동무! 댔어요. 이 사진이면 되겠어요. 이 사진은 전선에서 찍은거예요?》

유정희는 성공의 고리를 찾기도 한듯 기뻐하였다.

《그래요. 락동강계선에서... 전선신문사 기자동무가 취재하러 나왔다가 기념으로...》

그때를 회상하는 선화의 눈은 밝게 웃고있었다.

《그래요.》

유정희는 돌이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보면서 다시 그를 마주보았다.

《이 군관동무는 누구예요?》

유정희의 목소리는 다정스러웠다.

《.....》

선화는 얼굴에 모닥불을 뒤집어쓴듯 붉히더니 끝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리를 수그리었다. 유정희는 그 사진에서 여전히 눈길을 땔줄 몰랐다. 보면볼수록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다.

《애인이예요?》

유정희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새어나갔다.

《…………》

선화는 몸돌바를 몰라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창가로 걸어가었다.

봄볕에 무르녹은 정원을 내다보는 선화의 얼굴에 한가닥 희망의 빛이 물결쳐 지나가는듯싶었다.

그러나 그 희망에 넘친 빛은 순간에 사라지고 다시 그들이 지나가는것을 유정희는 놓치지 않았다.

유정희는 더 묻지 않았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뒤에 유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선화에게로 다가갔다.

《이름은 뭐예요?》

유정희는 자기의 추측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다시 물었다.

《김형민이라고 했어요.》

선화는 여전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대답했다.

《김형민?》

유정희는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 이름을 되뇌었다.

순간 유정희는 그 어떤 환희로운 충격을 받듯 가슴에서 기쁨이 물결쳤다.

어느덧 유정희의 눈앞에는 연구소에 입소했던 김형민을 담당하여 여러번 수술도 해주고 정성껏 치료도 해주던 시기와 그후의 잊혀지지 않는 나날들이 흘러갔다.

김형민은 전쟁시기에 부상을 당했던 다리의 상처가 다시 도지여 재작년에 연구소에 입소했었다. 그를 담당하여 치료해주는 과정에 그들은 깊이 알게 되었었다.

퇴소한 후에도 신세를 잊을수 없다고 여러번 찾아왔었다. 그때마다 정희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다정하게 이야기도 나누었었다.

김형민은 전선에 있을 때 자기에게 애인이 있었노라고 하였다. 그런데 적후에서 불의에 조우한 적들과의 전투가 있은후 전혀 소식을 모른다고 하였다.

전후에 한 전우에게서 그 여자가 적후의 그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슬픈 소식을 받았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혹시나 해서 오늘까지 그 여자를 기다린다고 하였다.

그 여자이상 자기의 마음속깊이에 자리잡고있는 여자는 이 세상에 없을것 같다고 하였었다.

그때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정희는 못내 감탄했었다.

얼마나 사랑이 열렬했으면 오늘까지 미련을 가

지고 기다리고있을가?

정희는 김형민을 존경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그 여자가 지금이라도 나타나기만 하면 얼마나 좋으랴 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바랐었다.

김형민에 대한 수차례에 걸치는 수술과정에 그 어려운 고비를 곳곳이 이겨나가던 그의 강의한 의지와 높은 정신력에 감동되었었다.

1년이라는 입원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도립도서관과 연계를 취하여 수십권의 과학서적을 대여해다 침대맡에 쌓아놓고 그것을 밤새워 독파하여 현대과학의 높은 명마루로 한발한발 톱아오르던 그의 가룩한 모습에 감탄했었다.

비록 몸은 건강하지 못하여도 그의 높은 지성과 인간됨이 정희의 마음을 사로잡았었다.

그러다가 도일보에 발표된 김형민이 탐구하여 성공한 과학기술적성과를 소개한 기사와 그의 사진을 본 순간 정희의 마음은 형언할수 없이 기뻐었다.

김형민이 립상연구소의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렇게도 정열적으로 과학서적들을 탐독하던 일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안겨왔다.

유정희와 김형민과의 우정은 이렇게 깊어갔었다.

그런데 오늘 천만뜻밖에도 립선화가 가슴속깊이에 간직하고있던 사진에서 김형민의 얼굴을 본 것이었다.

사진에서 김형민과의 관계를 알게 된 유정희의 가슴은 기쁨으로 설레었다.

그가 립선화의 애인이라는것을 짐작하게 되었을 때 더더욱 기뻐다.

유리창으로 흘러드는 봄볕이 그의 손에서 떨고있는 사진을 불그레 물들였다.

《선화동무, 사진을 받으세요.》

유정희는 둘이서 찍은 사진을 돌려주며 한마디 하고는 창가로 걸어가었다.

따스한 봄볕에 푸르러가는 대지가 한눈에 안겨왔다.

겨우내 모친 추위와 눈바람 속에서 죽은듯싶었던 정원의 나무아지들에 물이 오르고 다시 소생하는 자연현상이 그에게는 새삼스러운 의미로 안겨왔다.

죽지 않고 살아서 때가 오면 다 저렇게 소생하여 다시 만나게 되는것은 자연의 법칙일것이다.

김형민과 립선화들을 생각하는 유정희의 가슴은 마냥 부풀어올랐다.

그는 방에서 나왔다.

자기 방에 들어선 정희는 곧 옷을 갈아입고 밖에 나섰다. 거리로 나갔다. 남의 기쁨을 곧 자기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유정희는 행방없이 걷고 싶었다. 싱그러운 강바람이 불어와서 확확 달아오르는 얼굴을 어루만지고있는것을 느꼈을 때에야 그는 자기가 지금 강가에 나섰다는것을 알았

다. 휘늘어진 버들가지들이 강물에 드리워 쉬임 없이 흐느적이는 기슭을 거닐었다.

그러다가 언제인가 회복기에 들어선 김형민이와 같이 이 강가를 거닐다가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기를 나누던 긴의자앞에서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그날 이 의자에 앉아서 서로 주고받던 동지애에 넘친 이야기들도 떠올랐다.

의자걸을 떠나지 못하고 그 번두리를 천천히 거닐었다.

잊을수 없는 추억을 더듬는 유정희의 뇌리속에 문득 총포탄이 울던 남해 전선의 어느 한 야전병원으로 담가에 실려들어왔던 한 나 어린 전사를 끝내 구원하지 못하고 눈을 감겨주던 일이 삼삼해왔다.

나 어린 전사는 다리에 심한 관통상을 입었었다. 부상병은 의식을 잃고있었다. 치명상이었다. 외과 군의들이 달려와서 2시간동안이나 긴장한 전투를 벌였으나 허사였다. 나 어린 전사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나 어린 전사의 희생앞에서 유정희는 너무나 억이 막혀 눈물 한방울 흘리지 못하였다.

심한 부상을 당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전사를 구원하지는 못하였지만 유정희는 그것이 어쩔지 자기의 기술과 정성이 부족하였기때문이라고만 생각되면서 못내 자신을 통탄했었다.

(아, 의사로서 동생과 같은 나 어린 전사 하나 구원하지 못하다니?...)

유정희는 눈앞에 얼른거리는 나 어린 전사의 모습을 눈물로써 밀어버리며 오늘까지 외과수술수기의 편마에 전심하였다. 그런데 오늘 천만뜻밖에도 전화의 나날 시련의 언덕을 같이 넘어온 김형민과 림선화들의 기막힌 사연을 대하게 될줄이야...

남해전선에서 그 나 어린 전사는 비록 구원하지 못하였지만 그동안 사선을 넘고 시련의 언덕을 넘어 오늘 다시 만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무엇을 아끼랴...

전선을 휩쓰는 초연속에서 비록 녀성의 몸이기는 하지만 기어이 유능한 외과의사가 되리라는 결심품고 나섰던 내가 아니었던가!

나라는 개인이 무엇인가? 세상에 의사로 태어난 몸, 어버이수령님께서 지펴주신 공산주의적인 간애의 숭고한 리념의 기발을 높이 든 우리들이 아닌가!

그런데 김형민이 지금 선화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가? 그래도 형민은 전선에서의 그 시절처럼 선화를 사랑할것이다. 더 열렬하게 사랑하게 해주어야 한다.

여기에 바로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있지 않는가.

예와 같이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하도록 선화의

얼굴을 본래대로 고쳐주어야 한다.

여기까지 결심을 다지고난 유정희의 가슴은 마냥 부풀어올랐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수 없었다.

선화의 부상당하기전 사진을 얻어내여 그의 얼굴을 고칠 방향이 뚜렷해졌다는 생각이 다시 떠오르자 유정희는 머리를 버쩍 쳐들었다.

다시 외과병동으로 달려갔다.

4

유정희의 얼굴은 날이 다르게 수척해져갔다.

지난날 가슴속깊은곳에 다지고 다지였던 동지적 의리를 지키자고 속다짐하기는 하였으나 막상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니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피로왔다.

선화의 얼굴을 본래의 모습대로 고쳐주는것이 동지적의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자각하고있는것이였으나 마음처럼 되지 않는것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더 자기를 채찍질하고있는 유정희였다.

이튿날 유정희는 그 마음을 안고 선화의 방으로 찾아들어갔다.

선화는 여전히 《약전공학》책을 펴놓고 거기에 온 정신을 쏟고있었다.

유정희는 언젠가 도일보에 게재되었던 김형민의 사진을 내놓았다.

한시바빠 김형민의 소식을 선화에게 알려주고 싶었던것이다.

《선화동무, 이 사진을 받으세요.》

말하는 유정희의 눈길은 동지에 대한 의리를 잊지 못해하는 다정한 빛으로 불타고있었다.

《네?》

림선화는 어망결에 유정희가 내놓는 사진을 받다가 안겨오는 김형민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무슨 날카로운것에 찔리운 사람처럼 흠칫 놀라며 상대방을 마주보았다.

《그 동무가 옳지요?》

유정희의 목소리는 한결 다정스러웠다.

《.....》

선화는 대답을 못하고 유정희가 들고있는 사진을 건성 스쳐보고나서 더는 보지 않고 머리를 다 소곳이 수그리었다.

눈길을 떨구는 그의 눈에 이슬이 핑 돌았다.

《선화동무, 동무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던 형민동무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얼마전에 우리 연구소에 입소해서 수술을 받고 다 나아서 퇴소하였어요.》

《.....》

림선화는 끝내 말을 받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유정희는 들먹이는 선화의 어깨우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선화동무, 진정하세요.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 한길을 걷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만나게 되

는것이 아니에요. 그 사진 뒤면에 형민동무의 주소가 있어요. 빨리 편지를 내세요. 형민동무는 선화동무를 잊지 못해 오늘까지 독신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동무들은 진정, 행복한 동무들이예요.》

유정희는 정이 함뿍 담긴 목소리로 말하였다.

《선생님!》

선화는 유정희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더 크게 어깨를 흔들었다.

《그만하세요. 어서 형민동무에게 편지를 내세요. 그 동무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림선화는 유정희의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그의 가슴에 묻었던 얼굴을 버쩍 들면서 머리를 흔들었다.

유정희는 천만뜻밖에도 자기의 말을 부정하는 선화의 말에 잠시 얼터름해서 그의 젖은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선생님! 저도 이미 형민동무의 주소를 다 알고있었어요. 신문도 보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저는...》

《네? 주소를?》

《네.》

림선화는 돌아앉아서 더 크게 어깨를 흔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유정희는 다우쳐물었다.

《그렇지만 저는 형민동무에게 편지를 낼수 없어요.》

림선화는 흐느끼면서 형민에게 자기의 행처를 알려줄수 없노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형민동무의 행복한 앞날에 그들을 던져주고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

유정희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서 선화를 바라보기만 하였다.

(아, 어쩌면 저렇게도...) 유정희는 림선화의 속마음을 새삼스럽게 깨달은듯싶었다.

순간 유정희에게는 림선화가 아득히 높이 선 사람처럼 돋보이기만 하였다.

거울에 흰보를 가리우던 선화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또 김형민은 그대로 전쟁이 끝난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날의 선화를 기다리고있지 않는가...

이 아름다운 인간들에게 무엇을 아끼랴...

림선화가 형민에게 몇몇한 편지를 낼수 있는 날, 림선화가 자기의 불행한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그날이 유정희의 눈앞에 환히 펼쳐지는것 같았다.

유정희는 그 심정으로 연구사업을 내밀었다.

여러가지 기술적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았으나 정희는 그것을 힘있게 극복해나갔다.

드디어 첫 수술을 하는 날이 왔다. 오전 첫시간에 수술을 하게 되어있었다.

유정희는 설레이는 가슴을 억지로 누르며 아침 일찍이 집을 나섰다. 출근하자마자 선화의 방에 들어갔다.

선화는 불안이 가득찬 얼굴로 유정희를 묵묵히 맞이했다.

《기분이 어떠세요?》

유정희는 언제나 하는 범상스러운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그러나 그 물음속에는 수술에 응할 마음의 준비상태를 묻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

《.....》

선화는 유정희의 물음에 언제나 웃음으로 대답하던 그나름의 특유한 미소도 띠우지 않았다.

《불안해요? 락동강의 용사답지 않군요. 녀려마세요. 꼭 성공할거예요.》

유정희는 림선화의 손을 힘있게 쥐여주었다.

그리고는 위생복주머니에서 접이자를 꺼내어 오늘 제1차로 수술할 얼굴의 상처부위를 재며 그 상처의 폭과 길이, 이식할 피부의 상태 등을 다시 확인하였다.

림선화의 얼굴을 더듬는 유정희의 귀전에 잇그제 김형민의 주소를 알면서도 편지를 내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도 간절하게 말하던 그의 갈린 목소리가 울려와 가슴을 굶었다.

그래서 더 착실하게 사전준비를 서두르는 유정희였다.

유정희는 곧 담당간호원에게 기초마취를 지시하고 병실을 나섰다.

수술장으로 향하였다.

느닷없이 들먹거리는 가슴을 눅눅히느라고 줄곧 머리를 수그리고 걸었다.

위생복자락을 스치는 봄바람과 정원에 가득찬 봄의 훈향이 정희의 가슴에 따뜻한 계절을 알리며 속삭이는것 같았다.

수술장에 들어서니 조수들과 간호원들이 선화를 수술대우에 눕혀놓고 기다리고있었다.

유정희는 드디어 떨리는 손으로 메스를 들었다.

메스끝에 소식도 모르면서 지나간 세월 선화를 기다린다고 하던 김형민의 얼굴이 나타나 얼른 거렸다.

김형민의 그후 소식과 그의 주소를 알고있으면서도 편지 한장 내지 않고있었다는 림선화의 모습도 떠올랐다.

유정희는 메스를 틀어진 손에 힘을 주면서 수술을 해나갔다.

그가 움직이는 메스끝에 다만 그들의 사랑을 지켜준다는 심정만이 깃들어있는것이 아니었다.

그들을 하루속히 완치하여 사회주의건설장에 내보내어 한몫 단단히 하게 한다면 우리 의료일꾼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얼마나 떳떳하게 복무한

것으로 되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니 더더욱 어깨가 무거워지며 그만큼 보람과 공지가 안겨오는 것이었다.

(그렇다! 나의 메스끝에 천리마를 불러오자. 천리마시대의 정신이 나래치게 하자!)

유정희는 힘있게 메스를 움직여나갔다.

3시간에 걸치는 수술을 끝냈다.

긴장한 수술에서 피곤이 전신에 휩싸여왔다. 유정희의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몸이 뚱뚱 떠있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잠시도 마음이 안착되지 않았다. 공연히 선화의 방에 들어가 마취상태에서 잠자고있는 환자를 멍하니 들여다보기도 하고 자기 방에 돌아와서는 빈 방을 텅텅이 서성거리기도 하였다.

이튿날 아침 정희는 환자를 처치실에 데리고 가서 얼굴의 봉대를 풀어보았다.

순간 정희의 눈이 캄캄해왔다.

(아니?...)

정희는 자기의 눈을 의심하며 다시 수술자리를 들여다보았다.

실패였다. 정희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정하자니 마음이 괴로웠다. 어제 수술을 할 때 편이여 휩싸여오던 마음의 괴로로 인한 실패가 분명했다.

유정희는 차마 선화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서성거리다가 간호원에게 봉대를 다시 감게 하고 인차 처치실에서 나왔다.

정신없이 자기 방에 들어선 유정희는 책상 위에 얼굴을 묻고 모지름을 썼다.

(내가 과연, 인간의 생명을 책임졌다고 표방하는 의사인가? 선화의 얼굴을 본래대로 잘 고쳐주어 그들에게 기쁨을 주자고 마음다지지 않았던가. 그런데 나는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의료일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적인 인간애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던가!

인간애가 없는 의사에게 부여된 인삼복용은 자기의 피와 살을 나누어주어서라도 환자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그런 의사의 손에 부여된 한뿌리의 개삼만큼의 효력도 낼 수 없다고 가르쳐주셨다.

그런데 나에게 과연 그런 공산주의적인 인간애가 있는가? 인간애가 없는 의사가 과연 당과 혁명앞에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유정희는 저러오는 가슴을 부여안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있는 자신을 타매하였다.

재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그냥 그 상태에서 수술자리를 아물게 할 수는 있지만 본래의 모습대로 고쳐주어야 한다는 높은 요구성의 견지에서 볼 때 량심이 허락지 않았다.

유정희는 즉시 간호장을 불러 수술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어느덧 달이 바뀌고 한해가 흐르는 사이 유정

희는 크고작은 수술을 십여차례나 진행하였다.

다시는 쓰라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모진 고심을 다 하였다.

선화도 어려운 고통을 용케 이겨냈다.

얼굴의 상처는 훨씬 좋아져갔다.

어느날 밤이었다. 그날은 유정희가 야간직일을 서는 날이었다.

밤이 깊어 복도의 벽에 걸어놓은 탐시계의 패종이 두점을 치고난 뒤였다.

하루일을 매듭짓고 방에서 나온 유정희는 발굽을 세우고 선화의 방쪽으로 걸어갔다. 문앞에 멈춰선 그는 숨을 죽이고 방안의 동정을 살폈다. 불이 꺼져있는 것으로 보아 선화는 깊이 잠들어있는 것 같았다.

유정희는 소리가 나지 않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문으로 흘러드는 달빛이 방안을 대낮처럼 흰히 밝혀주고있었다.

유정희는 선화가 누워있는 침대곁으로 걸어갔다. 환자앞에 놓여있는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고 이마와 눈에 봉대가 잠겨있는 선화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선화는 어린애처럼 쉼쉼코소리를 내면서 자고있었다.

오랜기간 번민속에 살던 모든 시름을 다 씻어버리고 깊이 잠든듯싶은 선화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정희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수술자리가 한시바빠 보고싶어졌다. 자신을 가지고 한 수술이기는 하지만 그 결과가 못건디게 궁금해났다.

회복기에 들어섰으니 환자 못지않게 조급해난 유정희였다.

이 기쁜 소식을 림선화를 대신해서 형민에게 전해주고싶은 마음도 앞섰다.

유정희는 자기도 모르게 아한 손을 선화의 얼굴로 가져갔다. 이마의 봉대를 천천히 풀기 시작하였다.

달빛에 어린 정희의 푸르스름한 손이 선화의 눈가에 이르렀을 때 환자가 흠칫 놀라며 유정희의 손을 덥석 잡았다.

《선화동무, 놀라지 말아요. 정희예요.》

유정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며 선화의 손을 잡았다.

《아니 선생님.》

림선화는 자리에 일어나앉았다. 이 깊은 밤에도 자지 못하고 자기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유정희가 더없이 고마왔던 것이다.

《수술자리가 보고 싶어서...》

《선생님, 고마와요. 정희선생님이 한건데 잘 되겠지요.》

림선화는 유정희의 손을 꼭 쥐며 얼굴을 펴구

었다.

《그래두 어쩐지...》

유정희는 불을 켜놓고 얼굴의 붕대를 마저 풀었다.

유정희는 온 뒀을 쏟아붓듯 수술자리를 들여다보았다.

긴장이 어린 정희의 눈에 가벼운 미소가 지나가는것을 포착한 선화는 조용히 눈길을 들었다.

《선생님, 거울을 좀...》

림선화가 흥분에 휩싸이며 말했다.

《안돼요. 아직 일러요.》

유정희는 약을 더 바르고 붕대를 다시 감아주었다.

자기 방에 돌아온 유정희는 더없이 기쁜 마음을 안고 김형민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다.

5

림선화의 얼굴에서 마지막 붕대를 푸는 날이 왔다.

유정희는 가벼운 마음으로 연구소에 나갔다.

간호원들이 분주히 복도를 오가며 선화의 얼굴에서 마지막 붕대를 풀 준비를 서두르고있었다.

드디어 그 시각이 왔다.

유정희는 연구실장을 비롯하여 연구실의 전체 연구사들과 함께 환자의 방으로 갔다.

연구소의 기술부소장과도 참가하였다. 이웃 연구실의 성원들과 환자들까지 참가하였다.

이윽하여 유정희가 선화앞으로 다가갔다.

《선화동무. 어때세요. 어디 풀어보지요.》

유정희가 말하자 간호장과 담당간호원이 환자곁으로 갔다.

한돌기 또 한돌기 붕대를 풀어나가는 유정희의 손은 떨리었다.

유정희가 마지막 한돌기의 붕대마저 다 풀었을 때 성원들속에서 《아하-》 하는 탄성이 일어났다. 구경하러 들어온 환자들속에서 박수소리까지 일어났다.

유정희는 알콜로 환자의 얼굴을 말끔히 닦아주었다. 그리고 간단한 화장까지 시켜주었다.

기술부소장이 실장과 함께 선화환자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수술자리와 아문 자리들을 세심히 관찰하였다.

반흔과 련축이 생겼던 상처들이 말끔히 가셔지고 본래의 얼굴모습으로 변하였다. 숨쉴듯게 수술을 한 바늘자리마저도 깨끗이 아물었다. 눈섭도 입술도 제자리에 똑바로 놓이였다.

《성공입니다. 훌륭합니다. 유정희연구사동무가 수고했습니다.》

기술부소장이 성공을 축하하여 유정희의 손을 잡고 힘있게 흔들어주었다.

유정희가 머리를 들지 못하고있는데 실장이 거울을 가져오라고 간호장에게 지시했다. 환자에게 훌륭하게 회복된 제얼굴을 보여주고싶었던것이

다. 모두의 시선이 왼쪽벽으로 쏠리었다. 거울에 흰보가 씌워져있는것을 보고 사람들은 새삼스럽게 놀라는것이였다.

그제서야 생각이 떠오른 유정희가 황황히 거울이 걸려있는곳으로 가더니 거울에서 흰보를 걸어내렸다.

거울을 닦는 유정희의 눈가에 물기까지 어리었다.

《.....》

기술부소장과 실장이 선화의 심정을 헤아리듯 말없이 얼굴을 끄덕이였다.

유정희가 거울을 환자앞에 가져다놓고 세워주었다.

《선화동무, 얼굴을 좀 보세요.》

《.....》

말없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선화의 눈은 일순간 환히로 빛났다.

유정희가 위생복주머니에서 10배로 확장된 사친을 환자앞에 내밀었다.

《어때요? 선화동무, 마음에 드세요. 인젠 더는 거울을 가리우지 않겠지요.》

유정희의 밝은 얼굴에 가벼운 미소가 지나갔다.

《선생님. 고마와요.》

선화는 와락 몸을 유정희에게 실으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방안 이구석 저구석에서 흐느낌소리가 일어났다.

유정희는 뜨거워오르는 가슴을 이기지 못하고 흔들리는 선화의 어깨우에 손을 얹은채 한동안 침묵속에 서있다가 나들문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거기에는 방금 정거장에서 온듯 려행가방을 들고있는 키가 성큼한 김형민이 서있었다. 그를 발견한 순간 유정희는 인차 선화쪽으로 돌아섰다.

《선화동무!》

유정희는 들먹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선화의 손을 잡았다.

《정희선생님!》

림선화는 잠시도 유정희를 자기 손에서 놓지 않으며 흐느껴 울기만 하였다.

《선화동무, 저기 문쪽을 좀 보세요. 누가 와 있나?》

아래입술을 깨물며 선화를 그쪽으로 돌려세우는 유정희의 눈에 기쁨이 함뱍 어리었다.

《선생님!》

선화는 그래도 유정희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희의 정다운 얼굴을 올려다보기만 하였다.

《선화동무, 나만 보지 말고 저쪽을 좀 보세요., 저기에 김형민동무가...》

유정희는 중당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네?!》

림선화는 문쪽으로 얼굴을 돌리다가 거기에 서 있는 김형민을 본 순간 그만 침대우에 필씩 물러앉았다. 그리고 포개놓은 이불우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흔들기 시작하였다.

김형민이 걸어들어오고있었다. 그의 발자국소리가 유정희의 뒤에서 가슴을 흔들며 들려왔다.

유정희는 그 소리를 피하여 선화에게서 떨어져 창문쪽으로 물러섰다.

전선에서의 그날로 돌아간듯 다정하게 손을 잡는 그들을 바라보는 유정희의 얼굴에 유리창으로 흘러드는 봄별이 함뿔 어리었다.

사나운 겨울도 설한풍도 이겨내고 마침내 따뜻한 봄을 맞이한 사람만이 향유한 밝고 찬란한 빛이 어리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사랑을 곱으로 안은 유정희였다.

반드시 오고야말 오늘을 확신했기에 유정희는 처음 건너보는 시련의 난바다를 넘어 한발한발 노를 저어온것이 아니었던가.

유정희는 일행을 따라 정원으로 나갔다.

따뜻한 계절이었다. 정원의 온갖 생물들이 파사로운 봄별을 받아 한껏 무르녹고있었다. 움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들이 맺고있었다. 거기서 벌이 울고 나비가 날고있었다. 활짝 피어난 수십수 백송이의 흰장미들이 달큰한 향기를 뿌리고있었다.

조국기행

조국의 명산-금강산

윤두만

우리 나라는 어디 가나 기묘한 산발들과 맑은 강, 해안을 따라 수천리에 수놓아진 아름다운 경치로 하여 말그대로 금수강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지만 우리 조국처럼 아름답고 살기좋은 나라는 드문것입니다.》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두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것은 이름높은 명산들중에서도 명산인 묘향산과 금강산이다.

금수강산의 화려한 두 날개와도 같이 조국의 동서부에 솟아 찬란히 빛을 뿌리는 묘향산과 금강산!

얼마전 우리 시인들은 묘향산탐승의 길을 이어 금강산을 돌아보면서 이 땅에 태어난 민족적 긍지와 자랑을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였다.

그것은 수려한 산천의 아름다움때문만이었던가.

보다도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인민의 영원한 기쁨으로 되어 것처럼 빛을 뿌릴수 있게 되였는

유정희는 흰장미의 꽃송이들속에서 오늘의 새 꽃송이로 피어난 림선화의 새 얼굴을 본듯싶었다.

그 꽃송이를 가꾸어 온 유정희의 가슴은 마냥 부풀어올랐다.

정원 저쪽으로 멀어져가는 그들을 바래우는 유정희의 가슴에 당과 혁명 앞에 자기의 본분을 다했다는 높은 긍지와 인생의 가장 뜨거운 의리와 사랑을 안은 끝없는 보람이 차넘치고있었다.

이 긍지, 이 사랑, 이 기쁨이야말로 유정희가 한가슴에 안은 가장 따뜻한 계절이 아니겠는가!

×

그날밤, 유정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네번째 편지를 썼다.

유정희는 편지에 그동안 자기가 보건일군으로서 시대와 혁명 앞에 지냈던 사명감과 동지적의리를 고스란히 지켜낸 귀중한 체험을 다 적고나서 그것을 너무나도 너그러이 리해해준데 대한 뜨거운 감사도 표시했다.

그리고 그는 림선화환자를 치료한 사업에 대한 총화가 끝나면 인차 출발하겠다고 쓰는것도 잊지 않았다.

비록 밤은 깊었지만 그는 체신소를 향해 병동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가 하는 승엄한 생각때문이었다.

《금로수》에 비친 충성의 해발

금강산혁명사적관 참관을 마치고 우리 일행이 현관문을 나설 때였다. 밖에서는 흰눈이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이해의 첫눈이다. 뜰앞의 소나무숲도 한결 더 푸르러보이였다. 모든것이 정결하고 깨끗해서인지 마음까지 티없이 맑아지는것만 같았다. 안내원을 따라걸던 우리들은 산기슭에 있는 샘터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에는 《금로수》라고 쓴 표식비가 세워져있었다.

《1947년 9월 금강산을 찾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이 맑은 샘물로 위대한 수령님의 식사를 지어드리시였습니다.》

안내원의 해설을 듣는 순간 우리들은 가슴속에 솟구쳐오르는 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아, 여기로구나!》

나는 눈우에 무릎을 꿇고앉아 겨울에도 얼지 않고 철철 넘쳐나는 샘물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금처럼 변함없고 이슬처럼 맑은 《금로수》!
볼수록 어머니의 맑은 미소가 해발로 어리어있
는 맑은 샘물이었다.

《그날 어머님께서는 항일전의 나날에 한시도
잊으신적이 없는 금강산의 구룡연으로 오르시다
가 구신계교근방에 와서부터는 걸음이 떠지면서
자꾸 시계를 보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오르던 동지들이 웬일인지 몰라 왜 그러
시느냐고 물으니 아무래도 도로 내려가보아야 하
겠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습니다.

어머님의 깊은 심중을 다 헤아릴길 없었던
일군들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구룡연이라고 말
씀드리니 어머님께서는 오늘날 날인가고 하시면
서 구경은 후날에도 할수 있지만 현지지도의 길
을 이어 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식사와 려장준
비는 꼭 제시간에 빈틈없이 보장해드려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발길을 돌리신 어머님께서는 이 샘물가
로 내려오시여 충성의 거룩한 자욱을 새겨가시었
답니다.》

우리들은 어머님께서 남기신 그날의 말씀을 심
장속깊이 아로새기며 한없이 숭엄한 감정에 휩싸
였다.

한평생 수령님의 안녕에서 더없는 행복을 찾으
시고 수령님을 위하신 일에서 이 세상 가장 큰
기쁨을 찾으신 우리의 어머니!

항일의 날, 백두산의 흰눈을 녹여 사령부의 작
식을 보장해드리시던 그날처럼 물우에 뜬 가랑잎
을 걸어올리시며 이 샘물에 금강산의 산나물을
다듬어 씻으시던 어머님의 그 모습을 다시 뵈는
것만 같았다.

《참으로 어머님의 충성심엔 끝이 없으시었습니
다.

한번은 이 샘물을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시려고
주전자에 넣어가지고 가실 때입니다. 그때 곁에
있던 사람들이 주전자밖에 성에처럼 하얗게 내
돋은 물방울들을 닦아드리려고 했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조용히 만류하시며 물방울들이 내
돋은것을 보시면 수령님께서 더 시원하고 청신한
느낌을 받으실수 있다고 일깨워주시는것이 아니
겠습니까.》

들을수록 가슴뜨거운 이야기였다.

충성이 어머니의 온 삶이시였기에 이렇듯 작은
물방울 하나를 두시고도 오로지 수령님께로만
마음 달리신 그 높은 뜻이 이 물우에 어리어있
다고 생각하니 금강의 산수가 더 유정하고 티없이
맑아 보이었다.

우리 일행은 충성의 해발이 비낀 《금로수》를
마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구룡연탐승의
길에 올랐다.

해빛 넘치는 사랑의 길을 따라

온정리를 떠나 한참 걸으면 슬기너메고개라고
불리우는 언덕이 나타난다. 이 고개마루에 올라
서니 멀리 집선봉과 세존봉, 채화봉의 그악한 산
줄기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눈이 없힌 봉우리들
은 마치 은관을 쓴것 같았다. 봄이면 봉래, 여름
이면 금강, 가을이면 풍악으로 불리우는 금강산
의 겨울경치 또한 황홀하였다.

안내원동무가 집선봉 사랑바위를 가리켰다. 엄
지새가 새끼를 품고 앉아있는 모양같지 않는가고
묻기에 바라보니 틀림없는 새형상이었다.

걸을수록 황홀경이다.

세상만물의 형상이 금강산에 다 모여와 돌로
굳어진듯 어떤것은 뛰는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
떤것은 금시 날아오르려는듯한 묘한것도 있다.

《저 바위 이름은 이렇게 무릅니까?》

한 동무가 안내원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런 봉우리들이 하두 많으니 어떻게 다 이름
을 달겠습니까. 그래서 금강산 만이천봉우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유쾌히 웃으며 소나무 우거진 숲속길
을 걸었다.

창터솔밭을 지나자 길옆에 배나무밭이 나타났
다. 가지마다 눈꽃이 하얗게 피었는데 참말로 아
름다웠다. 지붕우에 텔레비죤안테나가 걸린 아담
한 살림집 한채가 파원속에 있었다. 우리들은 표
식비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여기는 어버이수령님의 은정깊은 사랑의 자욱
이 짙혀있는 뜻깊은곳이다.

해방직후 이 과수원을 찾아주신 수령님께서는
주인집 로인이 골라드린 배까지 허물없이 드시면
서 금강산은 산종교 물맑고 경치도 좋지만 과일
맛도 좋다고 하시며 앞으로 과수원을 더 많이 더
잘 꾸릴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과수원을 잘 꾸리면 금강산 경치도 더 아름다
와 질것이라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여
현재 과수면적은 그 당시보다 다섯배이상 늘어났
다고 안내원은 우리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
였다.

과수밭을 돌아보고난 일행은 배소고개마루에
올라섰다. 앞에서는 기다린듯 옥녀봉이 다가서고
좌 우로는 세존봉과 관음봉이 마주나왔다. 발밑
은 깎아지른 벼랑이었다. 그밑으로는 구룡연계곡
에서 흘러나오는 옥계수가 집채같은 바위들을 씻
어내리고있었다.

우리들이 대리석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세운 의
자에 앉아 잠시 다리쉬를 하려는데 안내원은 그
의자 하나하나에도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이 뜨겁
게 깃들어있다고 알려주는것이 아닌가.

경치좋은 명소마다 휴식터를 많이 만들어 산에

오르다가 인민들이 쉴수 있게끔 의자문제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세심히 심려해주신 수령님의 은정을 생각할수록 자꾸만 눈곱이 후더워왔다.

《저기가 바로 구신계교입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발길을 돌리신 력사의 그 지점이지요.》

배소고개를 내려 산굽이를 돌아서려는데 안내원이 이렇게 말하였다. 순간 우리들의 가슴은 찢어졌었다. 모두가 한달음에 그곳으로 밀려갔다. 산죽들이 자라는 그 눈밑에 아직도 어머님의 발자국이 찍혀있을것만 같아 걸을수록 생각이 깊어졌다.

여기서 어머님은 발길을 돌리셨는데 우리들은 지금 구룡연으로 올라가고있다고 생각하니 뜨거운 눈물이 뿜 돌았다.

어머님의 숭고한 정신과 티없이 깨끗한 충성의 마음이 전설로 깃든 유서깊은 땅을 몇번이고 돌아 보고 다시 돌아보며 우리는 구신계교를 건넜다.

일행이 망지대를 지나 금수교에 이르렀을 때였다. 흰눈을 머리에 이고 눈부시게 빛나는 봉우리 하나가 멀리 보이였다. 금강산의 제일봉인 비로봉이였다. 우리들은 환성을 지르며 손채양을 하고 비로봉을 바라보았다. 《아》- 하는 감탄만이 터져 나올뿐 시적인 표현이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시인들이 와서도 말을 찾지 못해 안타까와하는곳이 우리의 금강산입니다. 그래서 문장과 단어가 끝난곳에 금강이 솟아있다고들 하지요.》 안내원은 웃으며 말하였다.

그렇다, 명승우에 명승이 있고 아름다움우에 또 아름다움이 솟은 금강산!

얼마나 많은 시인들이 예로부터 금강산을 노래하였던가. 그러나 그들은 금강산의 아름다움과 기묘함을 붓끝으로 다 옮길수 없었거늘 다만 《아!》 하는 감탄뿐이였었다.

감탄사우에 솟아있는 금강산!

이보다 더 적중한 표현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좌우의 기암괴석들, 바위쥔마다 뿌리내리고 푸른 가지를 펼친 소나무들...

모든것이 신비롭기만 했다.

《저 고목을 좀 보십시오.》

우리들은 걸음을 멈추고 절벽 한가운데 있는 한 그루의 나무를 쳐다보았다.

《여기는 온통 돌산인데 어떻게 소나무들이 저렇듯 푸르싱싱하게 자라게 되는지 오랜 세월 수수께끼로 남아있었지요.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오시여 금강산에 끼는 안개를 깊이 헤아려보시고 거기서 정상적으로 수분을 공급받기에 저렇게 생활력이 강하다고 처음으로 그 비결을 밝혀주셨답니다.》

이야기를 듣고보니 정말 금강산엔 아침저녁으

로 안개가 많이 끼는것이 특징이였다. 그러나 수백수천만년을 내려오며 그 어느 식물학자도 그 안개에 대하여 생각해본 사람은 없었다.

오로지 조국의 일목일초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분, 세상만물의 리치를 비범한 예지와 천리혜안으로 꿰뚫어보시는 우리의 수령님께서 비로소 식물의 생장비결을 것처럼 명철하게 밝혀주실수 있는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걷는 사이 어느덧 옥류동이 가까와왔다.

옥류동은 산과 계곡, 물과 나무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사철 아름다운곳이다. 희맑은 암반으로 굴러내리는 물은 마치 수천만석의 구슬알같았다.

물은 흘러내려 담수를 이루었는데 어쩌나 맑은지 밑에 깔린 돌과 꼬리치는 고기들의 지느러미까지 다 들여다보이였다.

물만이 아니였다. 옥류동골안에 병풍처럼 비껴선 재화봉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은빛 창검은 묶어세운듯 실안개를 휘감고 치솟은 봉우리들은 하늘에 핀 하얀 국화꽃송이를 연상시켰다. 우리들은 동화의 세계에 와선것만 같았다. 신비경에 이르면 생각도 신비하게 떠오르는듯 바라보이는 모든것이 시였고 노래였다.

천년 암벽마다엔 격동된 우리들의 이 마음을 새긴듯 만년대계의 글발들이 씌여있었다. 우리 일행은 잠시 그 글밭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오늘의 이 행복을 그 누가 주었나
로동당이 주었네 수령님이 주셨네
김일성원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목숨도 바쳐가리 오직 한마음

부르면 부를수록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에서 사는 오늘의 행복과 높은 긍지로 가슴은 설레었다.

그 옛날엔 여기에 하루밤 선녀들이 내렸다가 올랐지만 우리들은 영원히 이 강산에 삶의 뜻을 내린 로동당시대의 선남선녀들이 아닌가. 생각할수록 금강의 이 경치를 인민의 기쁨으로 꽃피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한없는 그 고마움에 눈시울이 젖어왔다.

우리들은 옥류동을 지나 련주담으로 갔다. 두개의 둥그런 돌확에 파란 물이 고여있는데 마치 구슬을 련달아 꿰어맨것 같았다. 흰천을 당구면금시 물이 들듯싶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련주담의 저 물을 보시면서 물색중에도 금강산의 물색이 제일 아름답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들은 저마다 맑은 물을 두손에 떠들었다. 아무리 이름난 화가라도 금강산의 이 물색만은 그려내지 못할것이다.

련주담을 지나서니 왼쪽으로는 수백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비봉포가 보이고 그우로는 옛성터

를 방불케 하는 성벽암이 나타났다.

《저 바위를 보십시오. 지금은 기관차가 멈춰선 것 같지 않습니까. 불을 지피면 금시 내달릴것만 같이…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 와서 보면 또 땅크가 적진으로 육박하는 모양같지 않습니까?》

정말 상상력을 초월하는 기묘한 천년의 조각품들이었다. 걸음마다 경탄을 자아내는것이 어찌 바위만이랴. 하얀 구슬발이 퍼지는것 같은 운금포, 은실을 한줄로 풀어놓은듯한 은사류는 또 얼마나 장관인가.

우리들은 무아경속에 건다가는 멈춰서고 섰다 가는 걸으며 한낮이 되어서야 구룡연에 도착하였다.

길이 70미터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소리가 여름날의 우뢰같았다. 물보라가 홀날리는 담소가 가까이 다가서니 깎아지른 절벽이 움썽움썽 하늘로 올라가는것만 같아 온몸이 날개돋친듯한 기분이었다.

우리들은 돌계단을 딛고 정각에 올랐다. 구룡연의 계곡미가 여기서 극치를 이룬듯싶다.

《이 험한 구룡연을 수령님께서 세차레나 찾아 주시었습니다.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기서 금강산을 탐승하고있던 학생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셨습니다.》

안내원은 구룡연에 깃든 전설같은 그날의 사연을 이야기해주었다.

1948년 10월, 구룡연에서 통천녀자중학교와 려성중학교 학생들을 만나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참 좋은 철에 수학여행을 왔다고 하시면서 녀학생들의 교복도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소원까지 헤아리시여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린 학생들이 상팔담에 올라가겠다는 보고를 들으시고는 피곤하면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다 느끼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오늘은 내려가서 온천물에 목욕도 하고 피곤을 쏜 다음 래일 다시 상팔담을 구경하라고 탐승일정까지 짜주시지 않았던가.

안내원의 해설을 들으니 우리도 그 사랑의 손길에 이끌리어 지금 탐승의 길을 걷는듯 눈앞에는 30여년전의 그날이 삼삼히 어리었다.

우리들은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상팔담에 올랐다. 구룡대우에 서니 맞은편 암벽에 새긴 《주체사상 만세!》라고 쓴 만년대계의 글발이 숨엄히 안겨왔다.

아, 위대한 주체의 빛발아래 빛나는 금수강산 내 나라!

우리들은 솟구쳐오르는 걱정을 누를길 없어 《주체사상 만세!》의 함창을 불렀다. 그러자 금강의 일만이천봉이 그 소리에 화답하는듯 만세의 힘찬 메아리가 하늘땅을 진동하는것이였다.

×

우리 일행은 다음날 온정리를 떠나 왼쪽으로 관음련봉과 오른쪽으로는 수정문주봉을 바라보며 만물상탐승의 길에 올랐다.

우리가 오르고있는 길이 바로 영웅의 고개, 승리의 고개로 세상에 자랑높은 온정령 령길이라고 안내원은 이야기해주었다. 해발 857미터의 높이를 가진 온정령은 백다섯굽이의 경사 급한 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지도의 첫자욱을 찍으실 때만 해도 길이 몹시 험했지요. 지금의 이 자동차길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고성지구인민들과 인민군용사들이 닦아놓은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한치도 무심히 걸을수 없는 령길이었다.

우리들에게 행복한 이 탐승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아버지수령님께서 걸으신 사랑의 길은 그 얼마이시며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이 나라의 영웅전사들이 얼마나英勇하게 싸웠던가.

진정 위대한 그 사랑, 빛나는 그 위훈이 깃들어 오늘의 금강산은 옛날의 금강산과는 달리 한 걸음 한자욱을 떼어도 이렇듯 가슴후두워오는것이 아닌가.

우리들의 이 심정을 대변하는듯 안내원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때 전사들은 월비산과 351고지 그리고 까칠봉과 854, 1고지에서 우리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금강산이 있다. 싸우다 물힐 땅은 있어도 물러설 땅은 한치도 없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자고 웨치면서 조국의 초토를 용감히 사수하였지요.》

해설을 듣고나 우리 일행은 먼저 룡화암 표식비를 돌아보고 천천대로 들어가는 길에 잡아들었다. 한참 걸으니 기묘하게 생긴 삼선암이 나타났다. 높푸른 하늘가에 우뚝 솟은 기암준봉은 마치 창끝을 갈아 곤추 세운듯하였다.

아침 일찍 온정리에서 떠날 때는 미처 몰랐었는데 한낮이 되여 산허리에 감긴 안개가 걷히고 해빛에 물기어린 절벽과 바위들이 오색령통한 빛갈을 뽐기 시작하니 정말 절경우에 또 신비로운 절경이었다. 우리들은 옛이야기에 나오는 화려한 보석바닥을 걷는듯싶었다.

귀면암에 이르니 산세가 더 가파로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험한데까지 찾아오시여 탐승하는 인민들이 안전하게 구경할수 있도록 손잡이 하나, 계단 하나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귀면암이 묘하게 생겼다고 하시면서 산에서 싸울 때 대원들에게 금강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지만 와보니 참말로 감개무량하기 그지없다고 하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금강산이 이처럼 아름답지만 지난날엔 가난한 인민들

은 한번 와보지도 못했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인민의 금강산인데 잘 꾸러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야 한다고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이렇듯 은혜로운 햇빛 넘치는 사랑의 길을 따라 우리들은 천선대로 올랐다. 천선대에 오르니 《하늘나라》에 선것만 같았다.

건너다보면 층암절벽이 전후좌우로 병풍처럼 둘러섰고 굽어보면 만학천봉 기암괴석이 각종 물형으로 황홀경을 이루었다. 멀리 해금강쪽을 내다보니 동해바다가 마치 금강산을 비쳐보기 위해 생긴 하나의 큰 거울과도 같이 빛나고있었다.

참으로 오르면 내리고싶지 않고 내리면 다시 오르고싶어지는 금강산이었다.

우리들은 모자를 벗어 흔들었다. 그리고 구룡대 우에 올랐을 때와 같이 《아!》-하고 우렁찬 함성을 질렀다. 그러자 금강의 일만이천봉이 화답하는 소리가 긴 여운을 남기며 메아리쳐왔다. 그것은 마치 《시인들이여, 그대들은 은혜로운 태양이 빛나는 가장 밝고 아름다움의 절정우에 올라섰음을 세상에 공지높이 노래하라!》고 심장의 벽을 광광 울려주는것만 같았다.

목란꽃에 비낀 찬란한 향도의 해발

금강산에 밤이 깊어간다. 래일이면 온정리를 떠나 삼일포로 간다고 생각하니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전등불을 끄고 려관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달빛 흐르는 온정령 령길과 흰눈을 인 옥녀봉과 세존봉줄기가 꿈속처럼 안겨왔다.

지나온 탐승의 로정을 다시금 조용히 더듬어보는 나의 마음은 이 밤따라 자꾸만 목란꽃나무가 서있는 구룡연계곡으로만 달린다.

우리 일행이 구신계교를 건너 산길을 걸을 때였다. 눈덮인 길옆에 한그루의 나무가 서있었다. 금강산의 목란이었다.

《이 꽃나무 한그루에도 정말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습니다.》

철이 지나 꽃도 지고 잎도 졌건만 우리들은 그 나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지난해의 8월을 지금도 잊을수 없습니다. 그때 이 아지에 철늦은 목란꽃 한송이가 피어있었습니다. 8월하순까지말입니다. 참 드문 현상이었지요. 고스란히 향기를 품고 만발한 목란꽃! 글썽 그 꽃에 바로 은혜로운 향도의 해발이 비쳐울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우리 일행은 한떨기의 꽃을 두고 당이 헤아린 높은 뜻을 가슴에 새기며 저마다 나무가지를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다.

아, 꽃중에도 목란꽃이 제일 깨끗하고 향기롭다고, 그러니 우리 수령님께서 그 꽃을 사랑하신다고 한 그 높은 뜻이 새로운 느낌과 크나큰 의미를 가지고 가슴뜨거이 젖어왔다.

한송이 목란꽃!

그 꽃은 지금 볼수 없다. 그러나 향도의 해발이 어린 그날의 그 목란꽃은 나의 가슴속에, 아니 우리모두의 가슴속에 간직되어 떨기떨기 향기를 풍기며 피어나고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 나의 머리속엔 문득 금강산 비봉포의 그림이 또 생각난다.

비봉포!

사람들은 그 비봉포도 어떻게 되어 수도의 한 복판에 아름다운 화폭으로 옮겨지게 되었는지 그 깊은 사연을 다는 모르리라.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금강산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비봉포를 보니 10년은 더 젊어지는것 같다고 말씀하신적이 있었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이날까지 잊지 않고있는 당에서는 금수산의사당을 건설할 때 바로 구룡연의 그 비봉포를 벽화로 옮기도록 하시었다.

정녕 금강산의 한떨기의 꽃, 무지개 비낀 하나의 폭포도 무심히 볼수 없었다.

산기슭엔 《금로수》 맑은 물이 흐르고 산길마다 목란꽃이 아름답게 피는 금강산!

생각하면 이 땅우에 금강산이 생겨 수천만년의 세월이 흘러갔건만 오늘처럼 이렇듯 그 아름다움이 빛을 뿌린 때는 일찌기 없었다.

그것은 이 땅, 이 하늘에 주체의 태양이 빛나고 향도의 별과 충성의 해발이 비친 그때로부터 비로소 눈부시게 빛을 뿌리며 인민의 영원한 기쁨으로 꽃피난것 아닌가.

그렇다!

그때문에 인민은 수령님을 우러러모시는 티없이 깨끗한 마음, 목란꽃 송이송이에 담아 가슴속에 소중히 피워가는것이며 동해에 솟는 해를 비로봉에 걸어놓고 서해에 지는달을 몽금포에 세워놓고 천년만년 수령님과 당을 따르려는 그 신념 노래에 담아 그토록 절절히 부르는것 아닌가.

...깊어가는 밤, 깊어가는 생각, 참으로 금강산의 밤은 아름답고 뜻깊은 밤이었다.

묘향산 기행시초

김석주

묘향산아

올라서도 내려서도 장엄하고
멀리서도 다가서도 절묘하여
너는 아름답고도 웅장하구나, 향산아

구름위에 닿은 일만봉우리
내리니 은하인가, 찡오니 구슬인가
푸른 산 흰 계곡에 흐르는 옥계수

향산아, 너는 한푼에 다 지냈구나
천하절승 금강산의 그 기묘함도
구름걸친 지리산의 그 웅장함도

오르는 길 내리는 길 사랑의 길
깊은 골에 묻혀있던 돌 하나 여울하나

오늘에 다 찾아주고 빛내여주었기에
천년세월 이름없던 바위마다 폭포마다
고르고고른 이름 지니고
시속에 노래속에 아름다움을 더했으니

사랑의 손길, 사랑의 자욱이 어려있는
그 어느 돌 하나 뽑아도
아니되리, 묘향산이 아니되리

향산아, 네가 솟아 세월의 천만년에
고마운 당의 해발이 비낀
오늘의 네 모습 진정 묘향산이로구나

서로 고이고 받들어

나무는 돌을 가릴가 비켜서고
돌은 나무를 이고 우뚝 섰네

큰 돌 작은 돌 서로 고이고 받들어
바위는 바위를 딛고 층층 솟았네

혼자서도 아름다운 저 돌, 저 바위

서로 어울려 아름다움을 더해주니
저 봉우리 하나를 세상에 빛내이려
천만개의 돌 말없이 받들고 섰는가

머리 들어 바라보는 금수강산 내 조국아
내 너를 받드는 그 하나 고임돌이 되고저...

길을 잃고서

바위를 에돌아 한굽이
나무뿌리 에돌아 한굽이
하비로암에서 이선남폭포 가는 길
묘향의 묘한 돌을 쌓아
길도 묘한 돌길인데

눈을 흘리었나
방금 오른 길 내릴 때 또 새로와
내리면서 어리둥절 섰기도 하네
한참씩 길을 잃고서

났을 빼앗겼나

길을 잃어도 좋아
묘향산속에 내 있기에

맑고 깨끗함

하도 맑은 물 그냥은 못보네
큰 돌 작은 돌 옥그릇에 담았나
그릇이 옥이라 물이 아닌 구슬이네

옥같이 고운 돌 가면 다시 못볼듯
이 돌 저 돌 쓰다듬어 천천히 내리다

물도 고였다 쉬어서 가는데
나도 가다가 돌마다 앉아서 쉬어보네

앉아서 이런 생각도 하여보았네
지닌 마음 맑아 심장이 깨끗하구요
심장이 깨끗해 마음 더 맑은거라고

만폭동을 오르며

향산의 돌은 다 옥이던가
풀이면 다 향기로운 약초던가

이것도 저것도 기묘하고 진귀해
돌마다 폭포마다 이름을 물으면
아직 이름이 없다누나

형제바위라 부를가
옥류폭포라 부를가
생각하며 오르는새 마주서는 무명바위...

돌이 닳도록 오르내린 천년세월 못가진 이름
이 세월에야 가져야지, 응당 가져야지...

향산의 돌만큼 많은 이름
산곡의 여울만큼 많은 이름
아니아니 하는새 하나도 못골라 한탄하며
내리네

향산아, 노래밖의 물소리요
시냇의 돌이로구나

실참에

여기서 보면 저기가 더 좋고
저기서 보면 여기가 더 좋아
멀리 공장에서 왔다는 청년남녀들

저마끔 여기도 서보고
저마끔 저기도 기대보네

멋 좋은 바위를 골라, 폭포를 골라

고르다 해진다고 사진사는 야단인데
저 새소리, 저 물소리, 저 바람소리...
향산밖의 또 하나 향산은 무슨수로 찍으려나

선녀들은 하늘로 올랐지만

하늘과 땅사이 은하다리런가
일만폭포 층층 구름층계런가
비선폭포, 유선폭포...
선녀들이 내려와 놀았다는곳

하늘나라에서는 볼수도 없는

향기로운 은방울꽃이 고와서
수정같이 고인물 물이 좋아서
해종일 놀다 하늘로 올랐다는곳

오늘은 무지개 타고 내리는가
울긋불긋 고운 처녀 총각들

줄사다리 잡고 만폭동을 내리네
선남선녀되어 훨훨 내리네

훨훨 내려서 돌아들가네

공장으로 농장으로 떠나들가네
당의 해빛아래 꽃피는 내 조국이
하늘나라 별나라보다 더 좋아

묘향산을 내리며

오를 때 잠시 만난 향산처녀들
시 짓는 사람들이라고
제고장 노래를 지으러 왔다고
향기로운 산나물도 무쳐내오고
수정샘도 퍼주며 반겨주더니

내릴 때는 따라서며 손을 흔드네
-잘 가시라요
묘향산 노래를 많이 써달라요
이끌 저끌 메아리쳐내리는 그 목소리

향산의 말처럼 부탁처럼
길게 메아리쳐 따라오네
-...많이 써달라요

-...써달라요
-...요-

묘향산아, 당의 해빛 이리도 밝게 비치니
수수한 돌이라도 예 갖다놓으면
어찌 진귀한 옥이 되지 않으랴
아, 세상 기묘한 돌이 되지 않으랴

한없는 그 은혜로움을 생각하니
한길 이내 가슴이
생각 많아 천길로 깊어지는가
산은 끝나도 가슴에 메아리는 쟁쟁하네
-당에 대한 노래를 많이 써달라요

가사

수령님 계시여 조국은 빛나라

박필모

수천년 해와 달은 흘러갔어도
빛이 없고 봄이 없던 우리의 조국
은혜로운 사랑의 해빛은 넘쳐
주체의 내 조국은 빛을 뿌리네

아, 번영하라 조국이여
수령님 품속에 길이 번영하라

풀무소리 서글프던 하늘땅우에
철의 숲이 설레이는 부강한 조국
피눈물이 스며든 불모의 땅에
금나락의 물결이 넘쳐흐르네

아, 번영하라 조국이여
수령님 품속에 길이 번영하라

반만년 력사우에 찬란한 조국
세기의 령마루에 솟아난 조국
만민이 우러러 노래부르는
주체의 내 나라 길이 번영하라

아, 번영하라 조국이여
수령님 품속에 길이 번영하라

꽃필무렵

김영길

1

소원대로 고향으로 돌아온 《제대군관집》에 나이가 찬 딸이 있었다. 아들딸들을 다 시집장가보내고 하나 남은 막내딸이었다.

제대군관은 농장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배치되었고 《ㅎ》시 록화사업소에 다닐 때 원예기술 자격증을 탄 딸은 과수반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름은 박혜란.

키는 요즘 사회적으로 표준이라고 하는 늘씬한 키에 몸매는 흠잡을데 없이 미쳤다.

얼굴살결은 어찌나 희 맑은지 어둠속에 세워놓으면 꼭 떠오르는 달같이 환했다. 가까이에서 총각들은 감히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했다.

혜란이가 농장에 온지 달포가 지나 서로 풋났이나 익히게 되자 《제대군관집》에 밤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말로는 천연색텔레비존을 보러 온다지만 대체로 총각을 가진 로인축들이 오곤했는데 그들은 박혜란의 얼굴을 훑쳐보는 때가 더 많았다.

혜란이와 함께 일하는 과수반 총각들이 올 때에는 농산반이나 축산반에 있는 그들의 동무들까지 물어와서 천연색텔레비존을 보곤했다. 하지만 그 못총각들의 눈동자가 돌아가는것을 보면 속심이 뻔히 들여다보였다.

그러나 얼마 안있어 농장 총각들속에서는 벌써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도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것 같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하루는 저녁밥상에 마주앉은 혜란의 어머니가 귀동냥해들은 그 말을 외우면서 《정말 순박한 총각들이지.》라고 감심한 낯빛을 지었다.

아버지는 그저 허허 웃고말았다.

한동안 못듣는척하고 가만가만 수저만 놀리던 혜란이가 얼굴을 들고 《청년들이 어질기만 해선 뭘해요. 밤낮 쥐면 권대로 있는걸요...》라고 입빠른소리를 했다.

어머니는 그만 기가 딱 막혀 《체네가 입살이 그렇게 드세냐.》 하면서 딸의 허물이 집밖으로 새여 나갈가보아 당황해했다.

아버지는 농촌청년들을 아무렇게나 평가하는 딸을 그 자리에서 닦아세웠다.

그럴수록 혜란의 눈초리는 더욱 꽃꽂이 살아났다.

혜란은 오늘도 연두빛 구름이 내려앉은듯 복숭아꽃이 한창인 과수반을 향해 입속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다.

방금 솟아오른 해는 찬란한 빛을 온 누리에 확 뿌렸다.

그 금빛 후광속에 드러난 처녀의 모습은 또렷했다.

처녀의 흰목에서는 함박꽃문양이 선명한 머리수건이 안개발처럼 휘감겨 봄바람에 하늘하늘 춤을 추었다.

혜란이가 과수반으로 오르내리는 길목에 농장 수리분조 작업장이 있었다.

수리분조에서는 박혜란네와 세집 사이를 두고 사는 청년이 일하고있었다.

총각은 농장원이었지만 쇠붙이를 다루고 또한 웬간히 고장난 스피카나 텔레비존까지 주무를줄 알아서 농장에서는 기술자로 《위신》이 있었다.

거기다가 금년 정초 큰삼촌이 새로 군경영위원회 기사장까지 된후 그도 언제인가는 《발전》하여 군쯤에는 들어갈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러나 혜란은 처음부터 그 뒤집 총각을 질색했다. 한것은 거의 매일 밤마다 천연색텔레비존을 보러 오는 문화휴식시간마저 그 뒤주머니에 노기스를 빼죽하게 보이도록 차고 오는것이였다.

더우기 혜란의 불만을 자아내는것은 그 노기스를 언제 써보았는지 눈금주변에 붉은 반점들이 생긴것이였다. 그것이 《기술자》 혹은 농촌 《로동자》라는것을 알라는 무슨 치장품이거나 한지...

혜란은 이 아침 혹시 그 총각의 눈에 드릴세라 탄쪽에 시선을 팔며 총총히 걸어갔다. 그런데 난데없이 《메-》 《매해해-》 하는 양과 염소의 자지러진 울음소리에 깜짝 놀란 혜란은 그쪽으로 얼핏 고개를 돌렸다.

용접기, 모뜨는기계, 각종 비규격제관들과 쇠조박따위들이 널린 마당 한귀퉁이에서 누군가 어물거렸다. 작업복뒤주머니에 노기스가 빼죽한것을 보니 그 청년이 분명했다. 그 청년은 매여놓은 새끼염소앞에 죽치고앉아 먹음직한 풀을 섬겨주고 있었다.

박혜란은 얼른 외면하고 과수반을 향해 발걸음을 크게 떼었다.

혜란은 함께 한시대를 걸어가는 그 동무에게 진정으로 권고해주고싶었다.

우선 그 노기스는 무엇하러 항상 갖고다니는가 하는것이였다.

《전투무기》라고? ...그렇다면 한가지 더 권고하고싶었다. 그것을 전투무기처럼 항상 갖고 다닌다면 그 노기스가 손에 닳아서 노상 유리알처럼 반짝거리고 눈금이 지워지도록 써보라고...

또 한가지 충고하고싶은것이 있었다.

《기술》을 발휘하여 머리가 파뿌리같이 희고 허리굽은 집지기 로인들의 잔청찬이나 아낙네들의 말공대에 만족하지 말고 생활의 높은 목표를 가지고 살라고...

그러나 혜란은 한마디도 말 못하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해 파수반으로 올라갔다. 그리하여 박혜란이네와 거리상으로 제일 가까운곳에 살면서도 그 총각은 처녀의 기억속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으며 그의 심장으로부터 가장 먼곳에 서있게 되었다.

이즈음 혜란은 전에없이 봄날 아지랑이마냥 내뿜기는 청춘시절의 향수를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자신도 모르는사이 소녀시절을 지나 바야흐로 청춘의 문지방을 넘어섰던것이다.

혜란은 애써 번다한 생각을 잊고저 요즘은 더 일찍 출근했고 밤늦어서야 꿀을 나르는 벌처럼 꽃향기를 묻혀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곤했다.

2

어느날 밤이었다.

텔레비존을 보러 온 늙은이들이 주고받는 말마디들을 혜란은 먼거리로 얻어들었다. 수리공총각의 어머니가 어찌된 영문인지 전에없이 목청을 돋구어 말했다.

《샘골집 왁빈이녀석이 제대되어왔수다레.》

《아니 언제?》

《아침차루. 그런데 남들은 다 탄광이요, 바다를 막는데요 하구 로동자루 배치받는데 그녀석은 제 집으루 고스란히 온걸 보니 군대나가 일을 잘하지 못한 모양이지.》

《그래두 내 보니까 앞가슴에 붉은기혼장이랑 갈죽한 메달, 메사리랑 땃습디다.》

한 로인이 이렇게 제대군인을 두둔했다

그랬으나 뒤집로인은 한사코 제말만을 내세우는 것이었다.

《아무튼 그 애두 군복을 벗기전에 어디 가서 체네를 하나 달구와야지 손에 흙을 묻힌 다음에야 힘들지...》

《사람만 똑똑하면 장가못들겠어요. 농장에 술한 처녀들이 있는데.》

혜란의 어머니가 오래간만에 한마디 끼여들었다.

《그런데 그 녀석은 주먹쌈하는걸 배워왔다면... 원래 제애비를 닮아서 학교때부터 소문놓더니 쫓쫓쫓.》

혜란은 웃음이 나가는것을 겨우 참아냈다.

미국놈을 칠 힘을 기르고 온것이야 좋은 일이지...

혜란은 웃음이 까르르 새어나가는것을 손으로 재빨리 막았다.

그날밤부터 사흘후 혜란이 짐작한대로 그 청년

이 동무들과 함께 가극은 천연색텔레비존으로 보아야 제맛이 난다면서 왔다.

박혜란은 묻지 않고도 그 청년이 샘골집제대군인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 제대군인청년은 팬스레 잘 나오는 조절기들을 건드려도 보고 안테나줄도 뒀다구부렸다 해보면서 제집물건 다루듯했다.

제대군인 강왁빈은 식구들속에 끼여앉은 혜란을 알지 못하는듯했다. 단한번도 헛눈길을 파는일이 없었다. 가극이 다 끝난 다음 강왁빈은 제손으로 스위치를 때각끄고 일어섰다.

《내가 중대텔레비책임자를 할 때는 아무 사고 없었는데... 그 친구 화면을 밝게 해놓고 끄는지 모르겠군.》

라고 혼자소리를 했다. 아마 인계하고온 동무를 두고 하는 걱정같았다.

혜란은 뒤집어머니가 그 무슨 《쌈군》처럼 형상한 그 제대군인을 호기심어린 눈으로 살펴보았었다. 생각했던것보다 우락부락하게 생기지 않았다. 이름과 같이 외형도 더 개성적이었던면 오히려 좋았을것이다.

보통키에 몸은 갱뽕한 축이었다. 아직은 불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있는 광석이 아니고 불속을 거쳐나온 강철덩어리라고 할가... 그에게서 애써 허물을 찾으려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눈섭밑을 좀 파고든 가느스름한 사색적인 눈이었다.

어느날 점심참이었다.

혜란은 집에도 내려가지 않고 파수원속에 있는 원두막에 혼자 남아서 시약처리를 하고있었다.

요즘 박혜란은 남몰래 속을 태우는 일이 있었다. 약처리를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서부터였다. 명색은 원예기수인데 도시룩화와 관련된 나무들이나 화단의 꽃들만 다루어온 혜란은 꽃이야 굵든 밍든 파수반에서는 열매가 중하며 그 한알 한알이 국가농업생산물 통계수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것을 자각할 때 속이 빠질빠질랐다.

그래서 혜란은 하루속히 단독으로 파수반에서도 기수의 역할을 수행할 결심으로 요즘은 밤을 패기가 일쑤였다. 오늘은 점심종이 울린것도 알지 못하고 일하고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등뒤에서 딱-하고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혜란은 깜짝 놀라 시험용갈때기를 떨어뜨리면서 발짝 일어섰다. 혜란네가 사는 리소재지로부터 5리 떨어진 샘골에 사는 그 제대군인청년이 마른 사과나무가지를 하나 들고 서있었다.

《미안합니다. 실험을 방해해서, 그런데 이런 삭정인 따쥬도 일없었지요?》

제대군인이라 무점도 좋았으며 또한 말마디들에 그 무슨 뜻이 숨배여있는듯도 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혜란은 가볍게 머리숙여 인사를 하면서 물었다.

혜란은 자기 아버지도 제대군인이라는 점에서 상대가 군관이건 병사이건 제대군인 일반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을 가지고 대했다.

제대군인 강왈빈은 우물쭈물하지 않았다.

《귀중한 시간을 빼앗아서 미안합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솔직히 대주십시오.》

《네-에?-》

혹시... 그런 이야기나 아닐까?...

혜란은 그만 당황해났다. 농촌으로 이사온지 얼마안되었는데 벌써 이런 일을 당하다니... 혜란의 가슴은 나는새를 품은듯 푸득푸득 뛰놀기 시작했다. 혜란은 마치 공기부족을 느끼는 사람처럼 숨만 가쁘게 몰아쉬었다. 눈물까지 나오는것을 허끝을 깨물면서 참았다. 혜란은 아직 그 누구를 대상으로 사랑을 속삭여본적이 없었다.

그러나 사랑이 이렇게 아무런 생활과 감정의 축적도 없이 무의미하게 맺어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한참후 혜란은 머리를 들었다.

도대체 나-박혜란을 무얼로 아는지 모르겠다.

군복을 말끔히 손질해입고 목달개도 새것으로 갈아달고... 그래 혹시 이곳 로인들의 말처럼 그것으로 얼렁뚱땅 처녀들을 《남》자는것인가?

첫날 자기 집에서 보았던 다소 좋게 가진 인상마저 순식간에 다 날아나고말았다. 혜란은 이것은 자기 하나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처녀들 일반에 대한 옳지 못한 태도인것이다. 생각할수록 참을수 없었다. 더우기 혜란을 당황케 하는것은 벌써 이런 문제가 소문나면 청년은 고사하고 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딸인 혜란이 자신은 얼마나 방정치 못한 처녀로 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실상 혜란은 이 봄 꽃피는 계절 과원에서 일하면서 가슴속에 소중한 꿈을 키워가고있었다. 혜란의 꿈은 소중할뿐만아니라 한 인간이 전생을 바쳐서도 도달할수 없는 원대하며 높은 리상이라고도 볼수 있었다.

그것은 늦가을에 따는 복숭아는 왜 없는가?... 보통 사과알을 주먹 두개만큼씩 할수는 없을까?... 길가너에도 과수나무를 심고... 어느것이든 하나를 틀어쥐고 파봐지지...

이것은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혜란의 가슴속 비밀이였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자꾸 끼여드니 짜증도 날만했다. 그렇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청년에게 큰소리를 칠수도 없었다. 혜란은 애써 자신을 달래면서 침착하게 청년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처녀의 눈에서 내뿜기는 강렬한 빛에서 다소 주눅이 들었던 청년은 어물어물 물었다.

《저-혜란동문 자기의 직업을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너무도 천만뜻밖의 질문이였다.

《예?-》

혜란은 놀란 눈을 치뜨면서 청년을 마주보았다.

《만족한 모양이군요. 듣건대 동무의 꿈이 크다고들 하더군요.》

혜란은 도톰한 입술에 미소를 담고 여유있게 대답했다.

《그런데 저의 꿈은 농산반이 아니라 이 과수원에 있어요. 오직 전 그 길로만 걸을거예요.》

《갑자기 그 길이 달라질수도 있지 않을까요?》

《없을거예요...결코...》

《웁습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동무도 나처럼 온지 얼마 안되었다기에 왔었습니다. 동무의 신념에서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렸으나 점차 그의 말과 행동에는 아무런 가식도 없다는것이 알렸다. 모든것이 진심으로 감수되었다.

《하긴 꿈도, 그를 실현하는 길도 각이하지요. 그래야 사회가 골고루 발전할테니까요. 물려나 화학이나 농학, 어느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되니까요. 그럼 부탁할것은 부디 동무의 꿈이 실현되기 바랍니다. 동무가 연구한 새 품종의 사과와 복숭아를 우리 농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혜란의 시점에서 강왈빈을 다시한번 쳐다볼때 그는 너무도 혜란의 마음속을 휘저어놓았다. 아니 휘저어놓은것이 아니라 뒤집어놓았다.

자기는 이 청년이 사랑의 감정을 털어놓으려고 얼마나 속된 생각을 하고있었던가... 혜란은 낮이 달아올랐다.

청년은 올 때처럼 조용히 과수밭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유난스럽게 무겁고 뚜렷한 발자국소리가 혜란의 귀가에서 오래도록 울렸다.

《아이참, 저 동문 어떤 동무인가?...》

3

어느날 박혜란은 사철 큰길 작은길 가림없이 바락스럽게 굴러다니는 《충성》호를 끌고 관리위원회 창고로 내려갔다. 살충제를 타야겠는데 창고장은 없고 그가 자작 깎아채운 뚜꺼비만한 자물쇠가 걸려있었다.

그 뚜꺼비자물쇠가 아직도 흔들거리는것으로 보아 방금 채우고 나간것이 분명했다.

혜란은 창고장을 찾아 관리위원회 사무실로 향했다.

통계원아주머니가 문밖에 서서 불안한 시선으로 사망을 살피고있었다.

혜란은 그에게 눈인사를 하고 사무실로 들어갔고 했다.

통계원은 급히 혜란의 앞을 막아나서면서 소곤 소곤 말했다.

《들어가지 말어.》

《회의중인가요?》

《아니. 그지-》

《창고장동무 안았어요?》

《아니-》

통계원은 될수록 빨리 헤란이가 돌아갔으면 하는 눈치였다.

헤란은 이상한 눈으로 통계원을 바라보았다.

때마침 사무실안에서 아버지의 자못 성난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몇번 설명해야 알겠소? 엉-래년에 가라구 래년에.》

《하루가 천금같은데 1년을 쫘땅 보낸단말입니까. 청춘시절이 뭐 무한대인줄 아십니까?》

《이 동무 말하는걸 보오. 우리 나라에서야 늙은이도 다 공부한다는걸 모르오.》

《됐습니다. 그런 말씨름하자구 온게 아닙니다. 빨리 문건에 수표를 하십시오. 관리위원장동무가 없을 때에야 부위원장동무가 해야지요. 위원장이 없다구 시간을 멈춰세우겠어요.》

《참 답답한 사람이로구만. 누가 수표가 무서워 그러오? 금년엔 다 끝났다질 않소. 이자 전화거는걸 동무도 듣지 않았소?》

《한명이라도 더 보내면 좋지요. 좋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군에 올라가서 해결해보겠습니다. 공격전술은 똘다 똘해요.》

헤란은 그 목소리의 입자가 누구인지 딱히 짐작이 가지 않았다.

목소리는 불손하다할만치 우렁치고 삼가함이 없었다. 헤란은 눈짓으로 그쪽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누구예요?》

《3반 물관리공 안야. 엇그제 온 사람이 학교 안보내준다고 대관 싸움이지. 벌써 농사가 싫증난 모양이야.》

통계원아주머니는 아니꼬운 투로 말했다. 그제사 그 목소리가 어렴풋이 기억났다. 왁빈이란 제대군인 청년이었던것이다.

《어느 대학이래요?》

《어느 대학은 무슨 어느 대학-농대통신을 보겠다는거지.》

《그래요!》

《글쎄 금년에는 끝났다는데두 자꾸 아버지와 맞서질 않아.》

《……》

이때 운전수처녀가 《기수동무, 창고장아바이가 왔어요.》하고 찾는바람에 헤란은 그 《대관싸움》이 어떻게 끝나는지 결말을 보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헤란은 왜서 자기가 창고를 향해 쫓기듯 뛰어갔으며 가슴이 사뭇 떨려나는지 알수 없었다. 헤란의 가슴속에서는 꼭 짝이 이름할수 없는 오묘한 감정이 뒤엉켜돌고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무엇인가가 즐거웠듯이 그를 기다리고있을것만 같

았다. 그래서였던지 오늘은 일에 성수가 났다.

헤란은 아직 완두알만큼씩 맺힌 사과알들과 뽕안 보습털속에 묻힌 갈썩갈썩한 복숭아들이 다닥다닥한 아지들을 매만지며 해가 지는줄 모르고있었다.

그러면서도 헤란은 하루일이 끝날 때쯤 되면 늙은이들의 억척과 입이 쟁 치녀들의 주고받는 말속에서 농장의 크고작은 일까지 얻어들을수 있었다.

그런데 이즘은 3반 물관리공 강왁빈의 이름이 처녀들의 혀끝에 자주 묻어나왔다. 헤란은 아버지와 《대관싸움》한 그날 강왁빈이 군에 들어갔던 이야기도 얻어들을수 있었다.

그날 강왁빈은 물관리공이란 완장도 벗을새 없이 지나가는 화물자동차를 잡아타고 군으로 들어갔다.

왁빈은 직방 군인민위원회 교육과장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과장동지! 농대 통신에 보내주십시오.》

과장은 밀도끝도없이 들이대는 낯모를 청년이 오히려 기특했던지 허허 웃으면서 물었다.

《동문 도대체 누구요?》

《저요? -세상사람들을 먹여살리는 농민이지요.》

《뭘요?-동무가 세상사람들을 먹여살린단말ियो? 하하하...》

《하하하...》

왁빈자신도 말해놓고 보니 지내 허풍을 편것같이 소리내 웃고말았다.

《어느 농장이요?》

《학봉입니다.》

《오-동무로구만. 학봉에 든든한 기동감이 또하나 생겼군. 제대군인이겠지.》

하면서 과장은 사업수첩을 펼치고 필요한것들을 적어넣었다.

《그런데 금년엔 늦었소. 이미 시험이 끝났을거요. 래년에 해봅시다.》

《다 끝났을가요?》

《끝났을거요.》

《별도리가 없습니까?》

《잘 모르겠소. 그건 대학에서 하는 일이니까.》

《기본을 놓치구 괜히 천연색텔레비죤 보러 다녔는데 허참.》

그는 진실로 탄식했다. 그것은 얼마동안이기는 하나 공연히 처녀의 꿈무늬를 쫓아다니느라고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는 자책감에서 나온 소리였다. 그러나 그 말의 진 뜻을 아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다. 강왁빈은 며칠후 폐질쓰다싶이 하여 도소재지에 있는 농업대학으로 올라갔었다.

이미 입학시험은 끝났고 그가 가졌던 한가닥의 미련, 《추후시험》과 《별도》란것은 없었다.

대학에서는 다음해에 꼭 찾겠다고 했다.

왈빈은 돌아서는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 파수반처녀들이 하는 말은 사실과 달랐다.

《그 동무가 글썽 대학에 가서 미역국을 먹고 내려왔다잖아.》

혜란은 아버지에게서 들은대로 처녀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고싶었다.

《아니야, 늦어서 그랬는데 래년에 대학에서 찾는다누나.》

처녀들은 혜란의 말을 귀등으로 흘려보냈다. 혜란이한테도 물론 이 처녀들처럼 3 반 물관리공이 래년에 대학통신을 보게 된다는것이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다. 다만 혜란은 일하면서 검정시험으로 원예기수가 된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그것이 얼마나한 인내력을 요구하며 정력을 바쳐야 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오늘 돌이켜보면 그것은 혜란이라는 인간의 의지와 완강성에 대한 《검정시험》이기도 했었다. 더우기 농촌에서 일하면서 통신수업을 받으려면 많은 애로와 또한 육체적피로도 겹쌓일 것이다. 실로 높은 리상과 비상한 의지가 없이는 결코 그것을 점령할수 없는것이다.

혜란은 이 강왈빈이라는 청년처럼 시작은 요란스럽게 떼놓고 《대학중퇴》라는 학력과 자기 위안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으며 반면에 노동자가 발명가로 되는 경우도 보았다. 하지만 강왈빈이야말로 어느쪽의 청년이겠는지 아직 속단할수 없었다.

어쨌든 그 청년은 관심밖에 들수 없는 사람이였다. 혜란은 속으로 《참, 그 대답이 결박이지. - 세상사람들을 먹여살리는 사람이요-우리 농민들의 배짱이 그쯤해야 땅과 물을 다스리지.》라고 생각하면서 남몰래 미소를 지었다.

옆에서 함께 일하던 처녀가 쉴쭈해지면서 말했다.

《아니, 언닌 무얼 혼자만 웃어요. 제속에 비밀은 고개너머에 감추어두고 남의 말만 들으면서...》

그 말에 혜란은 덴접을 하면서 웃었다.

《호호호...에두, 이 사과알이 왜 이렇게 빨리 클가...》

《열매가 금방 맺혔을 땐 빨리 큰대요. 아무일두 그리찮아요.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배같다가도 불시에 암초에 부딪치구.》

《호호호...》

혜란은 어째서인지 얼굴로 열풍이 휩 스치고 지나가는듯하여 웃으면서 고개를 푹 숙였다.

4

파수원안은 나래를 둘러친 모관자리처럼 아늑했다. 봄별은 나무잎사귀들 틈새로 따뜻이 흘러내렸다.

박혜란은 벌써부터 새콤한 향기가 풍기기 시작한 파수밭속을 종이로 땡땡 돌아치다가 해가 질 무렵에야 작업반 사무실로 나왔다.

오늘은 농장문화회관에서 영화를 돌리는 날이다. 작업반 처녀 총각들은 어느새 다 들어가고 반장이 혼자 앉아 작업일지를 정리하고있었다.

탈의실에서 나들이옷을 갈아입은 혜란은 마을을 향해 부지런히 걸어갔다. 혜란의 마음은 늦은것만 같아 조마조마해났다.

수리분조앓을 지나 좀 더 내려갔을 때였다. 고개를 가웃이 숙이고 발만 재게 놀리던 혜란은 앞에서 《메-》《애해해-》하는 뿔양과 염소의 울음소리에 깜짝놀랐다.

혜란은 재빨리 동쪽아래로 내려섰다. 지름길로 갈 생각이였다. 논두렁길은 좀 위태롭기는 했어도 혜란은 서슴없이 그쪽길을 택했다. 벌써 성큼하게 자란 두렁콩잎들이 정강마디를 간지럽혔다. 혜란은 이따금 허리를 굽혀 말려오르는 치마자락을 바로잡곤했다.

밭밑에서는 해갯 더워진 논물이 습습한 물비린내를 물큰물큰 풍기며 흘렀다. 밭앞에서 놀란 개구리들이 찹병찹병 논판으로 뛰어들었다. 벌써 아지를 쳐 이랑을 덮은 벼포기들이 바람이 불 때마다 푸른 파도를 일으켰다. 그 희푸른 파도의 갈기는 두렁을 넘어 저멀리 파수밭 등성이밑까지 굵실굵실 밀려갔다.

저으기 진정된 마음으로 장엄하게 뒤설레는 벼바다를 바라보며 걸던 혜란은 《어마나-》하고 가벼운 비명을 올리면서 논두렁에 오뚝 멈춰섰다.

인수로에 삼목을 박고 삽자루에 몸을 싣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흙탕물이 뒹긴 다리를 물속에 잠근채 무엇인가 골똘히 들여다보는것이였다. 한팔에 물관리공완장을 낀 그 사람은 강왈빈이였다.

그는 인기척도 느끼지 못했다.

혜란은 저도모르게 뒤를 돌아다보았다. 동쪽에서 너무도 많이 들어왔기에 되돌아갈수도 없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길을 피해줄념을 앓았다. 혜란은 어쩔줄을 모르고 선자리에서 잠시 망설이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먼하늘 우뢰마냥 크르릉-하고 사람 코고는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혜란은 두눈을 떴다.

그제사 혜란은 맘을 놓고 그 청년을 내려다볼수 있었다.

말뚝잠을 자고있는 청년의 턱밑에는 종이장이 놓여있는데 금방이라도 인수로에 날아들듯 한쪽 귀가 바람결을 따라 위태롭게 나풀거렸다. 그리고 손에서 미끄러져내린듯한 연필대는 다행히도 벼포기에 꽂혀 물결을 따라 간들거리고있었다. 혜란은 이상하게 가슴이 쭈해졌다. 코안이 매와 나면서 눈곱이 뜨거워졌다.

종이우에는 그가 말은 포전락도가 그려져있는데 얼기설기 뻗어간 수로와 인수로로 푸른색연필

로 표식한것이 얼핏 보기에는 군사지도와 흡사했다.

정상적인 푸른 선들과 황토색 발지경들을 지워버리며 큰 감자알만큼 붉은 동그라미가 그려있었다. 그안에 《랭습지 300 평》이라는 이름이 적혀있었다.

한쪽 여백에는 가마형 특별물저장고와 태양열에 의한 보충보온 등 그 랭습지의 물온도를 더 높이기 위한 다섯개의 방안이 적혀있었다. 또한 랭도의 맨 우 하늘중천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2억도라고 쓴것을 보니 아마 태양온도를 기입한 모양이었다. 태양온도는 것처럼 높는데 그 열은 어디로 가고 자신은 물온도 1°를 높이지 못하여 모대기다가 안타까움을 종이우에 그대로 옮긴 것 같았다. 그 하나하나가 깊이 연구하고 탐구한 흔적이 알렸다. 물리 화학적담보를 가지고있는 방안들이었다.

혜란이 보기에는 그것이 단순한 땅파기와 같은 노력만이 아니라 그의 매사가 대학시험 응시를 위한 준비와 결부된듯도 했다. 비록 흙탕이 튀긴 선과 점 하나에도 그의 땀과 성실성이 배인것으로 하여 소홀히 대할수 없었다.

혜란은 발밑에서 축축한 논두렁흙을 뜯어내어 종이 네귀에 지질러놓았다. 그리고 연필을 주어 종이우에 놓고 그 자리를 피해 걸어갔다. 혜란은 뒤에서 누군가 꼭 부르는것 같아 얼핏 고개를 돌려 보았다. 여전히-크르릉소리만 높낮게 들릴 뿐 별판은 고요했다. 대지에는 어느덧 땅거미가 지고있었다. 하늘에는 하나 둘 별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 웬일인지 혜란의 마음속은 흥그러워지고 설레었다.

집으로 돌아온 혜란은 왜서 그런지 그 무슨 죄를 지은듯 가슴속이 불안해났다. 밥상에 나앉은 혜란은 자기도모르게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어머니가 허끝을 차면서 나무랐다.

《쫓쫓쫓... 정신은 벌써 회관에 간게로구나. 영화시작하려면 아직 멀었다.》

혜란은 다시 수저를 잡으면서 조용히 말했다.

《좀 더 있다가 시작하면 좋겠어요. 벌에 나간 사람들이 다 들어온담에.》

《벌에서야 아직두 안들어온 사람들이 있을라구.》

《글쎄 모르지요 뭐...》

혜란은 말끝을 얼버무리면서 밥그릇우에 얼굴을 묻었다.

주름을 넘지않게 잡은 물색치마에 같은 색깔의 브라우스를 입은 혜란은 아무곳에 서있어도 눈에 띄었다. 여직 별반 말을 건네지 않은 농산 반치녀들조차 결눈질로 혜란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끼리 소곤거렸다.

혜란은 과수반에서 함께 일하는 단발머리 앵금이와 나란히 앉았다. 혜란은 앵금이 몰래 회관좌

우와 앞뒤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아니, 누굴 그렇게 찾아요?》

앵금은 동그란 눈에 의문을 담고 물었다.

《찾긴 사람들이 다 왔나 봤지.》

《다 왔어요. 빨리 시작하면 좋겠네.》

혜란은 말없이 한숨만 호-하고 내쉬었다. 혜란은 자신이 누구를 찾으며 기다리든지도 알지 못했다. 그저 누군가 꼭 와야 할 사람이 늦어지는 것 같은 안타깝고 허전한 심정이였다. 그러다가 누구를 찾는가 하는 앵금의 말을 듣고서야 자기가 바로 한사람을 기다렸다는것을 의식했다. 혜란은 소스라치듯 놀랐다.

그 사람을, 무엇때문에... 기다리는지 자신도 알수 없었다.

혜란은 《한사람이라도 영화에 늦으면 안되지 뭐.》하고 멀리 객관에 자신을 세워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러한 어리손으로 자신을 도저히 달랠수는 없었다.

혜란은 영화가 언제 시작되고 끝났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장내에 불이 환히 밝혀지자 사람들이 떼를 지어 헤쳐갔다.

혜란은 앵금의 손목을 살그머니 당겨 앉히면서 나중엔 나가자고 귀속말을 했다. 앵금이는 손목을 잡히운채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안절부절 못했다.

《왈빈오빠가 왜 안보일가?-함께 가야겠는데.》

《한마을이니?》

《그러찮음-》

《내가 데려다줄게.》

《그 먼데까지》

《괜찮아.》

혜란은 앵금이와 함께 그쪽길을 밝아보고싶었다. 이제는 자신으로도 어찌할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이 그를 끌어당기는것이였다. 혜란은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고 해도 그 청년이 이 밤 무엇을 하고있는지 속 시원히 가보지 않고서는 못 견딜지경이였다. 이 감정과 충동은 한갓 호기심 따위가 아니였다. 그리하여 혜란은 앵금이를 바래줄겸 함께 떠났다.

앵금이를 집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나오던 혜란은 후둑후둑 뛰는 가슴우에 두손을 포개여 없고 언제인가 《저 동문 도대체 누구인가?》고 의문을 품었던 그를 한발자국 가까이 접근하여 알아보고싶었다. 그러나 혜란은 그의 집이 어디인가고 앵금에게 종시 묻지 못하고 떠났던것이다.

길역집의 창문에 유독 불빛이 환한데 영사막처럼 누구의 그림자인지 포렷이 비친것이 시선을 끌었다.

다감한 이 시절에는 예감으로 감수하는것들이 많은지라 혜란의 가슴은 괜히 두근거려났다. 그 청년이든 누구든 밤늦도록 책과 씨름하는 사람

게 존경이 가는것이였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이
 욱도록 까닥 움직이지 않았다. 아까 논고에서 본
 강월빈이처럼 저 사람도 잠시 쪽잠에 든가싶었
 다. 모자채양같이 이마앞으로 삐죽 나온 머리칼
 그림자를 쓸어올렸으면 했으나 그 사람은 여전히
 한본새로 앉아있었다.

꼭 그 청년의 체취가 느껴지는것이 이상했다.
 헤란이 그만 돌아서려는 때 한손을 약간 들더니
 책장을 넘기는것이였다. 밤을 패려는 모양이였다.
 저렇게 밤새 공부를 하고 낮에는 피곤을 잊으려
 고 논물에 발을 잠그고... 고달픈것이다. 자신도
 그렇게 졸음과 싸우느라 얼음조각을 이마에 문지
 르며 공부를 했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그
 밤들은 자기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남는 나날들이였다. 그것을 《고달픔》으로 생각
 하고 애초에 꿈도 꾸지 않거나 말로만 공부를 하
 는 사람들은 생활의 보람을 느낄수 없으며 종당
 에는 아무런 일도 해내지 못할것이다. 사람들 특
 히 청년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목표가 있고
 포부와 이상이 있고 그를 점령하기 위해 투쟁할
 때만이 생의 보람을 맛볼수 있는것이다. 그러한
 청년은 물고에서 하루해를 보내건 천길 지하막
 장에서 일하건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커다란
 존경을 받게 되는것이다...

한동안 자기 생각을 떠나가던 헤란은 손등이
 선뜩해나는데 흠칠하면서 정신을 가다듬었다.

밤새 자라느라고 바라오르던 줄당콩순이 감길
 곳이 없어서 그만 처저내렸던것이였다.

헤란은 허공에서 너들거리는 줄당콩순을 조심
 히 당겨 울바자 기둥목에 라선형으로 열기설기
 감아놓고 실오리로 헐겁게 동여맸다. 생활이란
 이렇게 뜻과는 달리 보이지 않게 서로서로 편결
 되기 마련인모양이였다.

헤란은 호젓한 밭길을 걸으면서 많은것을 생각
 하게 되었다. 이 밤따라 유난스럽게 깜빡이는 아
 기별들은 헤란의 넋을 끌고 자꾸 꿈세계에로 줄
 달음치군했다.

5

첫물 올복숭아를 따는 날이였다.

헤란은 종일 복숭아상자를 저날랐다. 조금도
 힘든줄을 몰랐다. 입속에서는 줄곧 노래만 흘러
 나왔다. 일생 처음으로 자기의 성실한 로력을 들
 여 가꾸고 마침내 그 열매를 따보는 사람들의 흥
 분과 보람이 처녀를 이처럼 동뜨게 한것이였다.
 그의 기쁨속에는 말못할 감정도 숨어있었다. 헤
 란은 향수가 물씬물씬 풍기는 꽃수건에 말큰말큰
 하게 닦알같이 잘 생긴 복숭아 다섯알을 따서 골
 라쌌다.

파수원에서 하루일을 마친 헤란은 옷을 갈아입
 고 길에 나섰다. 그의 발길은 항시 습관이 된듯
 실게 언제인가 한번 걸어보았던 논두렁 지름길로
 접어들었다. 헤란은 그것을 의식하고도 발길이

하자는대로 내쳐걸었다. 다만 그날처럼 그 동무
 가 말뚝잡이라도 들어 걸음을 방해하지 말았으면
 얼마나 좋으랴싶은 심정뿐이였다.

어디선가 철썩덕-하는 삽질소리가 났다. 헤란
 은 그 자리에 주춤하니 멈춰서며 복숭아꾸레미를
 가슴우로 추켜들었다.

철썩-철썩-무엇인가 파제끼는 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헤란은 하는수없이 자취를 죽여가면서
 머밀머밀 다가갔다. 그가 보지 않는 째에 얼른
 지나가야 했다. 거의 다가가서 그의 옆을 지나치
 려는데 자기앞으로 물이 툭툭 흐르는 시커먼 흙
 덩이가 썩-바람을 일구며 지나가는통에 헤란은
 그만 가벼운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물러섰다.

《에그머니-》

그제사 인기척을 느낀 강월빈은 삽을 박고 허
 리를 펴는것이였다. 어둡때문에 한동안 익히 이
 쪽을 주시하던 그는 헤란을 알아보았는지 깉듯이
 사과의 말을 하는것이였다.

《실례했습니다. 어서 지나가십시오.》

헤란은 훌쩍 떠나기가 멋해서 오히려 두어걸음
 물러서면서 입안소리로 말했다.

《저-밤늦게까지 뭘하세요?》

청년은 대답에 앞서 허거프게 웃으면서 삽자루
 를 슬슬 내리썰었다.

《주먹치기와 싸움을 하는셈이지요. 모르는것이
 많으니까 흐르는 물하나 다루기도 벅차군요.》

《예?-》

헤란은 그의 말뜻을 인차 짐작할수가 없었다.

《헤란동무, 방조를 좀 주겠습니까?》

《제가 무슨...》

《이건 녀성들이 잘 아는 일입니다. 제가 보는
 구역에 <300 평포전>이라고 부르는 랭습한 땅이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략도에는 그런 대명사가
 붙었는데 제가 다시 재여보니 301 평입니다. 왜서
 그런지 그 논밭온도는 0.8~1 도가 낮습니다. 반
 장아바인 어쩔수없는 포전이라고 합니다. 아마
 몇세대를 내려오면서 붙은 딱지인것 같습니다.
 그걸 물관리공 강월빈의 세대에 와서 좀 고쳐보
 자는것입니다. <300 평포전>의 성분과 리력을 개
 조하는셈이지요. 그래서 인수로외에 여기에다 가
 마처럼 웅덩이를 파고 물을 보충적으로 데워서
 특별공급을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영농공정에
 없는 일이라고 달가와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고생을 사서 한다고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구만
 요. 어쨌든 물온도만 높이면 그만이겠는데 동무
 생각에는 이게 가마구실을 할것 같습니다까?》

헤란은 점차 가슴이 후터워올랐다.

언제인가 보았던 가마형 물웅덩이를 실천에 옮
 기는것이였다.

《되겠지요. 전... 농산반일은 잘 모른답니다.》

《원예기수동무보고 농산반 일까지 다 알라는것
 은 무리하지만 알아서 나쁠거야 없지요. 동무도

집에서 부모님들의 하는 일을 눈여겨보십시오. 자식들중에서도 허약한 애들에게는 닭곰같은것을 따루 해먹여 몸을 추서게 하지 않습니다. 원리는 같겠지요?》

《예.》

헤란은 괜히 주눅이 들어 뻘한 생각도 씨원히 터놓지 못하게 되는것이 안타까웠다.

왈빈은 처녀의 길을 너무 지체시키는데가 안되었던지 흘러내린 바지가랭이를 다시 말아올리면서 말했다.

《미안합니다. 어서 가보십시오.》

헤란은 청년의 앞을 무심히 지나칠수 없었다. 복숭아꾸레미를 받쳐안은 손으로 가슴을 지그시 누르면서 한동안 선자리에서 바재이었다. 이즈돌아가는 소문도 그렇고 오늘 목격한 일도 있는 터라 꼭 묻고싶은것이 있었던것이다.

논두렁에 앉아서 포전락도를 그리며 랭습지개량을 위한 연구에 골몰하다가 잠든 그, 밤을 패며 책장을 번지던 그가 요즘은 오늘 본바와 같이 무슨 가마요 물온도요 하는데에만 정신을 쏟고 있는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벌써 대학시험준비를 까맣게 잊었던말인가?... 리상이 있어 울려다보던 그가... 헤란은 끝내 물어보기로 맘먹었다.

《요즘 바쁘시겠어요.》

《마찬가지지요. 파수반이나.》

《그래두, 동문 시험준비까지 하잖어요. 참 이젠 준비를 다 끝냈는가요?》

《?...》

한쪽눈을 찡긋하게 뜬 강왈빈은 처녀를 유심히 뜯어보기 시작했다.

그 질문의 밑바닥에 흐르는 처녀의 진심을 찾아보려는듯한 눈매였다.

헤란은 너무도 경박한 질문을 한것 같아 낮이 화끈 달아났다. 헤란은 눈을 내리깔았다.

청년은 한참만에 대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학공부나 자격증에 그 어떤 다른 의의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저는 사정이 다르지요. 제가 공부하는것은 이 논벌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리공인 저에게 문제로 되는것은 물온도 1 도입니다. 알곡 천오백만톤고지도 결국 이렇게 점령되는것이구 세기를 내려오면서 머리속에 박인 사람들의 낡은 관습도 여기서 수술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가요 헤란동무.》

《.....》

헤란은 그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싶었다.

실로 이 청년의 아름다움은 어데 있었던가...공부를 한단데, 높은 리상과 포부를 가졌다는데에 있는것이었던가... 아니었다. 그의 리상은 시대와 사회적요구에 순응한 고결한것이었다. 그것은 이땅을 사랑하는 감정, 진정한 조국애, 공민적

인 도의감에 있는것이였다.... 그것은 진정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 승화된 체질적인 그의 사상감정이였다.

이번에는 청년이 처녀에게 물었다.

《헤란동무,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뒤집 앵금의 말을 들어보면 처음 파수반에 왔을 때 동무의 포부가 대단했다더군요. 가을철복숭아를 연구하겠다고 했었던가... 그래 얼마나 진척되었는가요?...》

우리 농민들에게는 특히 5 분열이 금물입니다. 지구성이 있어야지요. 사람이란 내건 목표가 황홀한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로정이 빛나고 아름답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헤란동무.》

《.....》

공감이 클수록 대꾸하기가 더욱 힘겨웠다. 청년의 말마디들은 마치 어서 크게 내달으라고 자신의 등어리에 내려지는 채찍파도 같이 아팠다.

헤란은 이 청년이 또한 이렇게도 타협없이 모질고 예리할줄은 몰랐다.

《진 사실 오늘 할일을 다하지 못해서 함께 견지 못하겠습니다. 자- 어서 지나가십시오.》

하면서 리정표처럼 손을 들어 저쪽 길을 가리켜보였다.

헤란은 어떻게 청년의 앞을 지나쳤는지 알수 없었다. 허둥지둥 걸던 헤란은 등뒤에서 들리는 누군가의 말소리에 흠칫 멈춰섰다.

《복숭아 냄새가 나는데? ...파수반처녀가 지나갔지. 허허허...》

강왈빈의 능청스러운 목소리였다. 앞으로도 그의 눈을 속여낼수는 없을것 같았다.

그제사 자기의 품속에 든 복숭아꾸레미를 의식한 헤란은 고개를 떨구고 더욱 불이 나게 걸어갔다. 될수록 빨리 멀리 벗어나고싶었다. 복숭아냄새가 물씬 풍겼다. 어째서 복숭아를 가져왔겠을까. 누구를 주자고...

생각할수록 귀밀이 불로 지지는것처럼 핫핫 달아올랐다.

헤란은 청년의 모진 말을 듣는 첫순간 그가 자기에겐 양갓음을 한다고만 생각했다.

아- 내가 왜 그 길로 접어들었던가...짜지-짜... 나자신이 그를 얼마나 모욕했던가... 아니, 아니야, 난 그를 모욕한것이 아니라 그에게 요구했어... 오늘같이 훌륭한 리상을 가지고 살라고... 바로 오늘과 같이 생활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달라고 요구했을따름이야... 그런데... 그런데...

헤란은 두번이나 발을 헛디디고 눈물에 빠졌다. 치마자락이 온통 화락하니 젖었다. 헤란은 큰길가에 나온 다음에야 저으기 진정할수가 있었다. 비로소 감정을 극복하고 생각을 정돈하기 시작했다.

리성적인 사고를 할줄 아는것이 헤란의 우점이고 그를 현숙한 처녀로 만든것이였다.

...내가 이제껏 바라던 사랑의 감정은 무엇이었
던가? 저 청년처럼 꽃과 가지와 잎사귀가 뜯기을
지언정 뿌리만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리상, 그러한 정신력을 가져야 한
다.

혜란은 언제 집마당에 들어섰는지 알지 못했다.
혜란은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텔레비존이 끝
날 때까지 토방에 앉아있었다. 혜란은 앞산마루
로 떠오르는 둥근달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툫아나
갔다.

혜란은 입속으로 이렇게 속삭이었다.
왈빈동무!... 동무는...동무는 아름다움을 지향
하는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쥐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한 처녀의... 심장도...
그것은 처녀의 입에서 나온 첫사랑의 고백이었
다.

이 밤도 꽤며 글줄을 더듬어가는 왈빈은 처녀
의 진실한 감정의 호소를 들을 겨를이 없었다.
모든것, 그의 생활은 앞에 있었던것이다.

별아 우리함께 지켜주자

신형길

어디선가 불어오는
사막의 열풍 옷깃을 가버이 스치는데
하늘가득 반짝이는 별무리
웃으며 손짓하며 다정히 속삭이는듯

늘쌍 이런 때면
내 마음
별, 별이 되고싶어라
밝은 그 눈동자로
그리운 조국산천을 굽어보리

내 마음
늘쌍 이런 밤이면
별빛, 별빛이 되고싶어라
줄기마다 잎새마다 즙이 올라
살찌는 애기도 품어도 주리

북두칠성 저 멀리
나의 조국은 수수천리
날이 갈수록 더더욱 그리운 품이어

나는 미처 몰랐노라
꿈을 안고 꿈을 키우며
사랑의 넓은 품에 안기여 응석을 부릴 때엔
조국의 그 은혜 그 사랑
나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에 비길수 없음을

별아
너는 듣느냐
이 밤에도 둥근달과 속삭이며 춤추는
내 나라 풍요한 들판의 설레임

달디단 젓 배불리먹고
단잠을 정한 아이들의 숨소리
새날의 위훈으로 억센 날개를 펼칠
조국의 거세찬 심장의 고동소리...

이 모든것
유정한 그 손길로 쓸어주며
부러움에 지켜보는 별아
기쁨에 겨워
행복에 젖어
너의 눈 그리도 총총히 밝으나

별아 너는
이 밤에도
뜨거운 심장으로 천리방선을 안아지켜선
초병의 미더운 그 눈동자!

아프리카 여기 대륙에
밤은 끝없이 깊어만가도
내 오래도록 잠 청할수 없구나
해와 별 빛나는 내 조국
어머니조국의 숨결을 안겨주는
별이 좋아
별빛이 좋아

지켜주자 지켜주자
이 밤에도 우리함께
행복의 보화를 하늘높이 쌓아올리며
락원의 꽃바다를 펼쳐가는
내 나라의 안녕을 지켜주자

세부묘사와 참신하고 독특한 인간형상

배영철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과 《대지는 푸르다》는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비상한 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키고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과 《대지는 푸르다》가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끝없이 격동의 세계에 이 끌어가는것은 예술적형상창조의 기본수단으로서의 생활세부들을 옹게 골라잡고 그것들을 예술적으로 잘 그려낸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생활세부를 옹게 탐구해내며 탐구된 세부를 잘 그리는데는 생활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형상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문학에서 인간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려면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려야 하며 인간의 사상감정이 표현되고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발전하여나가는 구체적인 생활정형의 단면들을 파고들어 섬세하게 그릴 때라야 작품에는 감명깊은 인간세계가 펼쳐지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인간과 그들의 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형상화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생활을 생동하고 깊이있게 그려내는 문제는 독창적이며 비반복적인 예술적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할 때만이 해결될수 있다.

개성적특성이 산 비반복적인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세부묘사를 잘 하는것이다. 인물들의 사상감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낼수 있고 성격을 뚜렷하게 특징지을수 있는 생활세부를 골라잡고 집중적으로 섬세하게 그려내는것은 골라잡은 종자를 형상적으로 꽃피우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된다.

무엇보다먼저 생활세부를 잘 그려야 형상을 간결하고 명백하게 창조해낼수 있다.

예술적형상은 간결하고 명백할 때에만 인간과 그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으며 생활의 의의를 감동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낼수 있다. 그런데 형상을 간결하고 명백하게 하자면 생활을 일반적이며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구체

적이며 생동한 묘사를 통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은 인간의 사상감정이 추상적인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이루어지고 표현되기때문이다.

생활세부를 잘 그리는것은 또한 성격을 인상깊게 특징지으며 생활을 뜻깊게 보여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간성격의 섬세한 부분들을 진실하게 보여주고 그들의 내면세계의 미묘한 움직임을 생동하게 그리기 위하여 생활세부들을 파고들어 감명깊게 그려낸 훌륭한 작품들의 창조경험은 이를 실증해준다.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에는 차광수가 안경을 낀채 물속에 뛰어들어 생동한 행동세부가 주어졌는데 이것은 그의 성격을 인상깊게 특징짓는 세부이다.

《김성주 동지께서는 나무밑에 이르시자 철봉대에 매달리듯 경충 뛰어 길이 훨씬 넘는 나무가지에 양복저고리를 걸쳐놓으시고 강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시였다.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고 강속에 들어서신 김성주 동지께서는 푸-푸- 물을 내뿜며 기운차게 세수를 하시였다.

차광수도 어깨에 걸쳤던 피나리보집과 학생복저고리를 한데 뭉그러 나무밑에 집어던지고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기 바쁘게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헤엄비며 머리를 물속에 잠그던 그는 불안한 <아이쿠>소리를 지르며 한길이나 뛰어올랐다.

.....

차광수는 물살에 밀리어 한쪽다리가 겨우 귀바퀴에 걸려있는 안경을 벗어들었다. 물에 잠겼던 안경은 물방울을 똑똑 떨어뜨리며 눈부시게 햇빛을 반사하였다.》

안경을 끼고 물속에 뛰어드는것과 같은 전망중은 차광수가 생활과정에 가끔 드러내군하는 빈구석이다. 혁명의 실천에서나 리론문제에 있어서는 자막대기같이 정확하고 매사에 빈틈이 없는 그가 가끔 드러내군하는 생활에서의 이런 빈구석은 그의 불같이 뜨겁고 무쇠같이 억센 사람됨됨이를 부드럽게 장식하는 하나의 세련된 장식구갈기도 하다.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에는 이밖에도 성격을 인상깊게 특징지으며 생활을 생동하고 깊이있게 보여주는 세부들이 적지 않다.

세부묘사를 잘하여 작품의 질적수준을 더욱 높아지면 우선 골라잡은 종자와 주체해명에 알맞는

생활세부들을 골라잡아야 한다.

종자의 요구와 주제해명에 맞게 생활세부들을 잘 그리는데는 문예작품의 굳더거기를 없애고 줄거리의 대를 튼튼히 세우며 작가의 의도를 명백히 밝힐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된다.

아무리 흥미있는 생활세부라도 그것이 작품의 종자와 주제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의도 가지지 못할뿐 아니라 오히려 굳더거리로서 예술적형상의 전일성과 작품의 간결성을 보장하는데 지장을 주게 된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 주어진 수많은 생활세부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주제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조선혁명을 새로운 일대 양양으로 이끌어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빛나는 혁명업적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속에 아로새기는데 알맞는 세부들이다.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로부터 억울한 정치적루명을 쓰고 박해를 받던 혁명전사들을 넓고넓은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고 다함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민생단》 보파리와 관련한 세부, 언제나 사령부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있는 리복철의 털모자,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기 위하여 최선급이가 밤을 새워가며 정성껏 지은 군복과 관련한 세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아동단원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심을 감명깊게 보여주는 열개의 술방울, 권학식의 특징적인 행동과 그의 지난날의 생활경위, 사상정신적특징까지 보여주는 그의 손때 묻은 물주리를 비롯한 모든 세부들은 그토록 준엄하고도 간고한 시련속에서 그처럼 짧은 기간에 전반적조선혁명의 일대 양양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력과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과 영명하고 위대하신 령도자로서의 품모를 진실하고 감명깊게 보여주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고있는 세부들이다.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에 설정된 생동한 세부들인 짙광이와 명주바지저고리, 노트와 저자구력, 변태익로인이 차린 저녁상 등과 뜻깊은 대사들도 작품의 종자와 주제해명에 알맞는것들이다.

특히 차광수가 오가자회의를 결속하기 전날에 조선혁명군지도성원들의 회의를 따로 열어놓고 심각한 어조로 말한 대목은 작품이 제기한 문제,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안으시고 겉고 또 겹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발자취에는 피눈물이 어려 있으나 마침내 인민들은 그 사랑을 안고 일어나 혁명의 푸른 대지를 이루었다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우리가 한별동무를 받들고 조선혁명의 새길을 모색하며 싸워온지도 어언 4년여의 세월이 흘렀

습니다. 한별동무는 우리를 친형제와 같이, 허물없는 동무와 같이 대해주고 뜨거운 혁명적우정을 아낌없이 부어주었습니다. 한별동무의 지도아래 우리는 조선혁명의 참다운 길을 찾았고 혁명가의 긍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혁명의 길이 험난하다는것도 체험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인민들의 피땀한 념원에도 보답하지 못했을뿐아니라 한별동무의 뜨거운 혁명적우정에도, 그 위대한 인품에도 보답할만큼 일을 잘하지 못하고있으며 한별동무의 의도를 잘 받들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별동무앞에 혁명을 위하여 충성을 다바칠 결의를 가다듬고 다시 광활한 지대로 떠나갈것이며 혁명적조직로선을 관철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할대군을 마련할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영명한 지도자인 한별동무의 위대성을 더 깊이 알아야 하며 온 겨레를 한별동무의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서 우리가 여태 갈망해오던대로 한별동무의 이름을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김일성**으로 고치되 한일자, 별성자 대신에 우리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 되어달라는 뜻에서 날일자, 이룰성자를 놓아서 **김일성**으로 부르도록 정식 결정하자는것을 제의합니다.》

불타는 심장으로 격조높이 부르짖는 차광수의 이 절절한 호소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고있으며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의 사상적결론이기도 하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과 《대지는 푸르다》에서의 예술적세부묘사는 무엇보다먼저 종자와 주제해명에 알맞는 생활세부들의 적절한 탐구와 그의 능숙한 활용에서 그 가치를 드러내야 한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세부묘사를 잘하여 작품의 형상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본질적인 생활세부를 골라잡는것이 중요하다.

현실은 수많은 생활세부들로 충만되어있다. 그러나 이 무수한 생활세부들이 다 생활의 본질과 관련되어있는것은 결코 아니다.

작가는 이 무수한 생활세부들가운데서 하나가 열, 백을 대신할만한 그런 본질적인 세부 시대의 특징과 사회제도의 본질을 체현한 전형적인 세부들을 골라잡고 분석적으로 깊이있게 그릴 때에만 그 세부들로 이루어진 작품은 비로소 감명깊은 인간세계를 독자들에게 펼쳐보일수 있다. 형상을 간결하게 창조하고 인간생활을 의의깊게 천명하는 비결이 전형적인 생활세부를 옹계 찾아내어 작품의 전반적형상에 유기적으로 복종시키는데 있다고 하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 나오는 리복철의 털모자와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에 등장하는 고만녀의 터갈린 손과 밭이며 토스레웃 그리고

갑산동사람들이 지은 풀막과 그들의 저녁끼니에 대한 생활세부는 인물들의 개성적특성과 당시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과 사회력사적환경을 보여주는데 의의깊게 리용된 전형적인 세부들이다.

갑산동사람들의 생활처지를 보여주는 생활세부만을 보더라도 그렇다.

교하에서 종파사대주의자들이 일으킨 8.1 폭동은 드디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피비린 인간도살을 빚어냈다.

불쌍한 조선사람, 조국을 빼앗기고 이국땅에 쫓겨와서 근근 연명하는 조선사람들에게 앞에서는 왜놈들이 총질을 하고 뒤에서는 반동군벌이 총질을 했다.

그리하여 어제날 길가에 모여살던 갑산동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빈오두막만 하나 남겨놓고 알몸으로 한지에 나앉아 새로운 갑산동을 이루었다. 그들은 골짜기들에 풀막을 짓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하고있다.

작품은 이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저녁끼니에 대한 세부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골짜기바닥에 우등불이 여기저기 타오르고 있다. 실개천을 의지삼아 돌가마를 걸어놓고 저녁차비들을 하는 모양이다. 명아주순이라도 우리는지 씹쓸한 풀내가 산마루에까지 풍겨왔다. 풀막같은것도 대어섯개 보인다. ...

순가락소리가 울린다. 순가락질을 할것이나 있는가. 선채로 후룩후룩 마셔버리고 사발을 놓는 아이도 있다. 젓먹이아이들의 칭얼거리는 소리도 나고 모기를 때리느라고 목덜미를 후려치는 소리도 난다. 우등불에서는 쑥내가 떠돌고 명아주 죽가마에서는 푸릿한 냄새를 풍기며 깨끗한 김이 피어 오른다.》

이것이 바로 갑산동사람들의 생활, 우리 겨레의 생활이었다.

갑산동사람들이 사는 풀막과 명아주죽가마는 광판하는 일제의 파썸정책과 우리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특징짓는 세부들로 람구되었다. 따라서 이 생활세부들은 그자체로서도 당대의 사회상을 특징지어주는 전형적인 세부로 된다.

세부묘사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특징적인 세부를 골라잡고 생동하게 그리는것이다.

작가에게는 자기의 그 어떤 창작적의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백가지 천가지의 세부를 골라잡을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있다. 그러나 그가운데서 하나가 백을 대신할만한 그런 특징적인 세부, 작가의 형상적의도를 가장 명백하고 깊이있게 표현해 줄수 있는 세부를 골라잡아야 한다.

작품에 그려진 세부가 비록 자그마한것일지라도 그것이 대상의 본질과 특징을 그 전모에서 뚜렷이 드러낼수 있는것이라면 사람들의 기억속에 오래동안 살아있게 된다. 하나의 세부를 통해서도 인물 성격과 심리의 특성, 시대의 특징을 보

여주는 여기에 세부묘사의 강한 힘이 있다. 작가의 예술적 기교의 높이는 특징적인 세부가 가지고있는 표현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데 있다.

예술적형상을 창조해야 할 작가가 잡다한 생활세부들을 끌어들여 동일한 농도로 생활을 그릴 때에는 형상들의 색조에서 강약이 없는 평균화가 이루어지게 되며 따라서 독자들의 인상에 남는것이 없게 된다.

특히 작가들은 인물성격을 특징지을수 있는 세부들을 골라잡아야 한다.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에는 인물들의 개성적 특징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그런 세부들이 적지 않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은 모두다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을 위해서라면 한목숨 기꺼이 바치기에 준비되어있을뿐아니라 그이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로선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공통된 사상정신적특질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있다.

리지적이며 불같이 뜨겁고 무쇠같이 억센 차광수, 언제나 불붙기 잘하는 열정적인 시인인 현옥, 남다른 미모와 총명, 결국한 성품을 지닌 활달한 선아, 손탁이 세고 무슨 일이든 결단성있게 해제끼는 박정학, 불접이 좋고 놀기 잘하는 허재철, 틀이 있고 자존심이 강한 오석하, 평리하고 당돌하고 조숙한 강영진 등은 각이한 생활경위와 서로 다른 성격론리를 가진 생동한 개성들이다.

작품에서는 생동하고 뜻깊은 묘사와 성격적이며 철학적인 대사를 구체적인 정황에 맞게 줌으로써 등장인물들의 개성적특성을 뚜렷이 밝혔다.

소설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초상묘사를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첫머리에 간명하게 줌으로써 매 인물의 개성적특성을 구체적인 생김새에 대한 표상을 가지고 그려볼수 있게 하였다.

등장인물들의 외형적모습은 그의 정신세계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장편소설에서의 초상묘사의 특징은 인물들의 외형적모습을 일반적으로 제시한데 있는것이 아니라 매 인물의 개성을 살릴수 있도록 간명하게 주었다는데 있다.

차광수의 진한 눈섭이며 넓은 이마며 검은 눈동자, 현옥의 높은 이마와 굽술굽술한 머리며 어글어글한 눈, 선아의 흰 살결과 긴 살눈섭, 억실거리는 눈과 날씬한 몸매며 오석하의 원가리마와 단정한 옷차림새, 한영희의 꼭 다물린 입이며 만만찮은 빛을 내뿜는 눈이며 강영진의 앞뒤로 뒤뚱하게 빠져져나온 남북머리와 귀엽게 쳐들린 들창코, 오목하게 꺼져들어간 청청하게 맑은 눈 등은 각이한 인간들의 모습을 얼마나 형상적으로 부각시켜주는가!

차광수의 지성과 열정은 그의 진한 눈섭과 넓은

은 이마와 검은 눈동자와 조화되어있으며 현옥의 불붙기 잘하는 시인의 기질은 그의 높은 이마와 굽술굽술한 머리며 어글어글한 눈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선아의 남다른 총명과 결곡한 성품은 그의 길고 곧은 다리와 하얀 이, 긴 살눈섭이며 억실거리는 눈과 잘 어울린다. 그리고 강영진의 앞뒤로 되뚱하게 빼여져나온 남북머리와 귀엽게 생긴 들창코, 오목하게 꺼져들어간 청청하게 맑은 눈 또한 그의 명리하고 당돌하고 조숙한 그의 개성적성격과 얼마나 잘 조화되어있는가.

작품에는 이처럼 전개된 초상묘사는 없으나 그것이 매 인물이 등장하는 첫부분에서 생동하게, 인상깊게 주어짐으로써 그들의 개성적특성이 뚜렷이 안겨온다.

작품에서는 인물들의 성격을 살릴수 있는 풍경이나 사물들도 옹골체 끌라잡고 의의깊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 그려진 자연묘사는 사건이 심화되는 가장 적중한 계기들에 주어짐으로써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깊어있게 보여주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검은 구름도 가없는 밀림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쪽으로 훨훨 날아가는 수리개의 모습은 하루빨리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 안기고싶어하는 장기령의 내면세계를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은방울을 굴리는듯한 산새의 울음소리며 깃을 치며 날아에는 비둘기의 모습도 최선금과 한남실의 생활과 밀착시켜 묘사되었기때문에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따르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정신세계가 선명하고 특색있게 안겨온다.

예술적세부는 특색이 있어야 할뿐아니라 많은 표현력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하나의 세부를 가지고도 열 백을 련상시킬수 있는 그런 세부묘사는 형상적화폭의 표현적풍만성을 강화하는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성격적이며 표현성이 강한 세부들을 잘 골라써야 시대의 본질과 리념, 생활의 전모를 느낄수 있으며 개성이 있는 산 인간의 전형을 옹골체 창조할수 있다.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는 표현성이 강한 세부를 골라 쓰는데서도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 하나가 명주바지저고리와 찢광이와 관련한 세부이다.

이 생활세부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동지에 대한 진실로 후덥고 웅심깊은 혁명적우정을 뜨겁게 말해주는 독특한 세부로서 독자들에게 많은것을 생각하게 한다.

석진의 집에서 밤을 꼬박 밝히시고 이른조반끝에 산으로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산골짜기를 오르시다가 간밤에 읍내에서 강연을 하다가

쫓겨난 최태현이가 자기 영향하에 있는 청년들을 따로 모아놓고 당재건을 위해 폭동준비를 다그쳐야 한다고 부르짖었다는 석하의 보고를 들으시고 격분을 억누를길이 없으시여 손에 잡히는 나무가지를 힘껏 비틀어 꺾으시었다. 새빨강계 익은 찢광이가 그이의 눈앞에서 춤을 추었다. 한순간에 분노의 밀물뒤로 찢르르하고 가슴허비는 추억이 되살아났다. 심장이 약한 현옥이가 이런 찢광이를 먹던 생각이 나시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찢광이 한알을 씹어보시고는 가까이 있는 산사나무의 큰가지를 휘어잡으시었다.

오석하가 그이께서 잡수실만한 산열매를 고르시는줄 알고 그 한 나무만 따도 한말은 따졌다고 하자 그이께서는 동무들가운데 이런 찢광이를 좋아하는 동무가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찢광이를 한줌 따시었다.

이것이 찢광이와 관련한 첫번째 세부이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반석어머님께서 정성껏 손질하여 자신께 보내신 돌아가신 김형직선생님의 그 옷의 앞자락에 손수 따신 찢광이를 넣어 현옥동무한테 보내시었다.

이것이 찢광이에 대한 두번째 세부묘사이다.

혁명동지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는 사랑이 뜨겁게 스며있는 이 두개의 세부묘사는 그이께서 현옥이가 심장이 나쁘기때문에 약으로 써주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의미에서만 주어진 묘사가 아니다. 이 두 세부에는 현옥이가 이 열매를 씹으며 조국의 향기를 느끼면서 기어이 살아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를 가슴깊이 새기라는 보다 깊은 뜻이 깃들어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현옥이기에 그는 찢광이 하나를 입에 넣고 씹으며 아름다운 조국의 향기를 느끼었으며 한별동지는 우리의 조국이며 우리는 끝까지 살아서 그이를 지켜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부르짖는것이다.

명주바지저고리와 찢광이와 관련한 세부의 매력은 현옥이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는 사랑과 조국의 향기를 가슴뜨겁게 느끼며 투쟁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도록 하는 계기로 된데 있다.

작품의 세부는 모두 이처럼 사건과 인물을 움직이며 전개시키는 계기로 될 때만이 작품이 짙어지고 전일적인 예술적화폭을 창조해낼수 있다.

생활세부를 잘 그리는 문제는 언어문제를 옹골체 구사하는 문제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모든 생활세부는 언어문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같은 대상도 각이한 작가들의 언어문제에 따라 농도와 색깔을 달리할수 있으며 그 의의도 여러가지 각도에서 해석될수 있다. 아무리 좋은 생활세부라 할지라도 훌륭한 언어문체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자기의 가치를 빛내일수 없다. 언어문체를 잘 구사하는 여기에 생활세부를 깊이있고

특색있게 그리는 비결의 하나가 있다고 하는것도 바로 이런 사정과 관련되어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골라잡은 생활세부를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리는데 기본을 두고 언어를 구사하며 그 의의를 깊이있게 밝혀내기 위한 견지에서 독창적으로 탐구하여야 한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과 《대지는 푸르다》에 나오는 인물들의 풍부한 감정과 섬세한 심리가 공허한 감정과 심리로 되지 않고 아름답고 풍부한 생활적인 감정과 심리로 독자들에게 안겨오는것은 결국 그것이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과 밀착되고 성격론리에 맞게 특색있게 그려진데 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의 언어는 등장인물들의 구체적인 생활과 성격론리에 맞게 여러모로 문제의 변화속에서 구사되어있다.

작품에서는 인물들의 풍부하고도 섬세한 감정과 심리를 혁명적정서가 진하게 풍기는 설화로 혹은 분석적묘사로 그리기도 하였으며 새로운 특색있는 대사로 내면세계의 미묘한 움직임을 속속들이 드러내기도 하였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새로운 삶의 보람찬 길을 걷게 될 리경준부부의 개성적특성

과 내면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주기 위하여 개성적인 대사와 서정이 짙은 심리묘사를 생활의 구체적인 정황에 어울리게 효과적으로 리용하였다.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의 언어문제는 정론적이고 논리적이면서도 서정이 짙게 안겨오는것으로 하여 다른 작품의 언어문체와 구별된다.

작품의 어휘들은 그 하나하나가 신중히 선택된것으로서 정밀하게 련결되어있으며 강한 주정을 나타내지만 표현적효과를 나타내는데 알맞는것들이다. 그 결과 매개 어휘는 문장속에서 도드라진 자리를 차지하면서 복잡하고 섬세한 논리와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밝히는데 복종하고있다.

오가자의 완고한 민족주의자인 변태익로인이 내세우는 《리상촌》을 뒤집어엎고 혁명촌으로 만드는데 대한 문제를 놓고 차광수와 박경학이 벌리는 론쟁이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예술적세부묘사는 형상창조의 기본수단으로 되는데만큼 작가들은 독창적인 세부탐구와 세부묘사에 대한 자신의 요구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그래야 참신하고 독특한 인간형상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창작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지상토론

진실한 묘사, 생동한 언어형상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의 언어형상을 두고-

리병제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9년 10월~1940년 3월 백두산동북부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선회작전을 승리로 조직령도하신 불멸의 력사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었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가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거창한 규모의 력사적화폭을 그대로 펼쳐 보일수 있게 한 언어형상의 생동성에 있다.

언어형상의 생동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말 표현의 우수성을 효과있게 잘 살려쓰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말은 표현이 풍부하여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다 잘 나타낼수 있으며 사람들을 격동시킬수 있고 울릴수도 있으며 웃길수도 있습니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를 통하여 1930년대 말 사회력사적환경과 각이한 인간들의 개성적특징은 물론 백두산동북부의 거창한 자연의 형세까지 그토록 실감있게 그려낼수 있는것은 우리 말 문화어의 높은 표현성을 잘 살려쓴 언어형상의

생동성과도 관련된다.

창작가들 특히 소설가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우리 말의 표현성높은 다양한 수단, 수법들을 작품의 형상적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있다.

언제나 형상자체가 참신하고 독창적으로 되어야 하는것만큼 그를 창조하는 물질적수단인 언어가 비반복성을 띠지 않을수 없다.

언어형상의 비반복성은 그 어떤 희귀한 어휘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상에 꼭 들어맞는 언어구사의 구체성, 적중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 리용된 언어형상의 생동성, 개성적비반복성은 다른 소설작품들에서 전혀 찾아볼수 없는 새로운 어휘수단에 의해서만 실현된것이 아니다.

작품에 리용된 언어수단들은 흔히 언어생활에서 보고 들을수 있는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형상의 총체적인 질에서 다른 작품들과 엄연히 구별되는 자기의 개성적특성을 나타낼수 있는것은 묘사에 꼭 맞게 선택리용된 언어사용의 정확성때문이다.

최인관의 내면세계를 보여준 묘사도 그러하다.
《아니아니 할수록 걱정은 닝쿨을 뺄고 마디를
치면서 견잡을수 없이 번져나가 인관의 몸을 칭
칭 읊아매는것이였다.》

보는바와 같이 묘사는 흔히 볼수 있는 일반어
휘들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인연을
꿨고 선뜻 혁명투쟁에 나설수 없는 최인관의 착
잡한 내면세계를 잘 형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
의 자애로운 풍모와 혁명투사들의 뜨거운 사랑에
서 참된 삶의 의의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나 오
래동안 예수를 믿으며 복잡한 현실과 담쌓고 한
가정의 단란한 생활에서 행복을 찾던 소부르조아
적인 인생관에서 단번에 벗어나올수 없었던 최인
관의 복잡한 심리세계를 그토록 생동하게 드러내
보일수 있는것은 걱정을 닝쿨에 건준 생동한 비
유와 그것이 몸을 칭칭 읊아매다는 독특한 과장
에 의한 함축된 표현으로 형상을 펴나간 언어구
사의 비반복성에 있다.

인간의 성격특징을 깊이있고 생동하게 그려
내는 언어구사의 비반복성은 언어 수단, 수법들
의 정확한 선택과 그의 적중한 리용에 있다.

작가에게 있어서 언어형상이 고도의 창조성을
요하는 기본분야의 하나로, 높은 기량과 창작적
개성을 특징짓는 주요조건으로 되는것은 작품의
제목으로부터 언어묘사전부가 비반복적으로 이루
어 진다는데 있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적절한 비유와 과
장, 함축적이고 분석적인 언어형상에 의한 묘사
의 생동성으로 하여 다양한 인간의 각이한 운명
선과 개성적특징을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속에서
다면적으로 깊이있게 밝혔을뿐아니라 1930년대
말의 엄혹한 사회력사적환경과 목단령의 험준한
대원시림을 비롯하여 광활한 백두산동북부의 자
연을 일목요연하고도 섬세하게 부각하였다.

《목단령은 자기 품에 들어선 사람들을 그 무시
무시한 승냥이의 뼈두덤으로 위협하면서 수백만
년 간직하여온 처녀림의 순결과 비밀을 지키려는
듯 완강하게 조선인민혁명군의 걸음을 막아나섰
다.

한낮에도 어둑침침한 밀림속에는 여기저기 뿌
다귀를 쳐들고 나가넘어진 진대나무들이 널려있
었다. 중생대의 거대한 짐승들의 잔해와도 같아
보이는 이 진대나무통들이 어떤데에는 수십, 수
백대가 한데 얹혀 넘어져 더미를 이루고 쌓여있
었다. 그 무지우에 또 그만큼 늙은 거목들이 하
늘을 가리고 들어섰으니 대체 이 원시림의 나이
는 얼마나 되는것인가?

하여 진대나무가시들은 이 원시림속에 흘러간
수백만년 세월의 비밀이라도 품고있는듯 엄숙한
감을 자아냈으며 헤아리기 어려운 엄청난 세월,
무상한 생명의 교체속에서 이루어진 대원시림의

위용은 사람들에게 범접하기 어려운 위압감을 주
기도 하였다.

.....

절룩거리며 무겁게 옮겨지는 다리들, 떨어진
신창을 노끈이나 쇠줄같은것으로 비끄러맨 발,
노루가죽으로 싸고 나무껍질로 동여맨 다리, 기
울나위도 없이 헤어져 너털너털 숨이 나온 바지
가랭이들이 그이 앞으로 지나갔다. ...

<야, 너 왜 이러니? 제발 정신을 차려라. 황소
같은게 왜 이래 응! 돈화땅만 가면 산다. 일어나
라, 어서 일어나!>

덕만은 아름에 버는 동생을 안아일으키느라고
들썹들썹 모지름을 쓴다. ...

행군신호나팔이 울리었다.

행군중대는 세찬 강줄기처럼 밀림속을 누비며
흘러내렸다.

이 겨울 동북만주 광막한 산과 들을 누비며 수
천수만리로 뻗어나갈 대부대전회작전의 간고한
로정의 굵이굵이마다 그이께서 심어놓으신 드림
없는 승리의주추돌은 얼마나 되는것인가!...》

보는바와 같이 이것은 천고의 원시림으로 뒤덮
인 험준한 목단령을 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간고
한 행군로정에 대한 묘사이다.

묘사의 초점은 태고연한 목단령의 원시림으로
부터 출발하여 굵주림과 추위, 설한풍을 이겨내
면서 한걸음한걸음, 험준한 산밭을 넘는 조선인
민혁명군의 간고한 행군서열을 거쳐 지칠대로 지
친 청산골형제의 구체적모습에 이르렀다가 최후
승리의 신심드높이 세찬 강줄기처럼 밀림속을 누
비나가는 혁명투사들의 승엄한 감정세계으로 옮겨졌다.

마치 영화의 화면을 방불케 하는 이러한 생동
한 묘사는 인간과 자연, 전체와 부분, 외모와 내
면세계를 밀착시켜 하나의 전일적인 화폭으로 심
화시킨 언어형상의 회화성에 의하여 이루어질수
있었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에서는 형상 수단과
수법, 기교를 독특하게 리용할줄 알아야 작품의
사상을 독창적으로 밝혀낼수 있다고 가르치고있
다.

소설은 심산속에서 방황하다가 끝내 헤어나오
지 못하고 죽어버린 사나운 승냥이때의 잔해와
결부시켜 목단령의 험준한 모습을 짧은 묘사로
생동하게 부각시키고있다.

전개된 묘사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대
나무통들과 거목에 대한 간명한 묘사만으로도 능
히 목단령의 천고의 밀림과 험준한 산세를 생동
하게 그려낼수 있는 비결은 하나를 통하여 여러
가지를 상상하고 련상할수 있게 언어형상을 독특
하게 실현한데 있다.

소설이 묘사문학이라고 해서 있는것을 그대로

그리기만 하면 생동한 표상을 주는것이 아니다. 하나를 통하여 능히 열을 보여줄수 있고 백을 가늠할수 있게 이루어진 묘사라야 참말로 가치있는 것으로 된다.

목단령의 원시림에 대한 묘사와 꼭 맞물려서 항일유격대원들의 행군서열과 쫓라병에 걸린 북만이의 세부를 주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승리의 신심만은 변치 않은 투사들의 내면세계를 활짝 개방시켜 놓음으로써 대부대선회작전의 간고한 로정이 그토록 생동하게 한쪽의 그림처럼 펼쳐질 수 있었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가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것은 또한 묘사에 정서성을 부여한 언어형상의 생동성과도 관련된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에서는 정서와 감정이 열렬하고 적극적인일수록 작품의 감동은 더욱 커진다고 가르치고있다.

묘사는 철저히 인간과 그들의 생활을 현실그대로의 모습으로 펼쳐보여주어야 하는것만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여기에 감정정서성이 결여되면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한다.

오중훈, 배정식, 영남, 장호를 비롯한 긍정적인 인물들의 모습에서 풍겨오는 감정정서가 노자끼나 마에다와 같은 일제살인악당들의 모습에서 생기는 감정과 질적으로 다른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매 인물들의 성격묘사에 부여된 감정정서가 또한 사람마다 다르다.

오중훈련대장의 희생과 관련하여 주어진 심리묘사는 강렬성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강한 심적충격을 주면서 깊은 여운을 남긴다.

《아아, 중훈아! 그처럼 애절한 사령관동지의 사랑이 네 온몸을 감싸안았건만 네 어찌 별떡 눈을 뜨고 일어나지 못하느냐?》

이 얼마나 가슴을 치며 뼈에 사무치게 하는 충격적인 심리묘사인가.

이 묘사는 귀중한 혁명동지를 잃은 절통한 내면 세계와 투사들의 애끓는 심장을 거쳐 뜨겁게 쏟아져나온 폭발적인 격정인것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그토록 깊은 감동을 준다.

언제나 언어형상에 배어나오는 높은 감정정서성은 문장을 꾸미는 수식에 있는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장속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열정에 있다.

리철범, 배정식의 형상에서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영남이의 모습에서는 귀여움과 사랑의 감정을 자아내게 한다.

목단령의 험한 산밭을 타고 운신조차 하지 못하는 최인관을 부축하고 걸으며 도란도란 《유격대의 도》를 닦는 이야기를 하는 영남이의 모습에

서 한 품에 꼭 껴안고 끝없이 끌어주고싶은 애무의 강한 충동을 금할수 없게 한다.

《서너달, 반년, 일년, 그저 사람나름이고 마음 먹기탓이지요. 십년을 따라다니다 도통하지 못하고 변절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힘이라는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거지 팔다리에 있는게 아니래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최인관에게 한 영남이의 이 짧은 말만으로도 장군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위대한 주체사상만을 생활신조로 삼고 살며 싸워나가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승고한 정신세계를 뜨겁게 감득할수 있다.

주체사상의 진리를 생활체험을 통하여 터득하기에는 아직 너무나 애어리지만 그의 자그마한 가슴속에서 불타고있는것은 오로지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싸워나가기려는 확고부동한 신념이었다.

영남이의 이렇듯 애젊은 모습에서 풍겨나오는 사랑과 귀여움의 정서는 간접전달문의 형식으로 주어진 언어형상에 의하여 실현되었다.

만일 영남이의 말에서 《~있다고 해요.》나 《~아니래요.》를 《~있어요.》나 《~아니예요.》로 표현했다면 그것은 벌써 어린 영남이가 아니며 따라서 그토록 새삼스럽게 귀여운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을것이다.

묘사에서 풍겨지는 감정정서는 인물묘사나 대화에서만뿐만아니라 자연묘사에서도 진하게 느껴지고 있다.

《달은 이미 떨어졌으나 눈별관인데다가 별빛이 유난히도 여문 밤이여서 어둡지는 않았다. 이 밤에는 어데서 그렇게도 술한 별이 쏟아나왔는지 크고작은 별들이 온통 하늘 가득 담기여 바글바글 끓는다. 슬쩍 하늘곱만 건드려도 별무리는 와르르 찌락눈처럼 쏟아져내릴것만 같았다.》

소설들에서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반짝이는 별무리들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보여준 레는 수없이 많지만 이처럼 생동하게 표현한 묘사는 그리 많지 못하다.

백석탄밀영에서 진행된 군정훈련과 밀착시켜 주어진 이 묘사는 돈화원정에서 새로 입대한 수많은 신입대원들의 무적의 용사들로 자라나는 모습과 맞물려지면서 밝은 감정정서를 자아내고있다.

이렇듯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우리 말, 문화어의 표현성을 훌륭히 살려 묘사의 진실성과 생동성을 보장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힘있는 무기의 하나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림진강의 밤여울물소리

신병강

그 뉘를 부르며

너는 온 밤을 주절대느냐

그 무엇을 하소하며

너는 온 밤 기슭을 치느냐

잠들수 없구나 초행길에 하루밤을 묵는

강녘의 이 마을집에서

강아, 나는 너의 밤여울물소리 듣는다

베개깃을 스치는 너 여울물소리

얼핏 들으면 실버들 성성한

내 고향 앞강의 여울물소리와 다름없건만

무심치 않다

여기서 듣는 너의 밤여울물소리...

여기서 멀지 않으리

그리워 꿈결에도 불러보는 혈육들이 있는곳

강 하나 사이두고 원한많은 생리별의 숨결이

이 밤- 여울물소리로

내 가슴에 흘러드는가!

아마 너의 여울물 그 어느 기슭엔

이 강을 넘나들던 나그네들의 발길에 닿은

나루터의 징검돌이 묻혀있으리

너의 강변 그 어느 기슭엔

강건너 해산하러 가는 엄마의 치마를 잡고

칭얼대며 따라서는 딸애앞에 세밤자고 오마던

너인의 애틋한 약속이 스며있으리

웃으며 떠나온 그 기슭이

울어도 다시 못갈 기슭이 될줄 어이 알았으랴

하나의 땅은 갈라져 천리로 멀어도

새벽이면 닭우는 소리가

아래웃동네처럼 울려올제

그리운 혈육을 부르며 가슴치는이가

어찌 경상도집 할머니만이라!

꽃감을 쥐여주며 다시 오마던

너인의 그 세밤이 천만밤으로 지냈건만

다시 갈수 없는 길로 막혔으니

내 묵는 이 하루밤이

절통한 분별의 세월을 더하여주는

그 백밤 천밤이나 되는것처럼

아- 밤이 길구나!

잠들길 없어, 참을길 없어

내 번쩍 머리들어 강쪽을 바라보니

조용하던 네 여울물소리

내 가슴속 울분의 세찬 격랑인가

와- 와 일어서며 사품치며

절벽을 들부신다, 들부신다.

이제 더는 미룰수 없는 분별의 세월을 두고

잠 못드는 조선의 밤이 분노를 합쳐

어버이수령님 한품속에

5천만 민족이 함께 살자고

길길이 솟구쳐오르며, 갈기를 날리며

원한의 장벽을 들부신다

내 가슴을 친다

아, 림진강의 노한 웨침소리여!